

신경과외사의
영어뇌 만들기

신경과의사의 영어뇌 만들기

영어공부
안 늦었다

문법공부
하지마라

영어학원
안 가도 된다

수능영어는
버려라

뇌의 형태가
실제로 변한다



· 류상호 지음 ·

대학입시에 5번 실패했던 의사가
32살에 처음 시작하여 40살에 영어 진행 생방송에 고정출연 하게 된
혼자 영어 공부하기 노하우 대공개!!!

신경과의사로서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개하는 『독학영어공부의 비법』

바른북스

추천사

I met Dr. Ryu through my EBS radio program, Power English. From what I hear, there are many fans of our show but Dr. Ryu falls into the category of “die-hard/crazy fan” of PE. His enthusiasm and support for our show is unparalleled. In our fan community, he is also known as “The Father” (alluding to Darth Vader from Star Wars). He affectionately calls me “Noona” and I reciprocate by calling him “Dongseng.” He is never shy to express his support and love for us and when he told me he wrote a book, I was intrigued. What kind of book? I took some time to read the draft (not easy as it is all in Korean) and was incredibly impressed. His narrative filled with his poignant personal history and enlightening language learning tips coupled with medical insights make for an informative and inspiring read.

저는 한국교육방송의 중급영어회화(파워 잉글리시)를 통해 류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파워 잉글리시는 골수팬들이 많은데 류선생님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우리 팬클럽에서 ‘아버지(스타워즈 주인공의 루크 스카이 워커와 레아 공주의 아버지인 Darth Vader를 넌지시 말하는 그런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만큼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그의 태도에 우리는 금방 ‘누나’ ‘동생’으로 편하게 부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류선생님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의 글 가운데에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적혀 있어서, 저는 ‘과연 어떠한 글일까’ 하고 그의 글을 읽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저에게 한국어로 적힌 그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들고 어려웠지만, 그의 글을 읽을수록 더더욱 저의 흥미를 끌어, 그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통해 놀랄만한 감동과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아픔을 담은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영어습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이 그가 전공한 신경학적 지식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후반부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외국어 습득의 정보와 더불어 많은 독자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As I was flipping through the pages of this book, I was transported to my physiological psychology course in college where I eagerly learned about synapse and dendrites, terms I still remember to this day. He outlines so clearly how our brain works when it comes to language

learning. Fascinating stuff. And this is particularly of interest to me as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for the past 20 years in Korea.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is a huge business here because one's English proficiency has become so monumental in determining one's academic and secular success. As a result, myriads of English textbooks end up sitting idly on personal bookshelves and a great amount of money is spent on English academies. But sadly, all these resources fail to bring the desired results. Questions such as "How do I improve my English?" or "How can I be more fluent in English?" continue to endure in the minds of many.

이 책을 한 장씩 넘겨 가면서 저는 대학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과목 중 하나인 생리 심리학을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매우 매료된 저는 지금도 신경연접, 축삭, 수상돌기 등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고 배우는지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20년 동안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친 저에게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영어가 한국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영어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무수히 많으며, 서점에는 영어에 관한 서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적어도 한 권 이상의 영어 관련 서적들이 개개인의 책장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영어를 위해 학원 등록 및 교재 구입 등에 수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

깝게도 이러한 많은 영어교육에 대한 투자 및 자원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지출된 시간과 비용을 무색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영어 선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들이 저의 맘속에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This is where Dr. Ryu comes in and answers those nagging questions. He offers a wide array of practical and useful tips and specific methods on how to improve one's English and speak as naturally as possible. He is the living proof that English can be learned successfully alone in Korea, but only through strong determination and perseverance. As I read about his lifelong passion for English, I was blown away by his tenacity and the amount of time he has invested in his personal studies. Truly astonishing! It's no wonder he speaks so fluently. So by being proactive about your English studies, like Dr. Ryu, and constantly exposing yourself to English in everyday life, anything is possible. I have no doubt in my mind that you will be inspired to do the same.

그런 가운데 류선생님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괴롭힌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바로 이 책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영어를 외국어로서 혼자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유용한 팁, 그리고 특정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그는 서른이 넘는 나이에 한국에서 독학으로 영어를 습득한 살아 있는 증거입

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그의 인내와 강한 결단력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영어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끊임없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대화에서 그의 영어에 대한 유창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그의 유창함이 그리 놀랄만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This is not only the story of a man who has struggled to find his own place in the world but someone who has gone above and beyond what was required of him. Aside from all the discussion of medical facts and language learning tips, Dr. Ryu shows you the importance of rewiring your brains to 'health from unhealth' and leaves you on a high note giving you much hope for in this sometimes, dismal world. Life's hurdles can be overcome and you can will yourself (especially your brain) to think positively and make things come to fruition, including your desire to better your English. This is a must read for anyone who wants to get serious about English.

이 책은 한 인간이 세상에서 현재의 위치에 있기까지의 삶에 대한 몸부림뿐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벗어나 더 큰 일을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언어 습득 및 배움에 대한 의학적 내용 외에 그가 신경과 의사로서 풀어내는 '비(非)건강(unhealthy)'에서 '건강'한 뇌로 만드는 뇌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때론 불공평과 불균형을 경험하게 되는 암울한 시대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전해 줍니다. 이 책은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을, 특히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바꿀 때, 영어의 향상뿐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자신의 영어 향상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Kristen Cho

현) EBSlang, Stalking English

현) EBS, Power English Main Host

서문

서점에 놓인 여러 가지 교육 서적 중 영어에 대한 서적이 아마 가장 많고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영어 사교육비는 5조 5천억 원으로 사교육비 중 가장 큰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어 특화 도시는 집값이 비쌀 뿐 아니라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가르쳐 주고 싶고, 가장 배우고 싶어 하며, 또한 가장 배우기 어려워하는 능력이 바로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신경과 의사로 남들이 부러워하곤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조기 유학이나 금전이 많이 드는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부모님과 떨어져 친척집을 전전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과출부를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뇌는 '사교육'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통틀어 공부 한번 잘해 본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나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졸업 당시 내신 성적 6등급(12등급제)으로 1993년도에 5번의 대학 실패를 경험 후 6번째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나는 소위 말하는 지적 능력(IQ : intelligence

Quotient) 역시 좋지 않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109점이라는 IQ 점수를 받은 나는 나보다 아이큐가 낮은 친구의 점수를 보고 3자리가 안 된다며 놀린 적이 있었다. 그때 이를 본 선생님(기술과목을 가르치신 이^이동 선생님이로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한다)이 학급 친구 전체 앞에서 큰소리로 “재는 아이큐 100도 겨우 넘는데, 그것 가지고 자신보다 조금 낮은 친구 놀린다”며 학급 친구들 전체 앞에서 면박을 준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여하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그리 넉넉한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렇다고 머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내가 서른이 넘은 어느 날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하는 영어 방송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학창 시절 어학연수를 가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원어민 수업 하는 학원, 심지어는 원어민 없이 그냥 하는 사설 영어 학원에 등록해보거나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도 말이다.

많은 언어학자와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영어 공부는 어려서 하지 않으면, 원어민처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려서 어학연수를 가야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앞에 언급한 기존의 언어교육에 대한 사고방식이 틀렸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뇌의 리모델링(Remodeling)을 통해서임이 밝혀졌으며, 이는 우리가 어떻게 뇌를 다루고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실제로 뇌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 과학적 증거로 확인이 되었다.

이 책은 바로 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쓴 책이다. 특히 영어를 습득할 때 어떻게 영어청취력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원어민처럼 영어를 발음할 수 있게 되는지,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우리 뇌를 리모델링하여 실제로 뇌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하였다.

빈익빈 부익부가 절실히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소득 수준 간 사교육비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고 한다. 물질이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게 되는 기회가 많다. 승마, 골프, 스키, 발레, 바이올린, 피아노 등을 경험하고 배우는가 하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기회를 얻는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덕에 외국으로 보내져 조기 유학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위 언어를 2개 이상 구사하는 사회인으로 자라

게 됨을 쉽지 않게 본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에게 조기 유학이 아니라 흔한 사교육도 받기 어렵고, 공교육에서도 쉽게 뒤처진다. 또한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의 불평등, 사회의 불평등을 보고 경험하게 될 때, 쉽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본다.

나의 영어 공부와 나의 삶에 대한 글이 많은 사교육과 고비용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교육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 가는 것이다.”

Contents



	추천사 - Kristen Cho	04			
	서론	10			
Chapter I 영어와의 만남	01. 공중보건기사	20	Chapter IV 문법 그리고 독해	04. 원어민 발음이란	71
	02. 벼룩 이야기	26		- Keep In Mind	78
	03. 영어 공부의 이유와 목적	32			
	- Keep In Mind	37			
Chapter II 원어민처럼 받아쓰기	01. 특별한 아침	40		01. 문법 공부	82
	02. 듣기 그리고 받아쓰기	43		02. 독해를 하는 우리의 뇌	86
	03. 극대화하기	48		03. 회화로 습득한 독해	92
	- Keep In Mind	53		04. 문법과 독해에 대한 오해	96
				05. 독해가 안 되는 이유	109
Chapter III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01. 발음 연습	56	Chapter V 영어학원에 안 가도 된다.	- Keep In Mind	114
	02. 영어의 리듬과 강세	60		01. 우리에게 전국공영방송 EBS가 있다.	118
	03. 자기성찰	65		02. EBS 영어 공부 극대화하기	121
				03. 한국에서 어학연수하기	130
				- Keep In Mind	135
			Chapter VI 영어 물렁증	00. 극복하기	138
				- Keep In Mind	144

Chapter VII 원어민과 대화하기	01. 어학연수 필요할까?	148
	02. 원어민과의 대화가 주는 착각 그리고 함정	154
	03. 착각과 함정에서 탈출하기	159
	04. 원어민과의 대화 극대화하기	164
	- Keep In Mind	171

Chapter VIII 실수는 최고의 가르침	01. 실수 하나	174
	02. 실수 둘	178
	03. 실수 셋	181
	04. 실수가 주는 선물	184
	- Keep In Mind	187

Chapter IX 시험	01. 시험의 감격	190
	02. 시험은 배움	194
	- Keep In Mind	197

Chapter X 두통과 영어	01. 두통의 종류	200
	02. 두통의 치료	205
	- Keep In Mind	209

Chapter XI 통역사의 영어 공부	01. 이중언어자들(bilingual people)	212
	02. 통역사의 뇌 회로	215
	03. 통역사의 영어 공부법 따라 하기	223
	- Keep In Mind	226

Chapter XII 모국어 습득과 영어습득	01. 통문장 외우기	230
	02. 언어 습득의 4단계(골격이론)	235
	- Keep In Mind	241

Chapter XIII 영어뇌 만들기	01. 뇌의 리모델링 이론	244
	02. 아이들의 뇌	254
	03. 성인들의 뇌	260
	04. 뇌의 리모델링 방법	264
	05. 비건강에서 건강으로	269
	- Keep In Mind	275

맺음말	276
-----	-----



Chapter I
영어와의
만남



01 공중보건 의사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Proverb 16:9)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잠언 16:9)

_ by Solomon (King of Israel)

전문의 시험을 보았다. 그리고 합격통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무청에서 영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남자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군대를 간다.

내가 알기로는 의사가 군대에 가는 것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과대학을 다니던 중 유급(drop out)을 당하여 본의 아니게 입대를 해야 하거나 본인이 군대에 자원하여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일반 사병과 똑같은 군대 과정을 마치는 방법이다. 그중 특수부대나 해병대에 자원하는 선배를 보기도 했었다. 두 번째로는 의사 면허나 전문의 면허를 따고 난

뒤 군의관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공중보건 의사로 의료 취약 지역에 파견되어 진료를 보는 것, 나머지 하나는 병무청에 소속되어 징병 검사를 전담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방법이다.

운동선수들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군 복무기간 동안 전문분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원한다. 그래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동시에 실력도 키우며 자신의 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 역시 대부분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 의사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기를 원하고 특히 공중보건 의사를 더욱 선호하다. 그 이유는 군의관으로 가게 되면 의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는 하지만, 일반 사병과 같이 강도 높은 훈련도 받아야 하고, 전문의로서 그동안 배우고 공부한 자신의 전문분야와는 상관없이 외상이나 일차 진료 의사로서의 역할만 하게 된다. 이는 경력의 단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 배운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력의 정체 혹은 후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간 나는 신경과 의사이기에 신경계 질환이 드문 군대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수급의 원칙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이자 군대생활을 대신하게 되었다. 참고로 군의관 및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그런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생겼다. '군무지가 어디냐'이다. 많은 공중보

건의사(이하 공보의)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공보의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전라남도도 발령받게 되었다. 전라남도를 공보의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바로 섬으로 발령되기 때문이다. 특히 배를 타고 3~4시간 나가야 하는 섬이 많기에 많은 공보의들이 가기 싫어한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형평성을 좀 더 주려고 나라에서는 특혜 비슷한 조건이 있었다. 이는 즉 1년간 외딴섬에서 근무하면, 다음에는 수도권이나 원하는 지역으로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나는 의대를 5번이나 낙방하여 남들보다 늦은 나이로 대학에 들어온 탓에 다른 공보의들보다 나이가 많아 우선권이 주어졌다. '섬으로 간 뒤 경기도로 갈까? 아니면 그냥 전라남도에서 있을까?'라는 고민 후 그냥 전라남도 육지에 있기로 결정하고 그중에서도 영광군을 선택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영광! 그리고 나의 첫 근무지 <공립 영광 노인전문 요양병원> 이곳에서 나는 평생에 있지 못할 인연들, 사람들, 추억들 그리고 영어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전라남도 영광은 나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쉽 없이 달려온 의대 생활, 학점은 언제나 저공비행이었다. 의과대학은 거의 대부분 입학 전에 고등학교에서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모인다. 그러다 보니 의대에서 시험을 볼 때 석차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간혹 좌절에 빠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

* 참고로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 의대생이나 군대를 가야 하는 의사가 있다면, 필자는 적극적으로 도서벽지나 외진 곳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인생에서의 전환점이 되거나, 삶의 건문을 넓히는 기회가 바로 그곳에 있다. 이는 필자뿐 아니라, 공중보건의를 마친 수많은 당신의 의사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을 보게 된다. 하지만, 중간 이하의 성적은 나에게 그리 큰 충격은 아니었다.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 학급에서 중간 이상을 한 적이 별로 없기에, 기대했던 성적보다 낮게 나온 나의 평점은 나를 아주 조금만 놀라게 할 뿐 그리 커다란 충격을 주지는 못하였다. 단지 나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방학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의대에서는 어느 과목 하나라도 점수가 좋지 않으면, 바로 유급(drop out)을 시킨다. 즉,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게 되고, 같은 학년에 남아 본인보다 학년이 낮은 후배들과 같은 공부를 하게 되고, 기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바로 그 한 과목 때문에 전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나이가 들고 몇 번의 유급을 하게 되면, 군대를 가야 한다. 이 경우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기에 유급 이전에 '재시험'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바로 그 재 시험 때문에 나의 방학은 언제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 방학이 있긴 있었으나 2주 정도의 방학이었다.

의사들에게 공보의로서의 생활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휴가다운 휴가라고 한다. 6년의 의대 생활과 졸업 후 5년간의 인턴 및 전공의 수료 뒤에 찾아온 여유, 그게 바로 공보의 시절이다. 이 공보의 생활은 휴가다운 휴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휴가라고도 한다. 복무기간을 마치고 개원의가 되면 평일엔 밤늦게까지, 토요일엔 오후까지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 대학병원에 있다면 끊임없이 논문 발표, 교육,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공보의 생활에 의사들은 설렘과 기대를 갖게 되고, 공보의 생활을 떠나보낸 뒤에는 그 시절을 아쉬워하며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담과 어떻게 하면 그 시절을 알차게 보내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 나 또한 주변으로부터 공보의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과 경험담을 듣게 되었다. 그들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겨라.” “골프 연습 해서 머리 올리고, 실력 쌓고 나와라.” “연애 열심히 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라.”

신경과 의사는 환자의 생체리듬(Vital Sign)이 흔들리는 위중한 환자들 및 의식저하를 보이는 환자들을 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며, 그들을 통해 간접적인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들의 대부분은 “인생 참 짧고 금방이다.” “허무하다.”는 것이다. 이는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공보의 당시 32세였는데 내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서른이 조금 넘은 나이에 자식들을 많이 보게 되거나, 혹 일찍 장가가서 애를 많이 낳았다면, 며느리나 사위를 볼 수 있는 시기였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잠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갔다.

여하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3년간의 공보의 생활을 뭔가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물론 환자를 보고 의사로서 보람을 찾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길이 남을 수 있는 뭔가가 찾고 싶었다. 그러다 ‘그래 영어 공부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02 벼룩 이야기

Limits, like fear, is often an illusion.

두려움과 같은 한계는 종종 환상일 뿐이다.

_ by Michael Jordan (NBA player)

나에게는 뭔가 반항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기존의 사회 통념에 대한 반항 말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졸업 후 5번의 의대 낙방 끝에 6번째 원서를 접수해야 했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 운동, 싸움... 무엇 하나 특출한 것 없는 나는 내신 6등급이라는 딱지와 함께 의과대학 원서 접수를 하러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갔다. 학력고사 시절에는 대학원서 접수 시, 고등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재수의 경우) 혹은 부교감 선생님(재수 이상의 경우)의 사인을 받아 와야 했기 때문이다. 부교감 선생님을 만났다. 내신 6등급에 의대를 지원하여 5번이나 떨어진 나... 그런 내가 다시 의대를 가겠다고 원서 접수증을 내밀자 나를 한참 바라보신 뒤 “정신 차려라.”라고 하셨다.

집에서 과출부 일을 마치고 오신 어머니에게 나는 부교감 선생님께서 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딴 게 선생이냐”며 한참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진정되기를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고생과 노력과 너의 모든 과정을 다 안다. 하지만, 세상은 결과로 판단한다. 세상에 너의 그 과정을 알려주고 싶으면 결과로 말해야 한다. 그게 세상이다. 그리고 네가 그 선생님의 입장이었으면, 너는 어떠했겠는가? 고등학교 시절 특출한 것도 없고, 내신도 그렇고, 계속해서 대학에 낙방해서 원서만 쓰러 다니는데, 과연 네가 그 선생님이었으면, 너는 달랐을 것 같으나?”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 실패 후 혼자 집안 살림을 힘겹게 꾸리시는 가운데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저 어미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되지도 않는 아들 의사 시킨다며 저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참으셨다고 한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다. 그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잊지 못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내 뇌의 해마(hippocampus) 깊숙이 각인되었다. 그 뒤 나는 부교감선생님의 사인과 내신성적이 들어간 대입원서 접수증을 들고 의과대학 접수처로 가서, 접수증을 내밀었다. 얼마 후 직원의 “어머 6등급도 의대에 지원하시네요?”라는 말을 들었으나, 웃으면서 접수를 마칠 수 있었다.

학원이나 방송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조금씩 유학의 경험이 있거나,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했거나 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많은 언어학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롭게 언어를 습득하기 어렵고, 외국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살지 않으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의과대학 시절 학점의 저공비행으로 인한 재시험과 그로 인해 사라져 버린 나의 방학들, 가령 나에게 방학이 한 달 이상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어학연수를 하러 나간다는 것은 나의 가정형편을 생각해 볼 때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외국에서 살다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볼 때 뭔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겐 미드를 자막 없이 자유롭게 보고, 영어회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고, 그들의 농담을 알아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뭔가 불평등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면에서 다음과 같은 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인간이 만든 IQ도 임의적인 것이지 절대적일 수 없고, 내신 성적도 인간이 만든 임의적인 평가이고, 영어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말도 마찬가지로이다.” “누가 영어는 어려서 하지 않으면, 원어민처럼 듣고 이해하기 불가능하고, 누가 영어는 어려서 하지 않으면 혀가 굳어서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는가?”

어느샌가 나는 이러한 기존의 틀에 대한 반항과 기존의 언어교육에 대한 상식을 깨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속에서 꿈틀거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 정말 귀가 닫히고, 혀가 굳는가? 아이큐도 인간이 만든 것이고 내신도 만든 것인데, 혹시 영어에 대해서도 언어학자들이 만든 틀 속에 나를 가두어 놓는 것은 아닌지...’

이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

벼룩을 유리병 안에 넣고, 뚜껑을 덮어둔다. 벼룩은 유리병을 빠져나오려 계속 점프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리병의 뚜껑에 머리를 부딪친다. 그리고 점점 자신도 모르게 병뚜껑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높이를 조절해서 높이 점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리병 뚜껑을 열어놓게 된다. 뚜껑이 없어진 유리병에 들어 있는 벼룩은 자신의 능력이 유리병 밖을 넘어 훨씬 높게 뛸 수 있음에도 뚜껑이 없는 유리병 안에서만 점프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벼룩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정했기 때문이다.

If you put a bunch of fleas in a jar and put a lid on it, the fleas will jump up. And then they would collide with the jar lid, constantly hitting their bodies to the ceiling which is the jar lid. Keeping doing that for a while, they kind of realize the height of the jar and then they figure out how to avoid hitting the lid which in turn leads them to adjust their jumping power. And then they get themselves trained not to jump so high and no higher. The fleas actually become slaves to this circumstance or their experiences in the jar and then when the lid is removed, they couldn't jump out at any time although they do have the power to jump out of the jar with no lid. Because they

set their limitations thru experience, they end up with setting a bar that they think they couldn't jump over. But they really do have enough power to jump beyond that bar that they set though.

- Translated by Agapeolive in both English and Korean.



03 영어 공부의 목적과 이유

Just learning to think in another language allows you to see your own culture in better viewpoint.

다른 언어를 생각하는 것을 배우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문화를 더 좋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_ by Gates McFadden (American Actress)

영어 공부를 하기로 맘을 먹었다. 그럼 왜? 영어 공부를 하려 하였느냐? 라고 필자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영어에 대한 개념, 즉 외국에 살다가 와야 원어민처럼 발음하고 원어민처럼 들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둘째는 영화나 미드와 같이 영어로 된 영상매체를 원어 그대로 이해하고 듣고 즐기고 싶었다. 대학시절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액션 영화 <다이하드>를 보러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 간 적이 있었다. 당시 미군들이 내 옆자리에 앉아 같이 영화를 보게 되었다. 한참을 재미있게 보는데, 어

느 순간 재미있지도 않은 영화 속 대화를 듣고 갑자기 그들이 깔깔깔 웃었다.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유머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나도 그들이 웃는 그 재미를 함께 하고 싶었다. 추측하건대 당시 그 미군들이 웃었던 <다이하드> 속 대화는 아마 소위 '아재 개그'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해가 울고 있다를 세 글자로 하면?" "해운대" 같은 것 말이다. 여하간 나중에 영어를 습득하게 되고 점점 영어 속 유머를 조금씩 알게 된 뒤 발견한 것이 하나 있다. 이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의 유머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아재 개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즉 발음은 유사하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나 문장을 통해 웃음을 찾는 것이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잠시 영어를 공부해야겠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비슷한 발음이나 혹은 같은 단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면서, 웃음을 짓게 하는 유머가 있는데 이를 play on words라고 한다.

play on words

a humorous use of a word with more than one meaning or that sounds like another word

출처: Cambridge Dictionary

이는 마치 우리나라 문법 가운데 '중의법'과 비슷하다. Play on words와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은 단어가 아니어도 발음이 비슷하며 그러한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중의적 뜻을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통해 유머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어식 유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식으로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영희: 재 정말 산만하지 않니?
 철수: 응 맞아. 덩치가 얼마나 큰지 정말 산만해. 산만하지.
 영희: 네가 더 산만하다.

이 경우 '산(mountain)만하다' 혹은 '산만(easily distracted)하다'라는 뜻이 사용될 수도 있다. 영어권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것에서 유머와 웃음을 찾는다.

A : Why a skeleton cannot jaywalk?
 왜 해골 뼈대는 무단횡단을 하지 못할까요?
 B : Because it has no guts.
 배짱이 없기 때문이다; 창자가 없다는 뜻도 포함

» have no guts
1) 직설적 의미 : 내용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속이 비어 있다.
2) 은유적 의미 : 근성이 없다. 배짱이 없다.
» gut
1) 소화관, 내장
2) 복수로 사용 시 배짱

위의 유머는 이전에 '모닝스페셜'에서 스티브 헤덜리라는 진행자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이후 나는 이 유머를 원어민들에게 사용해 봤는데, 매우 반응이 좋아 처음 만나는 원어민 친구들, 특히 북미 친구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유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중학교부터 20여 년 넘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그들의 말을 이해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아까움이었다.

영어 공부를 하려 마음먹은 지 얼마 안 된 2004년 어느 날 나는 당시 매우 유명한 시트콤 <프렌즈>를 보게 되었다. 영어 자막도 함께 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의 단어였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영어 자막이 있음에도 그들의 빠른 이야기 전개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이해도 힘들었다.

의과대학 6년의 공부, 전문의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영어로 된 원문 서적을 읽었음에도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는커녕, 이해가 되지도 않았다. 완전히 '멘붕'이었다.

독해는 어떠했는가? yahoo.us를 들어가 영어뉴스 및 시사 등을 읽어 보았다. 거의 이해가 안 되었다.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그러려니 하고 뉴스 말고 칼럼이나 소셜, 또는 어떤 이슈에 대한 Q and A 코너를 클릭하여 그들이 주고받는 글들을 보게 되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0년 동안 공부하고 배워온 노력과 시간이 역올하게 느껴졌다. 이런 현실은 나를 꿈틀대지 않을 수 없는 지렁이로 만들었다.

* 멘탈 붕괴, total nervous breakdown or total meltdown

KEEP IN MIND



- 1) 시간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대의 습관적인 스마트폰으로 때우는 시간은 그 누군가에겐 살아 숨쉬길 원하는 일분일초가 된다.
- 2) 때론 우리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잠재력에 대한 생각이 혹시 병 속에 들어간 벼룩을 가두는 뚜껑은 아닌지 말이다.
- 3) 영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자신을 평가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Chapter II
**영어 듣기
그리고 받아쓰기**



01 특별한 아침

Sow a thought, and you reap an act;

Sow an act, and you reap a habit;

Sow a habit, and you reap a character;

Sow a character, and you reap a destiny.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_ by Samuel Smiles (Scottish Author)

나의 첫 공보의 발령지, 그리고 나의 제2의 고향이 된 전라남도 영광군 '공립 영광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초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다. 당시 80병상으로 개원한 이 병원은 지자체의 도움으로 설립된 병원이었다.

출생률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 그로 인한 급격한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민간 기관의 자원으로 전국에 노인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병원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위기와 시련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직원 분들의 도움과 모(母) 재단인 호연 재단 영광 종합병원의 지원으로 비록 경험이 없고, 서른둘이란 나이 어린 초대 원장이었음에도 전국 요양병원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되었다.

노인병원의 일과는 대학병원 전공의 시절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주어졌다. 환자는 주로 치매를 포함한 만성 노인성 질환의 환자분들이다. 아침 출근 후 회진을 돌고 나면, 그 뒤는 진료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나의 본격적인 영어 공부는 바로 그 진료실에서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전국 공영방송 EBS와 함께였다.

시골에 원어민 영어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시 학원 스타일의 영어 학원은 나의 욕구 충족 및 영어 공부의 목적과 맞지 않았다. 고민하던 중 전공의 때 출근 시 라디오로 듣던 교육방송이 생각났다. 그 중 첫 번째가 이보영 선생님이 진행하던 EBS 장수 프로그램 '모닝스페셜'이었다. 내가 이를 선택한 이유는 영어교재를 따로 살 필요가 없고, 그날의 내용을 바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영어와 함께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을 했다. 전라남도 영광군 단주리의 시원한 깨끗한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관사 바로 옆에 있는 병원으로 간다. 맛깔난 남도 식단의 따뜻한 아침을 먹고, 고요한 진료실로 가서 컴퓨

터를 켜고 인터넷을 통해 모닝스페셜을 듣는다. 그리고 그날그날의 새로운 뉴스와 함께 표현을 배운다.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의 시작이다. 그 당시 아침의 평화로움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추억이다.

그런데 방송을 들으면서 나에게 약간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전 8시 정각이면 모닝스페셜의 opening music과 진행자의 opening ment가 나온다. 그런데 본격적인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진행자들끼리 하는 영어 대화에 대해서는 대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들리지 않아, 소외된 느낌이 들었다. '나만 그럴까?' 하는 생각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기웃거리던 중 어느 애청자가 적어놓은 opening ment를 발견하게 되었다. 오래된 책 속에서 수년 전 꽂아놓은 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나는 그 멘트 dictation note를 보고, 그날의 오프닝 멘트를 듣고 또 듣고 들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dictation note가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이었다. 프로그램 시작 시 나오는 매일매일 새로운 opening ment, 그들의 수다 그리고 영어 표현에 대한 설명 중 진행자들끼리 주고받는 간헐적 농담들, 이런 것들이 점점 나에게 더더욱 영어를 하고자 하는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그래 나도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쓰기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모닝스페셜 홈페이지]

02 듣기 그리고 받아쓰기

One of the most sincere forms of respect is actually listening to what other has to say.

존중의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타인이 하는 말에 대한 경청이다.

_ by Bryant H. McGill (American Author)

나의 받아쓰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우선 컴퓨터에 녹음기를 설치한다.
- 2) 녹음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음한다.
- 3) 워드프로세서와 미디어 재생기를 같이 실행시킨다.
- 4) 미디어 재생기를 통해 녹음한 내용을 듣고, 문서로 기록한다.

이 방법은 지금도 매일 최소 30분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필자가 라디오를 듣거나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사용하

는 방법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미디어 재생기의 단축키를 이용하면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중 내가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Space bar'와 '화살표'이다. 우선 Space bar는 '일시정지'와 '재생'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화살표는 '뒤로 10초 가기(backward)', '앞으로 10초 가기(forward)'가 된다. 이러한 단축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받아쓰기를 한다. 미디어 프로그램마다 단축키가 다르며, 설정이 다를 수 있다. 자신의 취향에 맞도록 단축키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우선 영어 문장이 나오면, 즉시 space bar를 누른 뒤 재생을 중지시킨다. 그리고 방금 들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낸다.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고 그 내용을 받아 적는다. 이것이 바로 '에코잉(echoing)'이라는 방법이다.

에코잉이란 특정 외국어의 듣기와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한 문장 또는 한 단락을 모두 들은 후에 곧바로 들은 문장이나 단락을 다시 말하는 것으로 마치 메아리(echo)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치매 환자들을 진료할 때 그들의 언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잘 안 들리면 화살표로 '뒤로 10초 가기'를 한 뒤 다시 들어본다. 만일 그 내용이 잘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된다면, 들릴 때까지 계속 들어본다. 수십 번 혹은 100번 가까이 들으면 슬슬 짜증이 난다. 그럼 그냥 내가 들리는 대로 영어로 한번 적어 본다.

예를 들어 '스크럼셔스'라는 말이 들리면, 그냥 들리는 대로 알파벳

을 조합하여 skrumcious라고 적는다. 그러면 이 단어는 사전에 없는 단어이기에 한글 워드나 혹은 기타 문서 작업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진다. 그때 마우스 우측버튼을 클릭하거나 혹은 그 단어를 인터넷 포털로 가서 입력시키면, 그에 가까운 정확한 단어인 'scrumptious'를 보여준다. 그러면 그 단어는 절대 까먹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수십 번 그 단어를 찾으려 들어 봤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문맥을 읽고 고민해보고 찾아서 알게 되면 나의 내측두엽(mesial temporal lobe)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해마 안의 신경세포들을 서로 연결하는 충분한 노력과 시간이 들인 결과로 머리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단어의 사용법을 자동으로 알게 되어 이 단어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동사인지 바로 알게 된다.

사실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동사인지 모른다. 단지 이를 통해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깨닫게 된다. 이는 마치 악보를 못 보는 연주가가 음악을 듣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 참고로 나는 나의 영어 문법은 거의 학점 F라고 평가한다.

아니, 정정하겠다. 나는 영어 문법 공부에 대해서는 반대자이다. 지금도 문법은 모르며, 많은 학원에서 문법 이야기를 하면, 과히 기분이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언어라는 것은 대화하고자 하는 상대와 소통하는 도구이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목적이 바로 영어 공부의 정확하고 바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문법 공부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볼 것, 경험할 것, 배울 것 등이 너무 많다. 그에

비해 우리 인생은 짧다.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하루라는 시간도 24시간이며, 그 시간에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지식도 제한이 있다. 그러기에 문법을 공부할 시간에 영어 듣기와 사용하기에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어쩔 수 없이 시험이나 점수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문법을 공부해야 함은 정말 안타깝고 비생산적인 현실이다. 나 또한 대학입시를 위해 공부를 해야 했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영어 교육에 쏟아 버린 시간과 금액은 영어 실력의 현실을 볼 때 너무나 큰 낭비였음을 깨달았다. 하루속히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문법과 그와 관련된 쓸데없는 헛다리짚기 식의 교육이 아닌 실용적이고 언어의 목적에 맞는 교육이 되길 바라고 소망한다. 여하간 처음으로 opening ment를 받아 적기로 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은 없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배운 중학교 2학년 영어 수준의 단어면 원어민들과 거의 모든 대화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프닝 멘트를 못 받아쓴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도전이 시작되었다.

아침 8시에 방송을 녹음하고, 회진을 돌고 나면 오전 10시 정도가 된다. 진료실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녹음한 오프닝 멘트를 받아 적었다. 아니, 사실 계속 들었다. 안 들려서 듣고, 듣고, 또 들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들려서, 또 들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듣고 또 들었다. 오후 3시쯤이 되어서야 다 받아 적었다. 약 4시간 정도가 걸렸다. 겨우 2분 남짓의 오프닝 멘트 대화를 말이다. 그렇게 난

생처음 받아 적은 내용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랐지만, 나 자신이 뿌듯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오프닝 멘트 받아쓰기'라고 글을 올렸다.

2004년 봄 어느 날 나의 받아쓰기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많은 분의 호응과 댓글로 내가 다르게 들었던 것들을 알게 되었고, 표현에 대해서도 더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받아쓰기는 그 뒤 나의 받아쓰기는 3년간 지속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들리는 것이 많아지고, 이해력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뉴스 section'까지 받아 적게 되었다. 그리고 진행자들의 잡담까지...

3년간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이 모닝스페셜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이전 홈페이지 및 데이터가 삭제되어 더 이상 나의 받아쓰기를 볼 수 없음을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여하간 이 자리를 빌려 이전의 선생님들 및 원어민 진행자들(아이작, 조나단, 리처드 킴, 메튜, 스티브 헤달리, 브라이언리 등)에게 감사를 전한다.

03 극대화하기

People who make the choice to study, work hard or do whatever they endeavor is to give it the max on themselves to reach to the top level. And you have the people who get envy and jealous, yet are not willing to put that work in, and they want to get the same praise.

공부든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들과 같은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_ by Evander Holyfield (American professional boxer)

25분의 뉴스 섹션을 받아 적는데 걸리던 시간은 처음 5~6시간에서 점점 줄어들었다. 그 뒤 녹음해 놓은 뉴스 섹션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시켜 들었다. 그리고 내가 받아 적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다. 신기한 것은 처음에 받아 적을 때에는 안 들려서 한참을 반복해서 듣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들어 볼 때는 신기하게도 그 부분이 더 잘 들리고 내가 틀린 부

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맥상 뜻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다. 마치 감명 깊게 보았던 어떤 영화를 다시 보았을 때, 새로운 감동과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다.

받아쓰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이는 모국어이건, 외국어이건, 청취할 때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단어를 뇌의 기억장소에 각인시킨다. 받아쓰기를 하게 되면 원어민 발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잘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된다. 이렇게 한번 받아쓰기가 끝나면, 그 내용을 다시 들을 때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 하지만 2004년 당시 아무리 5~6시간의 받아 적기의 노력과 과정을 거쳐도 나의 뇌에서 영어를 이해하고 원어민들의 대화 속도 및 이해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이유는 나의 뇌 이해도 프로세스의 속도가 따라가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엄마의 뱃속에서 뇌 발달이 시작되고, 그 뒤 우리의 뇌세포는 성장과 동시에 연결한 주위 뇌세포들끼리 신경 연결을 만들어 신경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뇌의 기능 및 역할이 마치 컴퓨터의 그것과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는 점이다.

엄마의 태중에서 시작된 신경계의 형성 및 뇌 발달,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뇌 실질(뇌 자체)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비슷하고, 학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메모리(RAM)와 비슷하다. 측두엽(Temporal Lobe) 안에 있는 해마(Hippocampus)가 그러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저장된 내용을 순간순간 불러들여 활용하고 이해하는 속도는

CPU와 비슷하다. 이는 우리 뇌의 전두엽(Frontal Lobe)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뇌가 컴퓨터와 다른 점은 컴퓨터는 기능의 확장과 향상을 위해 새로운 부품을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그에 반해 우리 뇌의 메모리와 CPU는 교체하지 않아도 집중해서 잘 사용하면 점점 더 그 기능이 확장되고 향상된다. 이러한 우리 뇌의 메모리와 CPU를 확장시키고 향상하는 방법은 바로 '반복 학습(repetition)'이다. 이 반복 학습을 통해 우리 뇌는 뇌 신경 간 새로운 연결(synapse)을 형성하여 새로운 신경회로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새롭게 형성된 신경회로를 반복 사용하면, 신경전달의 속도가 빨라져 우리 뇌의 정보처리 속도도 향상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영어에 대한 CPU를 향상하고 메모리를 넓히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 1) 매일매일 25분 남짓의 방송을 듣고 녹음 후 이를 MP3에 저장한다.
- 2) 받아쓰기를 통해 얻은 원고를 듣고 그날의 방송 내용을 듣는다.

받아쓰기를 하지 않고 들으면, 전혀 집중이 안될 뿐만 아니라, 진행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받아쓰기 과정을 통해 우리 뇌에 그 내용이 저장되고 이해력이 생기게 되므로 반드시 받아쓰기 후에 녹음한 내용을 듣는다.

- 3) 진료시간 외에는 계속 듣는다.

출퇴근 시에나 화장실을 갈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어디를 가든지 그날 방송 녹음한 것을 계속 듣는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MP3에 연결된 스피커로 전날 녹음하고 받아 적은 내용을 계속 듣고, 샤워할 때도 듣는다.

- 4) 다른 사람들과 한국어말로 대화를 최대한 줄이고, 나만의 영어 세계 속에 나를 던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면서 들어야 원어민들의 대화가 들리고 이해가 된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그 집중력에 대한 요구도는 줄어들고 나중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들린다. 마치 카페에 앉아 있으면 듣고 싶지 않아도 옆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듯이 말이다. 이는 반복적인 집중과 청취로 점점 영어의 정보가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고 이를 통해 영어에 대한 신경회로가 형성되면서 나중에는 조금만 집중하여도 그들의 대화가 들리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녹음의 팁을 드리고 싶다. 모닝스페셜은 프로그램 특성상 중간중간 한국어말로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까지 녹음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 한국어말까지 뇌에 기억이 된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자가 한국어말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면 녹음을 일시 중지를 하고, 영어로 다시 진행을 하면, 다시 녹음기를 실행하

였다. 그렇게 하면 녹음은 오직 영어만 나왔다. 최근에는 자르기, 붙여넣기 등이 있어 편집이 쉽다. 하지만 한번 녹음하고 나면 다시 편집하기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한 번에 집중해서 듣고, 편집하면서 녹음하기를 권장한다.



2004년 32살의 나이에 독학으로 처음 시작한 영어 공부 그리고 3년간의 '모닝스페셜' 받아 적기와 함께 공개방송 등을 열심히 따라다닌 결과 2012년 '모닝스페셜'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 글을 통해 짧게나마 이현석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KEEP IN MIND



1) 영어청취 시 전심을 다해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그냥 귀에 영어만 들어놓는다고 영어가 들리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한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아무리 들어도 내 것이 안 된다.

2) 많은 광고(쉽게 배운다는 영어 광고 포함)에 현혹되지 마라. 모두 다 catch가 있다.

catch : 속셈

A : Just Sign in! You can get free English lesson thru this website.

여기 등록해요. 그럼 이 웹사이트 통해서 공짜로 영어 수업 들을 수 있어요.

B : What's the catch?

속셈이 뭐예요?

또는 혼잣말로 혹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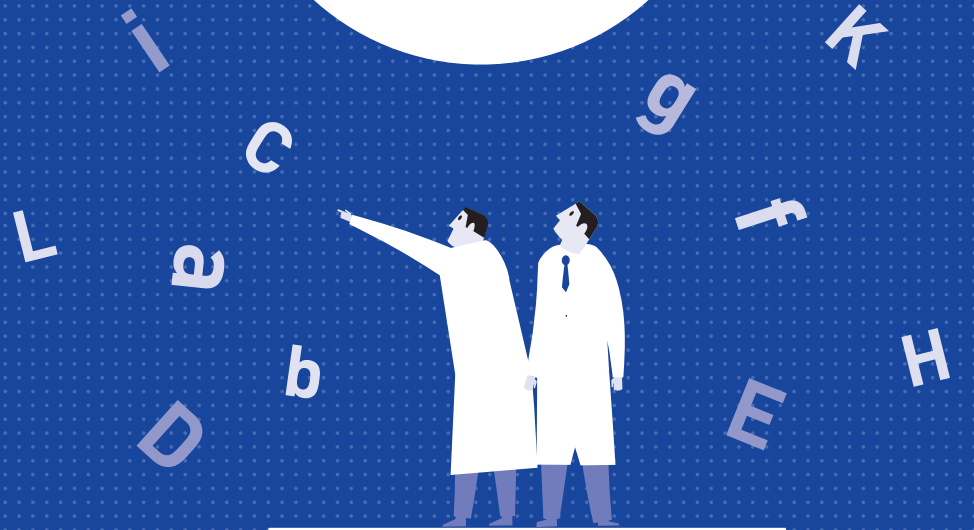
B : There must be a catch!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3)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화하라.

4) 한 우물을 파라. 반복 학습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듣고 적어라.

Chapter III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01 발음연습

Learning another language is not only learning different words for the same things, but learning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ings.

또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또 다른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물을 놓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_ by Flora Lewis (American Journalist)

간혹 원어민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필자가 외국에서 어학연수나 어려서 외국에 살다 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 그들 대부분은 이 사실에 매우 놀라고,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임을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고자 했던 지난 노력과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남은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다.

Th(θ & ð) 발음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하고자 혀를 몇 번이고 깨물었다. 그로 인해 헛바늘이 자주 돋았었으며, 그리고 헛바다

근육 특히 혀의 뿌리 부분에 있는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험은 잊을 수 없는 나의 뿌듯한 추억이 되었다. 참고로 영어 발성은 목에서 나오는 발음이다. 나는 언어학적 발성은 모르나,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발음은 그렇다.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하면, 목에서 걸걸거리는 발음이 나오게 되고 목소리와 톤이 바뀔을 느낀다.

전에 어떤 목소리 좋은 성우가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성우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좋지 않아, 자꾸 가꾸고 연습하고 해서 성우가 되었다고 한다. 발음도 발성도 연습하면 발전하고 변해갈 수 있다.

내가 활용한 발음 공부는 다음과 같다. 이 역시 '모닝스페셜' 듣기와 받아쓰기의 연속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의 원어민 따라 하기 발음 연습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내용을 받아쓰기한 뒤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듣는다.

듣기와 받아쓰기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영어만 녹음이 되도록 한다.

2) 내가 받아쓰기한 방송 원고를 보며,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다.

여기까지는 앞의 Chapter II의 2에서 설명한 받아쓰기 방법과 이를 듣고 이해하는 청취력 향상 방법으로 내용을 숙지한다. 이해가 안 되면, Chapter II로 다시 돌아가라. 1과 2에서 설명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어야, 추후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다.

3) 방송을 틀어 놓고, 혼자 원맨쇼를 하듯이 받아쓰기 원고를 보면서 소리 내어 따라 한다.

마치 자기가 방송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원고가 있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어렵다. 한국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잡담을 한국어로 따라 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받아쓰기를 한 대본이 있으니 이를 보고 계속 소리 내어 진행자와 같은 속도, 같은 리듬으로 큰소리로 따라 한다.

4) 녹음한 파일을 계속 들으며, 수없이 큰소리로 따라 하며, 이를 반복한다. 발음이 정확히 안 되더라도 원어민 진행자들의 스피드에 맞추어서 계속한다.

이는 마치 한 조각가가 커다란 나무를 깎고 깎아 작품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 원목에 형상을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조금씩, 조금씩 원목을 깎아 가면, 그 형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나중에는 섬세한 조각을 통

해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황설수설(gibberish)처럼 되나 나중에는 점점 정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어린아이의 발음이 자라면서 점점 명확해지는 것과 같다.

나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현 영광군공립요양병원)'에서 공보의 생활을 했었다. 주말에 당직이 아니면 어머니께서 계신 경기도 안양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주말을 보내거나, 지금의 아내가 있던 춘천으로 가곤 했다.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전라남도에서 경기도나 춘천을 갔다 다시 전라남도로 오는 장거리 운전이었다.

그 기나긴 운전시간 동안 내가 녹음한 모닝스페셜을 들으며, 소리 내어 진행자들을 따라 했다. 5시간 가까이 영어로 말을 하며 발음 연습과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다. 한참을 운전하고 나면, 침이 마르고 입에서 단맛이 느껴졌고 혀의 뒷부분과 목 부분이 빠근해졌다. 하지만 이 역시 3년 동안 하다 보니, 발음도 점점 교정되고, 목에서 힘도 빠지게 되었다.

지금도 혼자 운전할 때는 큰소리로 영어 방송을 틀어 놓고 따라 한다. 지금은 대본 없이 그냥 바로 나오는 방송을 듣고 큰소리로 따라 한다. 하지만, 영어는 나의 모국어가 아니고 진행자들끼리의 대화가 매우 빠를 때는 못 따라가거나 이해를 못 하고 지나갈 때도 있다. 그래도 계속 크게 소리 내어 따라 한다. 이 방법은 영어 발음에 있어서, 발음 교정과 특히 영어의 리듬과 호흡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02 영어의 리듬과 강세

Fire and swords are slow engines of destruction, compared to the tongue of a Gossip.

불, 칼의 파괴력은 소문과 험담의 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_ by Richard Steele (Irish writer, play writer and politician)

신경과 학회는 다른 학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젊은 의사들이 많고, 학회도 매우 개방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다 보니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학회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한다. 그 일환으로 학회의 공식 언어를 영어로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국제 연자를 모시고 학문의 장을 넓히자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내 의사들이 국제 연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종종 외국 연자들이 한국 의사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귀를 쫑긋하거나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간간히 국내 의사들이 영어로 발표를 할 때 혀에 힘을 너무 주어 조금은 듣기 거부할 정

도로 발음을 굴리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는 외국 연자들로 하여금 더더욱 한국인 발표자의 영어를 알아듣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면 한국식 발음의 문제인가? 아니면, 왜 외국인들이 한국 의사들의 발음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인가?

과거 원어민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중 의약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의약품은 오리지널(original) 약과 제네릭(generic) 약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오리지널 약은 어떠한 제약회사가 수조 원 혹은 수십조 원을 들여 10년 넘는 연구개발 뒤 그 효능과 안정성이 확실해지면, 그 회사에서 신약으로 발매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사실 그 개발된 의약품의 원가는 매우 저렴하다. 아주 저렴해서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윤이 많이 남는다. 하지만, 약제 원가가 싸다고싼 가격에 약을 팔게 되면, 그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개발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금액은 보상받을 길이 없고, 또 향후 새로운 약제의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처음 개발한 제약회사에 그 약제에 대해서 20년의 특허권이 주어진다. 즉 한 가지 약제를 개발 발매 후 20년 동안에는 다른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만들어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의사와 약사만 아는 정보는 약은 오리지널 약제가 좋다는 것이다.)

원어민 친구와 바로 이 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필자가 '제네릭'이라고 발음을 했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못 알아듣는 것이었다. 이때는 내

* generic 1. 일반적인 2. 포괄적인 3. 총칭적인

가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 지 약 1년여 정도 되던 때의 일이다. 사실 당시에 나는 이 제네릭(generic)이라는 단어를 원어민으로부터 들어 본 적도 없고, 사전에서 찾아본 적도 없었다. 단지 제약회사에서 하는 약품 설명회나 의사들 사이에서 ‘제네릭’ ‘제네릭’이라고 했을 뿐이다. 나의 제네릭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어민의 반응에 당황한 나는 그 원어민(미네소타 출신 Anne)에게 들리는 대로 ‘Generic’이라고 적어 주었다. (우연히 발음 그대로 적어주니 정확한 철자였다.) 이를 본 그 친구는 즉시 “Oh geNEric!(오 지네릭! - 여기서 ‘네’에 강세를 세계 준다)” 하며 나에게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었다. 아직도 그 친구의 geNEric 의 발음이 귓가에 들린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리듬과 강세이다.**

이러한 리듬은 비단 영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현재 부산에서 신경과 의사로 진료를 하고 있다. 진료 중 환자들에게 내가 서울 말로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해하는 것 같아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다. 물론 신경과라는 진료과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고, 귀가 어두운 분들이 많다. 하지만 내가 큰소리로 또박또박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옆에 있던 보호자들이 경상도 사투리로 다시 설명하면 그리 큰소리가 아님에도 그제야 알아듣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다. 바로 리듬과 강세가 언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부산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혹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게 되면, 부산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옆에서 들려온다. 그리고 종종 혹시 일본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곤 한다. 경상도 사투리의 강세와 리듬과 일본어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여 경상도 사람들이 일본말을 배울 때 매우 자연스럽게 잘 배운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만 3세가 조금 넘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간간히 영어로 말하면서 놀아 준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Lego 놀이를 하면서, 아들이 만든 비행기를 보고 나는 “Wow that’s an awesome space shuttle!”이라고 말했다. 그 뒤 아들은 무엇이든지 비행기같이 나는 것을 만들고 나서 “아빠 it’s 멋진 space shuttl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발음은 “아빠 이츠 멋진 뻘!~셔들”이라고 한다. ‘space shuttle’이 ‘뻘!~셔들’로 들린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강세와 리듬을 탄 발음이다. 영어를 공부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발음과 리듬으로 교육받다 보니 원어민 발음이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들도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외국인 아이들의 발음을 들을 때 더더욱 그러하다. 필자 역시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원어민 아이들의 발음을 더더욱 알아듣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미 밝혔듯이 이러한 영어 발음에 대한 교정과 리듬 및 강세의 습득은 ‘듣기와 받아쓰기’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즉, 수많은 반복 청취와 받아 적기를 통해 원어민들의 발음을 듣고, 영어의 리듬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받아 적은 원고를 보며, 녹음한 내용을 재생시키고 동시에 내 입으로 원어민들을 따라 반복적인 주절거림을 통해 영어의 리

듣을 우리의 뇌와 혀에 습득시킬 수 있다.

처음에는 혀가 안 돌아가고, 리듬이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계속된 매일의 노력이 수개월, 수년간 지속되면서 잘 돌아가지 않던 혀가 돌아가고, 원어민의 리듬을 익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그들도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03 자기성찰

The philosophy of the wisest man that ever existed, is mainly derived from the act of introspection.

지금까지 존재한 최고의 어떤 현자의 철학은 바로 자기성찰의 행동으로부터 나온다.

_ by William Godwin (English writer)

마태복음에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나무토막은 보지 못하느냐?(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 Mathew 7:3)”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는 지적하지 않고, 남의 잘못과 실수만 지적하는 인간의 우매함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최근에 들었던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떠오른다. 이 말을 처음 듣고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이라고 한다. 인간은 본성은 원래 자기중

심적이다. 그러기에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타인이 이를 지적하면 여러 가지 변명을 들어 합리화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아예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영화처럼 녹화해서 보여주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일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이는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정신건강 치료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연극치료이다.

필자가 뜬금없이 연극치료, 마태복음 그리고 내로남불을 이야기함은 이러한 인간의 주관적인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작업이 바로 영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발음에서 더욱 그러하다. 간혹 나처럼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한 사람 중 자신의 영어 발음이 남들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영어 발음을 녹음해서 들어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자신의 발음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발음을 깨닫게 된다.

발음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영어 발음을 녹음해서 들어보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자신의 발음이 부끄럽고, 듣기 거북하고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기에 자신의 영어 발음을 발전시키고자 자기 발음을 녹음하고 듣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그대는 진정 칭찬과 격려, 그리고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여 듣는 것은 자신의 발음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는 비단 영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연기자는 자신이 연기한 것을 녹화한 비디오를 보면서 자신의 연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고 자신의 연기력을 발전시킨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을 한 지 약 30년이 넘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교정을 받고 수영 선생님에게 고칠 점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고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특히 나의 수영 모습을 녹화한 영상을 보고 난 뒤 더더욱 그러하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본 것과 경험한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신경과 의사로 어르신들을 상대할 때 더더욱 그러함을 느낀다. 나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을 하곤 한다. 그래서 그런지, 나 자신이 나이가 들어 고집이 세지는 것을 누군가가 녹화해서 나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줄 그 무언가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는 과거 광주에 있는 모 병원에서 근무할 때 병원 홍보 및 의료정보 제공(화상의 응급처치, 수근관증후군 혹은 손목터널증후군) 등의 이유로 광주 영어 방송에서 녹음을 한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라디오 방송 데뷔 기회가 주어졌다. 그 당시 녹음파일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 당시 녹음을 들으면, 손발이 오그라들고, 중간에 몇 차례 실수하고 호흡이 잘못되는 것

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나의 발음을 한층 향상한 계기가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히 여긴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나에게 영어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김미영 부장님, 조 킴(현재 아리랑 방송 Wonders of Jeju 진행자), 지미 유, 트레비스(현재 광주 영어 방송 In the Mix 진행자 및 PD), JD, Jen Lee 등의 광주 영어 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사를 전한다.



현재 광주 영어 방송자 트레비스. In the Mix 진행, 부산에 필자를 보러왔을 때



조 킴과 함께, 현재 아리랑 방송 Wonders of Jeju 진행자



광주 영어 방송 City of Light 진행 중인 지미유



[나의 첫 방송 데뷔 녹음이 업로드된 블로그]

04 원어민 발음이란

Compassion, in which all ethics must take root, can only attain its full breadth and depth if it embraces all living creatures and does not limit itself to mankind.

모든 윤리를 근간으로 한 열정은 인류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생명체를 품을 때 최고의 깊이와 넓음을 이룬다.

_ by Albert Schweitzer (French-German physician)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참 어렵다. 혹시 독자 중에 발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해하고 낙담했다면,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 공부의 목적이다. 그 목적은 바로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데 있지 않고, 의사소통과 정보교류에 있다. 그러기에 나처럼 영어를 혀까지 깨물어가며 한 것이 아니라면, 영어 공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 다시 말씀하지만, 영어 본연의 목적은 의미의 전달과 정보의 교환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당신의 영어 발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다(원어민 영어 선생님 제외).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당신의 마음이다.

수년 전 EBS에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을 앉혀 놓고, 어떤 유명인사의 연설을 들려준다. 이 연설은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연설이자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된 명연설로 알려져 있다. 발음은 별로 좋지 않다. 연설이 끝나고 그 연설을 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대부분 잘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발음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연설을 들은 원어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주 멋진 연설이고, 어휘력 구성이나 영어 실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바로 그 연설은 유엔에서 연설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연설이었다.

과연 어떤 발음이 원어민 발음인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화를 위해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전국 각지에 원어민 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시골 구석구석에서 외국인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공보의로 근무하던 영광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어민 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범죄경력에 대한 조사, 학력 확인 후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고, 그 뒤 마지막 단계에서 건강검진(마약 및 에이즈 등의 전염성 질환)을 받는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 기간 우리나라에서 근무한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고 비자갱신을 해야 한다. 내가 공보의로 근무한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현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은 모(母)재단인 호연재단에서 지원하는 병원으로 이 재단은 영광종합병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원어민 교사 검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이런 정보를 입수하여 원어민 교사 진료상담을 자원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원어민 교사들과 친하게 되었으며, 시골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던 원어민 교사들을 서로 연결해주었으며, 따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주 1회 이상의 저녁 모임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나의 영어 울렁증 및 실수의 일화들을 만들었다. 영어 울렁증 말이 나와서 한마디 하자면, 필자도 이를 극복하는 데 수년이 걸렸었다. (이는 이 책의 7장 영어 울렁증 극복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때 그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원어민 교사로 온 친구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

랜드, 스코틀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어느 날은 예능프로 '비정상회담'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즉 한 주제에 대해 각각 자신의 나라를 대변하듯이 토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토론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영어 발음'이었다.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지만 발음이 약간씩 다르다. 그런 가운데, 은근히 서로를 헐뜯는 상황이 발생했다. 편 가르기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편 가르기는 '북미' 대 '반 북미'였다. 특히 미국이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호주에서 온 한 친구는 "America has 5 seasons. Summer, spring, fall, winter and winner."라며, 미국의 연음(윈터를 워너라고 발음)에 대해 비꼬는 말을 했다.

그 뒤 다른 반미 진영 스코틀랜드 출신 이 이를 거들었다. (잡자기, 필자에게 과거 'I am not an American'이라는 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가는 서양인을 본 게 생각났다)

"미국 사람들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영어 등을 잘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다 알아듣는다.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북미 영어만 이해하고, 다른 나라 영어는 잘 이해하지 못해 자막을 본다. 어찌 영어를 쓴다고 하면서 영어를 이해 못 해 자막을 보냐? 그리고 자신이 영어의 본고장인 줄 아는 데, 사실은 스코틀랜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15년 가까이 EBS Morning Special을 듣는 동안 수차례의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원어민을 포함 진행자들의 교체가 여러 번 있었다. 역사가 길고 EBS 간판 프로그램이어서 골수 애청자가 많다 보니 그로 인해 잡음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중 하나가 아프리카 출신자가 잠시 진

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게시판에는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미국식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다." "왜 우리가 이런 발음을 들어야 하나?" "좋은 발음 들으려면 CNN이나 BBC 보라." 등의 갑론을박이 오고 갔다. 필자는 이에 다음의 3가지를 말하고 싶다.

1) 다양한 영어를 들어야 청취력이 더 향상된다

북미 사람들은 스코틀랜드나 인도 등을 포함하는 기타 영어권 국가의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물론 스코틀랜드 영어와 인도 영어는 매우 발음이 독특하고 많은 영어권 원어민도 좀 알아듣기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가 경험하고 앞서 언급한 원어민 영어 선생들끼리의 '비공식 비정상회담' 모임에서의 결론은 북미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미국식 영어 외에 다른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필자의 사촌 동생 또한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영국 영어의 발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우리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대이고, 다양성을 통해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 간다. 그 가운데 영어에 있어서 미국식 발음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할리우드 영화를 봐도 프랑스식 영어, 러시아식 영어, 스페인식 영어, 아프리카식 영어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시대이다.

또한 해외여행을 하거나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더욱더 미국식 발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다양한 영어를 듣게 되면 각 나라의

발음에 대해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청취력도 향상된다. 그리고 청취력은 영어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잘 들리는 것이다. 단지 발음이 좋아야 잘 들리고 청취력이 향상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발음해 주는 원어민은 거의 드물다.

2)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라

인생은 짧다. 좋은 것만 봐도 다 못 보고 죽는 인생이다. 불평하고 짜증이 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는 너무 짧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배울 수 있다면 어떠한 기회든 감사하자. 음식을 골고루 먹어보고 자신이 진정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여러 음악을 듣고 자신이 진정 즐기고 행복해하는 음악을 찾을 수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이다. 골고루 다양한 발음을 들어야 그들의 말을 더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청취력이 향상된다. 자신의 색깔을 가진 자신만의 발음을 완성할 수 있다. 원어민의 발음이 자신의 원하는 발음이 아니라고 이를 배척하는 것은 배울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키는 것이자 배움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름길이다. 쓸데없는 갑론을박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3)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임을 잊지 말자

의사소통이 바로 영어 공부의 본질이다. 문법 공부에 시간낭비 하지 말자. 독해 공부는 회화 공부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뇌를 전공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로서 말하는데 독해와 회화 공부를 따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다음 Chapter V에서 독해와 문법 공부가 얼마나 신경학적

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쓸데없는지를 다룬다.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특히 여러 나라의 발음을 듣게 되면, 나라마다 독특한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독특한 발음 때문에 처음 본 원어민이 어디 출신인지 짐작하게 되는 능력도 길러지게 되는데 그 묘미를 여러분들도 알 수 있기를 소망한다.

KEEP IN MIND



1) 받아쓰기할 글을 보며 녹음한 원어민 대화를 틀어 놓고 그들의 말을 똑같이 따라 하라. 그리고 이를 계속 따라 하다 보면, 영어의 리듬과 강세를 습득하게 된다. 혀가 안 굴러진다고 걱정하지 마라. 리듬과 강세가 원어민 발음의 핵심이지 혀를 굴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2)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보라, 그리고 들어보라. 그러면 그대의 손발이 오그라들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원어민들은 당신의 발음에 전혀 관심 없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한다.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3) '북미에서 백인이 하는 영어 발음이 표준 원어민 발음이다.'라는 편협함에서 벗어나라. 북미 할리우드 영화나 미드만 봐도 다양한 발음이 나옴을 알 수 있다.

4) 영어습득의 기본자세는 '포용'이다. 이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5)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임을 잊지 말자.

Chapter IV

문법 그리고
독해



01 문법 공부

The language of friendship is not words but meanings.

우정의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의미이다.

_ by Henry David Thoreau (American Author)

중학교 시절 외국에서 살다가 온 학급 친구가 있었다. 그로 인해 그는 언제나 영어 시간에 반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본토 발음을 들려주고자 교과서 본문을 읽어주는 역할을 도맡아 했었다. 한날은 점심시간에 'R' 발음을 누가 더 원어민처럼 하는지 학급 친구들끼리 경쟁하듯 그에게 가서 확인하려 했던 기억도 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영어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 풀이 중 그 친구에게 가서 왜 답이 이렇게 되는지 물어봤다. 그때 그 친구는 단지 “그냥 그게 맞아. 문법은 모르겠고 그게 제일 자연스러워.”라고 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외국인 친구들을 (대부분 원어민 선생님들) 만나서 문법에 관해 이야기 하면, 그들은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영어수업시간에 한국인 영어

선생님이 문법 수업하는 것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문법 수업시간에 나오는 문장도 본인 보기에 어색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물어본다. “그렇게 문법에 대해 박식한 한국 영어교사들은 실제로 영어를 잘하느냐?”라고 말이다.

공보의 시절 영광군에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주 1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였다. (Chapter III의 4. 참조) 그때 간혹 그들이 함께 일하는 한국인 영어 선생님들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보다 영어회화를 유창하게 한 선생님들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필자는 절대 필자가 ‘그들보다 똑똑하거나 그들보다 영어에 경험이 많아서’라고 말할 수 없다.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럼 왜 그럴까? 필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우리 머리에 저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회화에 필요한 정보보다 문법에 대한 정보를 넣어서 회화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이다.

예를 들어 A와 B 두 명의 학생이 수영을 배우러 간다. 각각 전담 수영 선생님이 배정되고 수영을 배운다. A라는 학생은 선생님께서 수영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하여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 등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각 영법의 형태는 어찌고저찌고, 각 영법의 특징은 어찌고저찌고, 각 영법에서 팔의 각도는 어찌고저찌고, 각 영법을 익히기 위한 연습 드릴은 어찌고저찌고 등등에 대해 수년간 수업을 듣고 이를 암기한다. 그리고 그러기를 6년의 시간(중학교 고등학교)과 뇌의 저장 공간을 사용한다.

B학생은 선생님께서 간단한 발차기와 안전수칙을 배운 뒤 바로 물속으로 입수하여 물과 친해지는 수업을 받는다. 그리고 선생님과 물속에서 즐겁게 놀면서 수영을 즐긴다. 물이 익숙해지면, 그 뒤 본격적인 발차기와 함께 각 영법을 단계적으로 배우고, 자세를 교정도 받는다. 이 학생은 수영에서 팔의 각도가 몇 도인지, 발차기는 어떤 것이 트윈 킥인지, 스컬링(Sculling)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팔 동작이 트리플 스위치(Triple switch)인지 이름은 모르나 물속에 들어가면, 물 만난 고기처럼 수영을 한다.

A학생은 문법을 배운 학생이고, B학생은 회화를 배운 학생이다. 물론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A 학생과 같은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제한된 우리의 삶이라는 시간과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의 뇌 기억 저장소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문법으로 채우고 싶은지 아니면, 영어를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능력으로 채우고 싶은지.

문법은 언어학자들이 하는 공부다. 문법으로 독해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뇌 저장능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법을 이용해 공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통해 하는 독해는 영어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어민과 대화하고 자기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거나 그들의 말을 이해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 뇌 과학을 공부한 신경과 의사로서 그리고 30대 이후 파나는 노력으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자로서 자신 있게 말한다.

이 글을 읽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본인이 혹은 본인의

자녀가 꽃다운 나이에 6년여 동안의 인생을 희생하여 문법과 공식으로 무장한 영어를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시험을 보지만, 나중에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아니면, 영어를 뇌와 몸에 익혀 원어민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영어를 통해 더 넓은 정보와 문화의 바다에 뛰어 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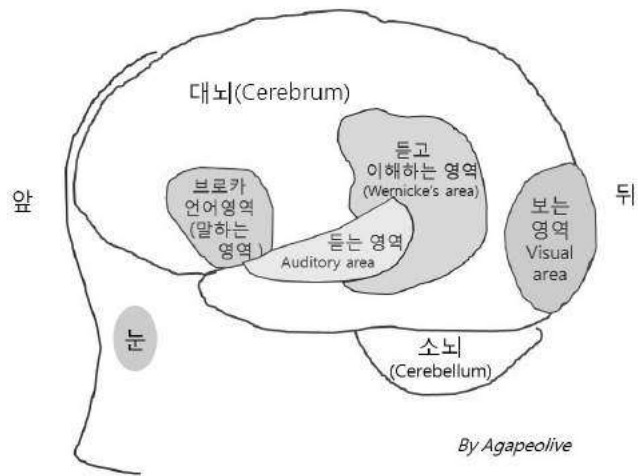
그리고 수능의 영어는 영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수능 점수가 높아야 좋은 대학을 가고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점수만 높고 운이 좋아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점점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졸업한 뒤의 삶이 인생을 바꾸고 개척해 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수영은 익사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영어의 바다는 생명의 위험이 전혀 없다. 우리 모두 목욕탕에서 수영하는 영어에서 벗어나 넓디넓은 영어의 바다에서 수영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02 독해를 하는 우리의 뇌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_ 論語(논어) 雍也篇(옹야편)



▲ 대뇌피질

많은 사람이 청취력, 이해력, 독해력 등을 따로 공부하고, 따로 학습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경과 의사로 뇌에 대해 잠시 설명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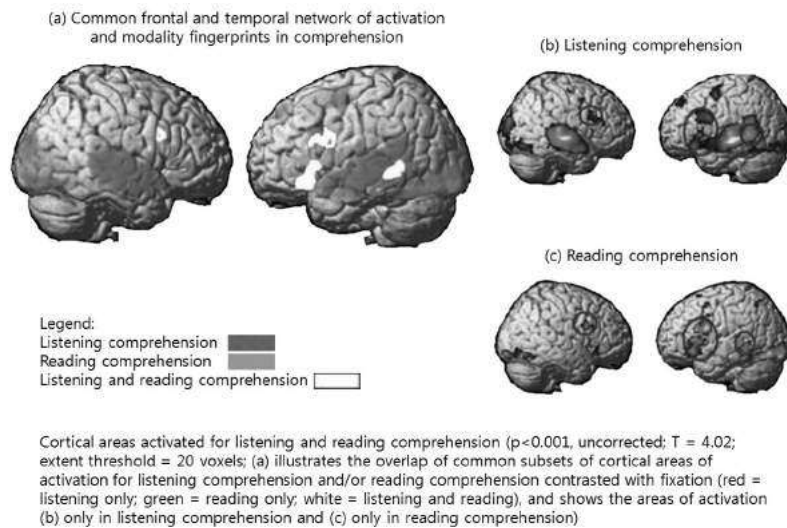
뇌에는 말을 하는 부분과 말을 듣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말을 하는 부분은 브로카 언어 영역(Broca's speech area)이다. 만일 뇌졸중이나 기타 뇌 질환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말을 못 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달리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남의 말은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는 있다.

한편 뇌에는 남의 말을 이해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를 베르니케 영역(Wernicke's area)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뇌졸중이나 기타 뇌 질환 등으로 인해 손상되면, 남의 말을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방금 바로 앞서 언급한 브로카 언어 영역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읽고 이해하는 뇌는 어디인가?

우선 글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하기 때문에 뇌에서 시각 수용 영역인 후두엽(occipital lobe)이 사용된다. 그리고 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영역은 바로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영역에 일부가 사용된다. 그 영역은 바로 앞서 언급한 바로 베르니케 영역이다. 놀라운 것은 듣고 이해(Listening comprehension)하는 데 사용되는 뇌의 영역은 읽고 이해(Reading comprehension)하는 뇌의 영역보다 훨씬 많은 뇌의 영역을 사용할 뿐 아니라,

더 다양한 뇌의 영역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영역의 뇌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는 이는 바로 전두엽(frontal lobe)이다. 전두엽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 집중력에 주로 독해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해는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에 전두엽의 기능인 집중력을 더해주는 훈련이다. 결국 회화에서 듣고 이해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집중력 향상 영향을 주는 인자는 무엇이 있나? 바로 본인의 관심과 배경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이다.



출처 : Psychol Neurosci. 2009; 2(2) : 111 - 123

Modality fingerprints in brain activation: listening → reading and more overall activation of the brain for listening comprehension

The contrast between listen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showed more activation for listening comprehension in bilateral superior temporal gyri. There was also more activation for listening comprehension in bilateral middle temporal gyri, right angular gyrus, and right insula. Listening comprehension was also associated with more overall activation of the whole brain when compared to reading comprehension.

(청취력 — 듣고 이해하기 — 은 글을 읽는 독서보다 뇌의 전반을 활용하고 뇌 전체를 활성화시킨다)

결론적으로 독해는 청취력에 집중력을 더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집중력을 올리는 것은 재미이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독해를 공부한다고 어려운 문장을 읽고 사전을 찾아보고, 문법을 따지고, 공식화해서 이해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즐거운지, 아니면 말하기 듣기 훈련을 해서 재미있게 원어민 영화를 보거나 대화를 하며 회화를 통해 어휘를 늘리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원서를 읽는 독해가 더 즐거운지를.

독해력에 대해 정리를 하겠다. 독해력은 청취력과 집중력이 더해질 때 가능하다. 그러면, 집중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호기심이다. 그리고 그러한 호기심이 유지 되려면 우선 즐기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 청취력 연습은 읽는데 필요한 뇌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뇌의 훈련이다. 즉 듣고 이해하기를 향상 하면 독해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독해 공부에 대한 경험적 그리고 의학적 결론이다.

독해 공부 그리고 문법 공부에 가까운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30대 넘어 독학으로 공부하여 영어 생방송을 하게 된 필자의 경험은 뇌에 대한 의학적 사실과 일치한다. 즉 회화실력이 늘고 뇌에서 원어 민만큼의 이해력이 따라갈 때 머리에서 읽는 속도와 이해 속도가 같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회화를 향상하는 방법이 바로 독해력을 향상하는 방법이다. 영어에 대한 정보가 뇌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이해하는 뇌의 프로세스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그리고 즐겨야 한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지자 불여호자 호자 불여락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論語(논어) 雍也篇(옹야편)>

필자는 여기에 격하게 공감한다.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집중력 향상 요소 : 호기심, 재미,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음식, 충분한 수분 섭취 등
- 집중력 저해 요소 : 지루함, 스트레스, 수면부족, 나쁜 음식, 탈수 등

3

회화로 습득한 독해

My goal in the classroom was always to make sure they were having so much fun that they didn't realize they were learning.

수업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학생들이 즐겁게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_ by Rick Riordan (American Author)

필자는 신경학을 전공으로 하는 의사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 서적을 읽어야 하고 의학서적은 거의 영어다. 한글로 번역된 책이 있지만, 대부분은 영어로 된 원서를 읽기를 더 선호한다. 영어를 잘해서일까? 아니다. 의학 용어는 대부분 다 영어이고, 한글로 번역된 의학 용어는 한자어가 들어간 어려운 혹은 어색한 말이어서 영어로 된 원서를 본다. 필자 역시 영어로 된 원서로 공부했다. 물론 원서보다 소위 족보집을 더 많이 봤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족보집을 보다가 모르면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뒤져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

원서로 교재를 읽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영어로 된 의학 교과서를 펼치고 문장을 읽어낸다. 그리고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한참을 읽고, 또 읽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해하고 다음 문장을 읽는 과정을 반복해서 몇 시간이 지나서야 한 chapter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원서를 읽고 이해하려면,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문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독해가 된다.

시간이 걸리고 머리에서 생각해야 할 뇌 프로세스가 많고, 에너지가 많이 든다. 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많은 메모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CPU 사용도가 올라가 속도가 느리다.

필자는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의학 공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필자가 진정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읽고 싶은 책을 갈작거리기 시작했다. 영어로 된 잡지나 인터넷 기사들, 그리고 영어 만화 등을 읽었다. 역시 문장을 분석하고, 단어를 찾아야 하고, 시간과 뇌에서 활용해야 하는 에너지가 계속 증가했다. 진도도 너무 느리게 나갔다. 그리고 필자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바로 문법을 통한 '문장의 분석'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독해'로 책을 읽게 되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한 영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 역시 바로 이러한 공식화된 영어 공부의 덕택이며, 이는 필자에게 '좌절감'과 '노잼(NO+재미)'을 선물해 주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32살이 되던 어느 날 영어로 된 영화를 보고, 듣고

이해하고, 그 감동을 그대로 느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 생각을 원 없이 영어로 원어민에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회화 공부를 했다. 받아쓰기를 하고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문법은 전혀!!! 신경도 안 썼다. '문법'이라는 단어 자체마저 필자의 해마 깊숙이 처박혀, 필자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 구석진 곳에 자리만 차지하고, 거의 15년 동안 소복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필자의 전두엽에 의해 '문법' 위에 쌓인 먼지를 털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전이다. 심지어는 이 책의 13장에서 다루게 될 '언어 습득의 4 단계'를 쓰던 중 '관계 대명사'라는 단어가 필요하였는데, 바로 그 '관계대명사'가 뭐였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기까지 하였다. 그 외 부사, 관사 등등의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들렸다.

이렇듯 문법은 필자의 기억 저 깊숙이 땅에 묻어버리고, 영어회화 공부를 한 필자는 다시금 교과서를 꺼내 읽어 봤다. 막힘없이 읽히고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해외 포털사이트에서 영어 기사나 에세이를 읽어 봤다. 한글로 된 책을 읽을 때처럼 술술 넘어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맥으로 뜻을 알고, 빠르게 이해되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어나갈 수 있었다.

회화를 통해 습득한 독해는 문장의 구조나 문법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 불필요한 프로그램(문법)은 정지되고, 그로 인해 사용하는 메모리는 줄어들고, CPU의 사용도도 올라가 연비가 좋은 독해가 된다.

문법의 공식을 이용한 독해

- ① 시간이 많이 든다.
- ② 메모리 사용이 많다.
- ③ CPU가 느려진다.
- ④ 뇌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 ⑤ 재미없다.

회화를 통해 습득한 독해

- ① 시간이 적게 든다.
- ② 메모리 사용이 적다.
- ③ CPU가 빨라진다.
- ④ 뇌의 에너지 소모가 적다.
- ⑤ 재미있다.

04

문법과 독해에 대한 오해

Language as a communication tool is the primary element from which literature is created. Even in pre-literate societies, it exists as songs, riddles, or epics that are chanted.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가 바로 문학이 창작되는 기본 요소이다. 이는 문자 사용 이전의 사회에서도 구전되는 노래, 이야기 등에서도 존재한다.

_ by F. Sionil Jose (Filipino Writer)

많은 사람이 문법을 알아야 독해가 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앞에서 문법 공부에 대해 이는 시간 낭비이며 인생 낭비라고 했었다. 혹자는 과격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에 필자의 경험 그리고 신경학적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정정하여 말하고자 한다. 당신이 훗날 언어학이나, 문법을 공부하는 학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문법 공부는 인생 낭비이자, 뇌 에너지의 낭비이자, 지워야 할 불필요한 레지스트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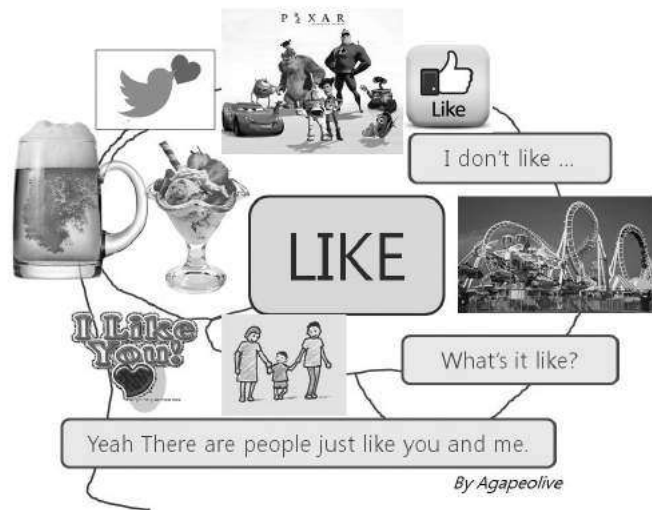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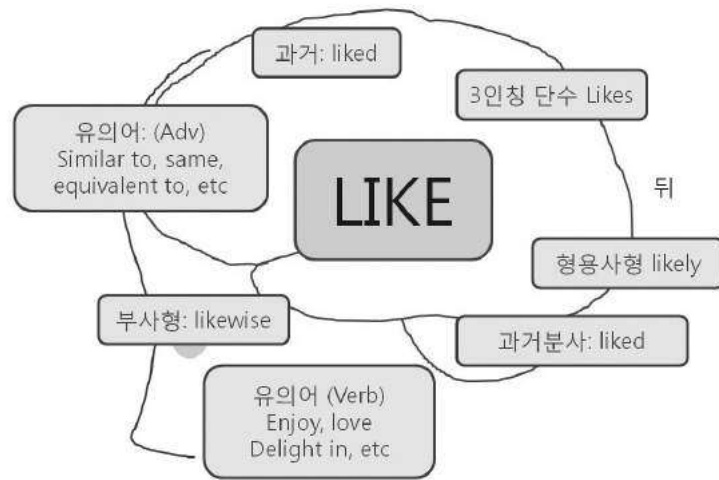
1) 문법을 알아야 독해가 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Adele의 곡 중 'Someone like you'라는 노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당신을 좋아한다.'라고 해석할지 모르나 사실은 '당신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 맞는 말이다. 3인칭 주어일 경우 동사에 's'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Someone likes you'는 '누군가 당신을 좋아해'이지만, 'Someone like you'는 '당신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

자~ 방금 여러분은 필자의 'Someone like you'와 'Someone likes you'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읽었다. 이때 여러분이 "아하~ 그렇게 해석되는구나!"라고 하였다면, 당신은 아직 영어가 습득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럴 때는 문법 공부보다 더 많은 통문장을 외워야 한다. 위의 예의 경우 'like'에 대한 예문을 더 많이 외우고, 그 예문이 들어가는 문장을 상상하거나 경험하여 'like'의 의미가 습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뇌의 기억 장소인 해마에 'like'의 의미와 사용법이 기록되고, 이는 다시 전두엽(기억을 꺼내는 기능) 기능과 합쳐져서 상황에 맞는 단어와 의미가 해마에서 꺼내져서 실전 영어회화에 사용이 되는 것이다.



두 개의 그림에서 위쪽 그림은 문법과 시험을 위한 단순 암기 공부를 한 뇌이고, 아래 그림은 통문장을 외우고 상황을 연결해서 습득한 뇌이다. like가 습득된 사람은 (아래 그림) 문법은 모른다. 하지만 like의 사용법을 알고, 그 뜻을 안다. 따라서 Adele의 노래 제목인 'Someone like you'를 보고 바로 '당신 같은 그 누군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를 통문장으로 외우고, 많이 접하게 되면, 문법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 또한 이는 문법 공부로 인한 뇌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고,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은 뇌 에너지의 낭비이자 비효율 영어로 가는 지름길이다.

추가로 'Like'라는 단어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와 같은' 혹은 '~처럼'이라는 이 'Like'는 원어민의 일상회화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다음은 얼마 전 EBS의 중급영어회화 POWER ENGLISH에서 나온 내용이다. Brian과 Angela(원래 Kristen Cho가 진행하나 이날 아파서 Angela가 참여)가 트릭아트 사진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다.

B : You know one of these trick eye pictures or they're sometimes called LIKE magic eye or something LIKE that.
 있잖아, 트릭아트 그림은 그러니까 매직아이 같은 거 그런 것으로 불리지.

A : Looks LIKE you're in the picture popping out right?

그림 안에 들어가면, 그림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것 그치?

B : Oh is that? Is that what it is?

어? 그거였어?

A : Is that not what it is?

어? 내가 아는 게 그거 아닌가?

B : I thought it maybe was one of those things where it's LIKE a picture and it looks LIKE a dolphin of something and if you keep staring at it, then you see LIKE a picture of something else.

나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돌고래 같은 것인데 계속 쳐다보면, 뭔가 다른 그림이 보이는 그런 것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A : OK. We are on different pages.

오케이 우리 완전 다른 이야기 하고 있구나.



[Like를 사용한 대화 녹음파일듣기]

위의 짧은 대화를 혼자 연극하듯이 외우고 말하면, like(와 같은)에 대한 단어의 사용을 습득하게 된다.

2) 문법을 알아야 대화가 된다?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문법을 알아야 문장을 맞게 만들지요.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지요?”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여자 친구를 갖게 되기 소망하는 두 남자가 영어로 대화를 한다.

A : Hey look. you know what? I heard that someone like you. Hey man. c'mon~ you got someone like you. and also rumor have it that she have a crush on you. you got someone likes you.

헤이 친구, 그거 알아? 누가 너 짝사랑한대. 헤이 정신 차려, 누가 너를 좋아한대. 소문 이 그렇대. 누가 너를 좋아한다니까.

B : Really Oh man. It ain't gonna happen to me. Pinch me.

Oh God Thank you.

정말? 우와, 사실이 아닐 거야. 나 좀 꼬집어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의 대화는 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많다.

I heard that someone like(s) you. She have (has). You got someone like(s) you. Rumor have (has) It ain't (isn't)

하지만, 대화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필자가 강조하는 영어의 언어적 본질에 있다. 즉 언어는 대화하는 소통의 도구이고, 정보의 교환이자,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을 나누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어민들이나 당신이 영어로 말하는 상대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만 관심이 있지, 당신의 발음, 문법적 부적절함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예외 : 문법가, 언어학자 혹은 당신의 영어 선생님)

여러분들이 원어민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과연 얼마나 문법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Broken English를 하는가? 그래도 의미는 다 전달이 된다. 그러면 Broken English를 해도 되는가? 당신의 Broken English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이를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Broken English or Konglish를 하면 다양한 표현이나 더 심도 있는 의사소통에는 제약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공부하고 외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을 통으로 외우고 실제 사용하여 본인의 것으로 습득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Broken English도 교정이 자연스럽게 된다. 필자의 아들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많이 하면서 서서히 고쳐지듯이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 부드럽게 가다듬어져서 자신만의 작품이 만들어지

듯이 말이다.

3) 문법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영어회화 실력이 향상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한국 사람이다. 한국어가 모국어다. 한국어 할 때 문법을 따지고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법을 따지면, 그만큼 뇌의 불필요 에너지를 소모할 뿐 아니라, 대화하는 내용의 본질을 흐린다. 앞에서 'Someone like you'와 'Someone likes you'의 예를 들었다. 한국어의 예를 들어 보겠다.

영희: 철수야 너 불만 있냐?

철수: 어 불만 있고 담배는 없어. (only fire)

영희: 철수야 너 불만 있냐?

철수: 어 나 불만 없어. (complaint)

위의 대화를 회화에서 사용하면, 그 상황에 맞추어 only fire 혹은 complaint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즉, 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아래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한 원어민 교사들(모두 영어교육에 certified 된 선생님들임)과 영어회화에 능통하여 대화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국 사람들의

문법 공부에 대한 의견이다. (SNS에 '영어공부에 있어서 문법에 대한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에 대해 질문하고 그 글에 달린 댓글에서 발췌하여 직접 번역했다.)

» **Elizabeth Jeanne Allen** : Lol.* You only think about grammar when it's not correct. I agree with more speaking vs just grammar study. If my Spanish classes were as heavy on grammar as the English classes in Korea, I don't know that I would have spoken any Spanish.

(너는 문법이 틀릴 때만 문법을 생각하지. 나도 너의 의견에 공감해. 내가 한국에서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영어처럼 스페인어를 배운다면, 스페인어 한마디도 못 할걸.)

» **Dr. Jung** : 문법은 영어 독서에 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문법 지식이 별로 없었다면 그냥 이해할 소설 속 문장들이 기존의 문법 지식과 다를 때 막히는 경우가 많아. 회화에서는 인칭과 시제 맞추어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후에는 전치사 사용 습관들이기. 나머지는 나열식 문장 구성이라서 단어와 표현 암기가 문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 위의 Allen이 말한 것처럼 틀린 문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문법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특히 동사의 인칭과 시제 변화. 근데 이게 아무리 글로 외워도 허끝에서 나오려면 회화를 통한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 **Jim Leonard** : Sang, I believe the first and only priority is to

* laughing out loud, 한글의 ㅋㅋㅋ 정도

get students conversational while speaking English. Grammar should come much later. For example, I was conversational in English at age 5 but didn't learn formal grammar until age 11. Obviously you learn some grammar while you get to a conversational level but I don't believe it matters until you can speak and ask questions in English.

(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학생들에게 영어로 대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 문법은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나는 5살 때 영어로 대화를 했고 정식적인 문법은 11살부터 배웠지. 문법은 회화로 대화가 가능해진 다음에 해야 하는 공부야. 즉,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질문할 수 있게 된 다음에 해야 하는 공부지)

» **조피디(전 부산 영어 방송 작가 겸 피디)** : 문법이랑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책이 끝까지 읽어지지 않지요! 그냥 쪽~ 읽다 보면 작가의 의도가 그려지면서 책이 이해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궁금했던 부분은 동그라미 쳐뒀다가 찾아보고... 그림 퍼즐처럼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외국인들도 문법 설명 못 해요~ 그냥 'sounds natural' 하면 pass! 반대로 한국어 공부한 외국인들이 한국어 문법 더 잘 알아요. 예전에 저한테 '을, 를'을 설명해 보래서 어더더하고 있었는데 어학당 다닌 다른 외국인이 뭐 받침이면 뭐고 이렇게 딱딱딱 설명해서 엄청 웃었어요. 하하.

» **Jonathan Ogden** : Agree with Jim, conversational English is most important. Being able to converse basically is vital. The

grammar will come naturally as you begin to interact.

(Jim의 의견에 공감해. 영어회화가 중요하지. 영어로 대화하고 의견 나누는 것이 바로 기초이고, 결정적인 것이지. 문법은 나중에 네가 관심 있으면 천천히 따라오는 것이지.)

» **Chad Kirton**(부산 영어 방송 DJ 겸 대학교수) : When I am learning Korean I question grammar and wonder if I'm speaking correctly, but I prefer to learn from more natural environments, such as real experiences rather than trying to just memorize grammar from a text book. But when studying a second language, memorizing grammar is inevitable. Since we can not learn our second language like children do, it's impossible NOT to learn grammar. I think in Korea though, grammar importance is over exaggerated. Unless your main purpose to study English in the first place, is to become a teacher to teach others. Then in that case, grammar understanding in a deeper sense is a must. But if your end goal to your English is just to be a good speaker. You can learn it any way you see that works for you, and in my opinion, a more natural approach is better. Experienced learning has better results over memorized learning in my opinion. But this is Korea. So here I feel people tend to focus more on the importance of grammar. First of all, here in Korea grammar is

needed to pass all the big exams that are required for Koreans. And second, I feel if you have a greater understating of grammar, you are also respected more as an English speaker amongst your Korean peers. But that's just my opinion. ㅋㅋㅋ나도 한국어 몰라ㅋㅋㅋ

(내가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문법을 물어봤었어.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알고 싶었거든. 하지만 나는 생활하면서 배우는 한국어가 더 좋아. 문법책을 보거나 다른 책을 보고 외우는 것보다 말이야. 하지만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문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불가결이라고 봐. 우리는 아이들처럼 외국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문법이 너무 강조되어 있어. 하지만 당신이 영어 선생님이 되거나, 그들의 선생님이 되려 한다면, 문법을 반드시 배워야지. 하지만 영어로 말을 하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내 생각에는 네가 편해하는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좋다고 봐.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경험에 의한 기억력이 단순 암기보다 좋다는 게 나의 경험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험을 봐야 하니 문법을 공부해야겠지. 그리고 영어 문법을 잘 알면, 영어를 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더 존경받겠지. 여하간 이걸 단지 내 의견이야.)

» **Anne Hershberger** : I'm glad he wrote that (so I didn't have to!). Affective variables are another aspect to language learning. These factors include : confidence, long-term goals, relevance, personality type, learning style and background knowledge. Additional issues like stress, parent involvement,

age and special needs could impact language growth. In my ELL classroom there are three rules :

1. Mistakes are OK
2. Learn from the past
3. Never give up

These ideas also “transfer” to everything else in life.

(위에 Chad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나는 하지 않으니 좋네. 효과적인 다양함 affective variables가 언어 공부의 또 다른 측면이지.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 자신감, 원시적 목적, 적절성, 개인 성향, 배우는 스타일 및 배경지식 등이 있지. 또한 스트레스나 부모의 환경, 나이 등이 언어의 성장에 작용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지. 내 ELL 수업에서는 3가지 규칙이 있어. 1. 실수는 OK, 2. 과거로부터 배운다, 3. 절대 포기 없기.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비단 영어뿐 아니라 우리의 다른 삶에도 적용되지.)

따라서 문법으로 해석하고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뇌 에너지 낭비이다. 또한 문법을 생각하고 회화를 하는 것은 영어회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어회화의 걸림돌이다.

05 독해가 안 되는 이유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ad as much as you can, like I did. It will give you an understanding of what makes good writing and it will enlarge your vocabulary.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처럼 가능한 한 많이 읽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도 좋은 집필에 대한 이해와 어휘력이 향상될 것이다.

_ by J. K. Rowling (English Author)

Q. 저는 회화를 잘하는데 독해가 잘 안 돼요. 문법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죠? 독해 공부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필자는 한국말을 잘했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데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다. 바로 뉴스였다. 뉴스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받

아쓰기를 한다고 해도 (물론 좀 틀리기는 했겠지만) 다 받아 적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거나, 삶에 대해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한국어 원어민이고 친구들과끼리 한국어로 대화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법을 몰라서? 아니면, 독해 공부를 안 해서?

1) 어휘력의 부족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어휘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사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그러한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이해하면, 어린이들의 어휘력이 풍부해질까? 물론 도움은 조금 된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경험이다. 예를 들어 '정'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이해하려면, 한국 사람들 사회에서 부모들과 커가고,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고운 정', '미운 정'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배경지식의 부족 때문이다

의사들끼리 하는 대화를 일반인들이 듣게 된다면, 이는 그들에게 외계 언어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의사들끼리 공유되는 의학지식이 배경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때문이다. 배경지식의 중요성은 비단 이뿐 아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들의 어휘력 부족에 따른 사회에 대한 이해도 부족, 시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 또한 사실은 어휘의 부족보다는 배경지식의 부

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배경지식이 늘어나고 어휘력도 늘어나면서 언어 기능이 발달하고 이해력도 증가하는 것이다. 그냥 사전만 보고 단어만 외우고,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단순 암기식 독해 공부, 문법 공부는 배경지식의 확장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따라서 회화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독해 공부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의학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신경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영어 생방송으로 영어회화가 능통한 필자가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학적인 내용이 많아 이해 못 한 분들을 위해 ‘왜 독해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지’에 대해 예를 들어보려 한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에 나오는 쉬운 동화책을 펼치고 큰소리로 읽어 보라. 그러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어제 본 재미있는 영화 내용을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아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귀로는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뇌는 말을 하는 부분, 듣는 부분 그리고 따라 하는 부분이 다 따로 있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다. 즉, 본인이 읽는 글에 대한 집중력이 더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책 읽기에 이해가 따라오고, 정보 습득이 된다. 그리고 그런 집중력은 관심에서 온다.

예를 들어 가방을 사고 싶어지면, 그 물건을 살 때까지 온통 그 물건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지나가는 사람이 메고 있는 핸드백, 크로스백, 백

팩 등이 눈에 쉽게 들어온다. 그리고 쇼핑몰에 가서 열심히 가격 비교를 하고 장단점을 읽어 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적은 후기를 읽어 보고 어떤 물건을 살까 고민한다. 해외 직구가 저렴할 경우 영어가 안 돼도 열심히 설명과 후기를 읽고,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를 본다.

여행도 마찬가지이다. 현지 정보를 알기 위해 가고자 하는 나라의 여행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좀 더 저렴한 여행 패키지를 알아보려 국내에서 제공하는 여행사 외에 해외 여행사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전부 관심이고, 관심이 있으면 집중이 더해진다. 독해도 이와 같다.

정리하면 독해는 어휘력이다. 그러면 어휘력은 어떻게 향상되느냐? 단어 1000개 정리된 책, 혹은 유의어나 반대어만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정리된 책을 달달 외우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솔직히 말해, 전혀 도움이 안 될뿐더러, 심지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마저 잃어버리게 한다.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고,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혹은 자신에게 필요한 발표 자료나 미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단어를 그때그때 찾아보고, 이를 활용할 때 자신의 어휘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즉, 문장을 통해 단어가 습득되는 것이며, 그 단어가 사용되는 문장을 통해 관련된 배경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해 공부이다.

또한 필자는 문법 공부에 대해 앞에서 인생 낭비라는 과격한 주장을 했었다. 필자는 이 주장을 수정하려 한다. 언어학을 전공으로 하고 문법을

* I take that back : 그 말 취소할게요.

공부하는 학자가 되려면, 문법 공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문법 공부는 당신의 인생 낭비이자, 뇌 에너지 낭비이다. ‘문법 공부가 절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문법은 언어의 습득 뒤에 그 습득된 언어의 연구를 위해 하는 것이지, 언어의 습득을 위해 문법 공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영어 공부의 본질은 언어의 본질과 같다. 즉 영어를 통해 서로의 정보교류 그리고 소통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필자는 믿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문법이라는 장애물을 만들어 많은 젊은이의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즉 그들의 인생을 소모시키고 결국에는 사회·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의 역할은 아직도 중요하다. 의학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32살에 회화를 통해 원어민처럼 되고자 했던 노력으로 습득한 영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지금의 의학 정보와 이전에 문법과 독해로 씨름해서 얻었던 의학 정보는 감동과 그 깊이가 다름을 느낀다. 이는 비단 의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과학, 인문, 경제 등의 분야에도 해당한다.

하루속히 언어의 본질에 충실한 영어교육이 자리를 잡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돌려주고, 사회와 나라를 발전시켜, 인류에 도움이 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영어 공부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KEEP IN MIND



1) 문법 공부는 언어학자 혹은 문법가를 위한 공부이다.

2) 일반인들에게 문법은 영어가 유창하게 습득된 다음에 하게 되는 공부이다. 이는 영어가 모국어인 원어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영어를 습득한 사람들에게서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영어를 습득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3) 문법을 알아야 독해가 된다면, 이는 당신이 아직 영어가 습득되지 않은 사람일 뿐 아니라, 뇌에서 지워야 할 불필요한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에너지 낭비의 극치다.

4) 독해 공부를 따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의학적 사실이다.

5) 즐기는 자가 되자. 영어로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알려 주고 싶은 것은 발표하고, 읽고 싶은 것을 읽어라. 그러면 어휘력 및 독해력 그리고 영어의 습득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Chapter V
영어학원에
안 가도 된다



01 우리에겐 전국공영방송 EBS가 있다.

The country that consistently ranks among the highest in educational achievement is Finland. A rich country, but education is free. Germany, education is free. France, education is free.

교육에 있어서 항상 상위권에 있는 나라가 핀란드이다. 부유한 나라로 교육은 무료다. 독일도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_ by Noam Chomsky (American philosopher)

병원에 근무하면서, 많은 선생님과 직원들로부터 영어 공부법에 대해 여러 질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필자에게 자문을 구한다.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원어민과 대화해야 영어가 늘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나이가 많은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영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 외 또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학원이 좋나요?”이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해 검색을 하면, 영어 광고 팝업창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 심지어는 심기가 불편해질 정도로 무수히 많이 열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구들을 보게 된다. “○○일 만에 ~~ 할 수 있다.” “○○일 만에 자막 없이 영화보고 듣고 한다.” “○○일 만에 대화한다.” 등이다. 이에 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

“시작이 반이다.” (Well begun is half done.)^{*}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이는 ‘시작이 반’이므로 좋다. 하지만, 그들이 광고하는 문구에 현혹되지는 말았으면 한다. 10년을 하루에 최소 3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혀도 깨문 필자가 영어로 된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대화가 나를 자연스럽게 되고, 집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리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즉, 그들이 광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필자가 감히 말한다.

^{*} Prov. Beginning a project well makes it easier to do the rest.; Once you have begun a project well, you do not need to put in much more effort to finish it.

[예문]

Jill : I'm afraid I'll never be able to finish writing this report.

Jane : You've already written a good introduction. Well begun is half done.

(출처: The Free Dictionary idioms.thefreedictionary.com)

누군가 “어떤 학원이 제일 좋나요?”라고 필자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전국공영방송인 EBS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필자는 EBS 마니아이다. (참고로 '마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니아가 아님을 알고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필자가 한국 교육방송 EBS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무료이다

(AOD나 스마트폰 app을 사용할 경우는 유료이다. 하지만, 필자는 방송을 녹음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듣는다. Chapter III 참조)

(2) 언제 어디서나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간혹 원어민을 만나야 영어실력이 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원어민을 만난다고 다 영어실력이 는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수도룩하다. 또한 원어민 만날 때 우리가 착각하는 몇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원어민과 대화하기'에서 글이 펼쳐질 것이다.

(3) 단계별로 된 영어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

* 1) 영어로는 mania(메이니아)라고 '메이'로 발음해야 한다. 2) 정신과적인 병적 상태가 포함된다. 열렬한 팬(Fan)이 아닌, 스토킹(Stalking - '스터킹'이 적절한 발음)의 의미이다. 적절한 단어는 바로 Fan이다. 이는 fanatic의 준말로, 발음과 강세는 faNatic (피네!틱)이다. 물론 이 단어도 광적인 표현이 있지만, Mania보다는 좀 약하다.

02 EBS 영어 공부 극대화하기

It would be nice if education was free to everyone who wanted it, but that's not the world we live in.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육이 모두 공짜면 얼마나 좋을까.

_ by Glenda Jackson (British Actress)

자 그럼 초보자와 중급자를 위한 그리고 나처럼 30대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필자의 노하우다. 그리고 이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모든 분에게 추천하는, EBS를 이용한 나만의 비법이다.

▶ 준비물: 컴퓨터(녹음기), 스마트폰 혹은 MP3 그리고 열정

1) EBS Easy English (초급영어회화)를 강추한다

(1) 방송 시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본방송과 재방송이 있고, AOD(audio on demand) 서비스도 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들어야지' 하는 나약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인간은 원래 나약하다. 하지만, 그 나약함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타인에 대해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져야 한다.

(2) 녹음을 한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교재를 안 보고 받아쓰기를 해 본다

받아쓰기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필자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2분도 안 되는 EBS 모닝스페셜 오프닝 멘트를 받아 적는데 2시간 넘게 걸렸었다. 하지만 받아쓰기를 하면 발음이 구분되어 들리는 능력이 길러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문 내용이 저절로 외워진다.

(3) 본문 내용만 반복해서 듣는다

일어났을 때, 출퇴근길에, 점심시간, 화장실을 갈 때도 계속 듣는다. 받아쓰기 없이 들으면 소귀에 경 읽기다. 내용의 이해 없이 듣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4) 본문 내용을 틀어서 따라 한다

10여 년 넘게 필자가 공부한 방법인데, 얼마 전야야 명칭을 알게 된 영어 방법이다. 이를 shadowing이라고 한다. 즉 진행자의 말을 '남의 말 따라 하기처럼 계속 따라 하기를 하는 것이다.

(5) 혼자 하는 연극(모노드라마)처럼 본문 내용을 외워본다

가장 마지막 단계다. 이 단계까지 하루에 다 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집중이 필요하다. 필자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여기까지 강력하게 권유하지는 못한다. (4)까지도 충분히 하고 벽찰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 볼 수 있으면, 해보는 것이 좋다. 본인이 연기자가 되어서 연기를 하는 것

이다. 혹은 가족들 앞에서나 회사 동료들과 서로 번갈아 가며 역할극을 해보는 것이다.

Easy English 본문 내용을 30분 안에 다 받아 적을 수 있다면 다음 단계인 입이 트이는 영어를 추천한다.

2) 입이 트이는 영어(입트영)

공부 방법은 이지 잉글리시와 같다.



(1) 방송 시 집중해서 듣는다

(2) 녹음을 한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교재를 안 보고 받아쓰기를 해 본다

(3) 본문 내용만 반복해서 듣는다

(4) 본문 내용을 틀어서 따라 한다

그리고 즐겨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원어민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대감과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그대로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말이다.

여러분들이 앞의 두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영어 본문을 1시간 안으로 다 받아 적을 수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권한다. 그 이유는 위의 두 프로그램에서는 영어와 한국말이 반복되어 나온다. 집중하다 보면, 원하지 않게 한국말도 뇌에 입력이 된다. 따라서 가능한 영어만을 들어 이를 뇌에 입력하게 될 때, 시간과 뇌의 저장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역시 EBS의 파워 잉글리시이다.

3) 파워 잉글리시(중급영어회화)

이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교재를 정기구독하며, 매일 방송을 녹음하면서 듣고 공부하는 필자가 가장 좋아하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어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영어의 바다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본문의 내용이 매우 실용적이며, 실제 영어회화에 사용할 만한 좋은 표현들이 많다. 또한 진행자들의 호흡이 잘 맞아 서로 주고받는 농담에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을 수 있다.



배꼽 빠지게 웃다

- I totally doubled over with laughter while listening to this show.
- = I totally laughed my belly out while listening to this show.
- = I totally rolled on the floor laughing my stomach out.

한국에 살아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현실에서 잠시나마 영어의 세계로 인도하여 준다. 이는 점점 잊히려 하고 잊혀가는 나의 영어를 조금 씩이나마 유지하게 해준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이 프로그램을 듣고, 따라 말하며, 본문을 외우려 한다.

(1) 교재를 사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본문 내용을 받아 적고 그것을 매일 외우고 하면 좋다. 하지만, 필자처럼 바쁜 직장인이라면, 교재를 사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04년부터 필자가 구독 중인 파워 잉글리시 교재

(2) 연습이 중요하다

한번 본문을 읽고 내용 파악을 한 뒤 방송을 들어라.

(3) 녹음을 하든 AOD 서비스를 받든 MP3로 저장 후 받아쓰기를 해본다 이전에 필자가 적은 받아쓰기 방법 참조 바란다.

(4)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서 잘못 받아 적은 부분을 보완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교재를 보지 말고 최소 1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스스로 맞춰 보도록 해야 한다.

값진 노력 후에 정답을 맞히는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통해 머리에 정확한 발음과 내용 그리고 그 단어가 저절로 외워진다.

(5) 녹음한 것을 계속 듣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시, 출퇴근 시, 화장실에서나 쉬는 시간에도 언제나 들어야 한다.

(6) 본문 내용을 외워본다

필자는 공중보건의 시절에 그날그날의 본문을 외우려 했었다. 처음에는 5시간 정도 걸렸었다. 잘 안 외워진다고 실망하지 마라.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한 뒤 다시 들으면, 본문의 내용이 더 정확히 들리고 그 내용이 원어민처럼 이해될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지금도 외우려고 한다. 하지만 다 외우기에는 시간이 잘 안 난다. 이럴 때는 원어민이 한 문장을 말하고 나면, 즉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대뇌인 뒤 말해 본다. 완벽하게 문장을 따라서 말할 수 있으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

ex) 녹음기를 틀고 원어민이 말하는 문장 "It's none of your business."라고 나오면, 일시정지 버튼 누른 뒤 "이츠 너어브유어 비즈니스"라고 바로 그 문장을 따라 말할 수 있으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

자, 독자 여러분은 이제 영어회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거나 책을 볼 때 어려운 단어를 더 많이 만나게

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바로 글자로는 많이 읽히나, 말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와 그 반대인 단어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의사이므로 의학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소변은 의학 용어로 urine이 있다. 대학을 졸업한 원어민들한테 urine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는다. 하지만 실제로 회화에는 사용되지 않고 어린이들이나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pee를 쓰게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배뇨장애가 있나요?"와 "오줌 싸는 데 문제 있나요?"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 urine - noun) Urine is the liquid that you get rid of from your body when you go to the toilet.
» urinate - verb)
» pee - verb) When someone pees, they urinate. (less formal)

출처 :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또 다른 예로 sputum이 있다. 우리나라 말로 '객담(Sputum)'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객담'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이 경우 '가래(phlegm)'라고 하면 쉽게 알아듣는다.

» sputum - noun) Sputum is the wet substance which is coughed up from someone's lungs. (often used in medical terms)

» phlegm - noun) Phlegm is the thick yellowish substance that develops in your throat and at the back of your nose when you have a cold.

출처 :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그 외에도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표현이나 실제 회화에서 나오지 않는 표현들이 있다. 이 경우 필자는 EBS의 '모닝스페셜'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다음은 모닝스페셜 100% 활용하기 방법이다.

4) 모닝스페셜

(1) 본방을 들으면서 녹음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송 시 전심을 다해 들어야 한다. 그리고 녹음에서 중요한 것은 진행자가 한국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면, 녹음기를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서 가능한 한국말이 녹음되지 않게 한다.

(2) 본문 내용을 받아 적기 해본다

모닝스페셜은 그날그날의 새로운 뉴스나 혹은 재미있는 뉴스를 다룬다. 간혹 어려울 수 있으나, 열심히 듣고 받아 적기를 도전해보면, 그 과정에서 본문 내용이 이해되고, 단어와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이 외워진다.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혹은 이 프로그램을 100% 활용하고 싶으면 필자가 3년간 빠지지 않고 했던 뉴스 부분 내용을 다 받아 적기 해본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30분간 진행되는 내용을 다 받아 적는 것이다. 처음에 필자는 약 5~6시간 정도 걸렸었다. 하지만, 받아적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3) 받아 적은 대본을 들고, 녹음한 파일을 들고 이를 따라 한다

마치 방송을 진행하듯이 진행자가 된 상상을 하면서 따라 하는 것이다.

(4) 녹음한 것을 계속 듣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시, 출퇴근 시, 화장실에서나 쉬는 시간에도 언제나 들어야 한다.

03 한국에서 어학연수하기

The English language is nobody's special property. It is the property of the imagination: it is the property of the language itself.

영어는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는 상상의 소유물이며, 언어 자체의 소유물이다.

_ by Derek Walcott (American Poet)

필자는 학창 시절 여러모로 어려운 개인 가정사 및 학업성적의 저공비행으로 어학연수는 꿈도 꾸지 못하였다. 그리고 방학 때 어학연수 혹은 배낭여행 가는 친구들을 만나면 필자는 마냥 그들을 부러워했다.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면, 어학연수를 다녀온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학연수 가서 한국인들끼리 지내면, 영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다.”

필자는 이 말을 듣고 어학연수에 대한 부러움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영어 공부는 어학연수를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에서 영어를 생활화하면 어학연수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나서다. 그리고 추가로 돈도 절약된다는 점도 있다.

직장인들은 시간을 내기 힘들다. 출근 준비를 하고,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가야 한다. 결혼했다면 퇴근 후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학연수와 같은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필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다.

1)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머리에 저장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쉬는 시간, 출퇴근 시간, 불일 보는 시간 등에 녹음한 영어를 듣고 외우는 것이다.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지난 하루를 되새겨 보라. 그대가 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2) 어학연수를 왔다고 상상하라. 현실이 될 것이다

필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이런 상상을 한다. ‘지금 나는 미국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스마트폰 기본 언어 설정을 영어로 한다. 컴퓨터 기본 언어도 영어로 한다. 문서 프로그램도 기본 언어를 영

어로 설정한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문명으로 세계 어디나 접속할 수 있다. 즉 방안에 혼자 있어도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이 될 수 있고,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유럽의 한 자취방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나라에 이민 와서 근무 중인 사무실이 될 수도 있다.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3) 영어로 숫자를 읽어 보라

의외로 어려운 도전일 수 있다. 전화를 걸 때나 시계를 볼 때 혹은 주민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외울 때 영어로 외우고, 영어로 읽는 것이다. 의무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면, 영어로 숫자를 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시도해보면 잘 안 된다. 지나가는 차의 차량 번호를 영어로 그때그때 말하기를 해보면 역시 잘 안 된다. 그래도 계속해라. 익숙해질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안주하려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유는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로서 말한다. 익숙한 것만 찾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 중 하나다.

4) 영어로 메모하라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케줄 관리도 어디서든 가능하게 되어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의 걸어 다니는 사무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자신의 스케줄을 영어로 작성하고 생각이나 일기 등도 영어로 써보기를 권한다. 물론 스마트폰 기본 언어도 영어로 설정하라.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다. 필자도 불편했다. 의무기록도 영어로 한다. 물론 모국어가 한국어말이어서 좀 불편하다. 하지만 익숙해질 수 있다. 공짜로 어학연수를 하는 기회가 바로 당신의 손끝에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익숙한 것만 찾으시면 나중에 필자(신경과 의사)에게 와서 치매 진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혹시 의사에게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필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로 치매를 예방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진다. 그리고 나와 같은 신경과 의사의 할 일도 없어진다.

5) 영영사전을 이용하라 (영한사전 NO!!!)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은 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다. 뒤에서 '왜 번역이 뇌 에너지 낭비인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우선 잠시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뇌'뿐만 아니라, 영어회화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또 다른 뇌의 영역을 사용한다. 즉 영어의 목적(소통하고 정보교류)에 전혀 쓸모없는 뇌의 영역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쓸데없는 에너지(glucose, 당)를 낭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뇌의 프로세스 시간도 잡아먹어 회화의 순발력이 떨어지고, 뇌에 쓸데없는 신경회로(통역사에게는 필요함)를 만들게 된다.

영어는 영어로 이해해야 한다. 쉬운 예로 'sorry'가 있다. '미안하다'는 말이지만, 이 단어는 '위로' 및 '상대방과의 교감' 등의 의미로도 사용된

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초상집에 가게 될 때 원어민들은 “I am so sorry for your loss.”라고 한다. 그 외에도 명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어단어의 의미가 우리의 말과 똑같은 것은 없다. 앞서서도 얘기했 듯 한국어로 이해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말하기와 듣기 뇌’가 아닌 ‘번역의 뇌’를 사용하는 에너지 낭비이다. 이러한 에너지와 한국어 번역의 뇌 훈련은 ‘통역사’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들만이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은 영어회화를 위한 영어 본연의 목적, 즉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의 목적을 위한 훈련이 아니다.

KEEP IN 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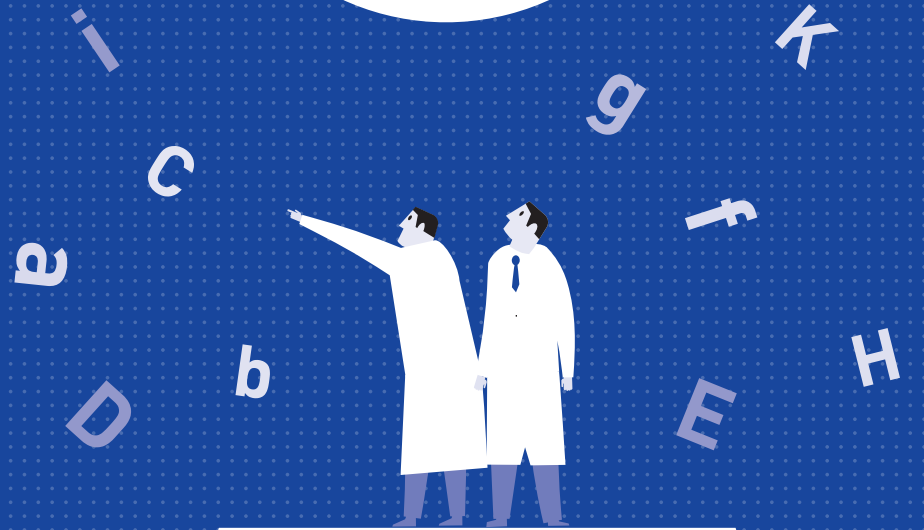


1) 배움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학원이 잘 가르치냐?” 보다는 “나는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있는가?” “나는 진정 이것을 배우려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2) 인터넷으로 세상은 이미 지구촌이 되었다. 생활 속에 작은 변화만으로 우리는 쉽게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

- 전화번호 및 일상생활에서 숫자를 영어로 말하기
- 스마트폰 및 컴퓨터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기
- 영어로 일기 쓰기
- 영어로 메모하기

Chapter VI
영어 올림종



00 극복하기

You must study to be frank with the world: Frankness is the child of honesty and courage.

세상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워라. 솔직함이야말로 정직과 용기의 어린이다.

_ by Robert E. Lee (American Soldier)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과장님으로부터, 영어 울렁증에 대해 글을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사실 필자도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약 4~5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기억한다.

영어 울렁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왜 자신에게 영어 울렁증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울렁증이 생겼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각각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극복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를 필자는 '영어 울렁증'이라고 하고 싶다.

문제는 영어 울렁증에 대한 답을 이성으로는 아는데, 감성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것이다.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각자 자신의 영어 울렁증에 대한 경험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필자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 각자가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1) 무식한 질문은 없다

필자 역시 과거에 얼굴이 발개지고, 쥐구멍이라도 찾아가 숨고 싶었던 부끄러운 경험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질문하기'이다. 초·중·고등학교 시절, 학급에서 질문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이 좋았거나,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잘 노는 애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느 날 내신 6등급(12등급제 시절)인, 그리고 조금 소심한 필자가 용기를 내어 질문한 적이 있다. 그때 선생님은 "명청하게 그것도 모르냐?"하셨고 그 뒤 나는 더더욱 질문하기가 두려워졌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의과대학은 마치 입시 전문학원과 비슷하다. 수강신청을 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를 듣고, 강의 스케줄을 조절하면서 대학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서 같은 학우들과 6년간(예과 2년, 본과 4년) 끊임 없이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된다. 수업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였고, 저녁 식사 후 실습을 하거나 종종 퀴즈(주로 본과 임상 실습 전에 시행하던 시험의 일종으로 주 1회 정도 실시, 점수 미달 시 재시험을 봐서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 당함)를 보기도 한다. 따라서 수업시간 사이마다 주어지는 10분의 시간은 의과대학생들에게 꿀맛 같은 시간이다. 이 귀중한 10분의 시간을 사수하고자, 수업이 끝날 즈음에 질문을 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무언의 (간혹 유언의) 원성을 듣게 된다. 하루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자 “책 봐! 책에 다 나와 있어!”라고 하신 황당한 교수님도 있었다. 여하간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 그리고 질문이 점점 사라지는 교육이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던 중 어떤 외국인 연자를 모시고 강의하는 학회를 갔었다. 우리나라의 한 의사가 질문을 했다.

“Dr. ○○○ I know it's a bit stupid question ~ but the question is ~”

(선생님 이것 좀 무식한 질문인데요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

그러자 바로 그 외국인 연자는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tupid question.”

(무식한 질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라고 바로 답을 하는 것이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tupid question.

무식한 질문이라는 것은 없다.

= There is no stupid question.

= No question is stupid.

우리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작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자세인데 말이다.

2) 나의 영어 청취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영어로 쉽게 설명하지 못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이다

내가 경험하고 만나본 외국인 대부분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즉 내가 그들의 말을 잘 못 들어서, 다시 물어보면, 그들이 오히려 Sorry 라고 말하며, 나에게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뉴욕 같은 곳은 서울과 비슷해서 말도 매우 빠르고, 정신없고, 정도 좀 없는데 LA나 휴양지 같은 곳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좀 더 친절하다) 대답을 잘 안 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어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그들마다 다 발음이 다르며 서로 잘 못 알아듣는다. (Chapter III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4 참조) 따라서 대부분은 자신이 설명한 말을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으면, 자신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질문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전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쉬운 말로 설명해 준다. 간혹 계속되는 질문에 원어민이 난색을 표하거나 꺼려하는 것 같으면, 더욱 당당히 요구하고 질문해라. 당신이 당당해야 더더욱 차근히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3) 외국인들 끝만 보고 기죽지 마라

얼마 전 내가 근무하는 부산의 영도까지 찾아온 초등학교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대학교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재 주립대 건축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던 중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 이야기가 나왔다.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 육체적 성숙이 일찍 시작되고 따라서 나이에 비해 많이 늙어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 혹은 사춘기 아이들과 같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부산에서 영어가 능통한 몇 안 되는 의사이자 미국 의사 면허증이 있는 의사로 원어민들이 종종 진료를 보러 온다. 그들 중에는 키가 190이상이 되고, 덩치도 크고 수염도 덩수룩한 젊은 20대 초반의 원어민도 있다. 그런 젊은 원어민들을 진료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철없어 보이고,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본다. 사실 이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다. 너무 당연해서 이야기의 주제가 되기도 어려운 이야기이다. 하지만, 우리 한국사람들, 특히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거나, 타민족의 덩치 큰 외국인들을 본 적이 없는 우리네 한국인들에게는 이야깃거리가 된다. 이는 아마도 그들의 큰 몸집과, 우락부락하고 또렷한 눈코 입과 같은 외모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유로 그들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기에 당연한 이야기가 이야깃거리가 되고, 이야기의 주제가 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다를 것이라는 전제가 바로 우리의 영어 울렁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

한다.

4) 외국인도 뱃속에 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뱃속에 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필자도 뱃속에 똥이 있다. 그리고 그 똥은 우리의 단점, 부끄러운 점, 수치스러운 점, 열등감을 느끼는 점 등도 함유하고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배운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예쁘고 날씬한 사람, 잘생기고 근사한 몸매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거나 그로 인해 나를 주눅 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그들 뱃속에 똥이 들어 있음을 상상한다. 좀 엉뚱한 상상이지만, 한편 속으로 웃음을 참기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모두는 뱃속에 똥을 가지고 있고, 점점 늙어 가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 그들도 뱃속에 똥을 가지고 있으며, 대변이 마려우면 화장실을 찾아가 아랫배에 힘을 준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 가족의 행복, 자식의 행복, 직장의 성취 등으로 즐거워하고 이별, 불행, 아픔, 좌절에 슬퍼한다. 영어를 사용하건, 사용하지 아니하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게 나의 영어 울렁증 극복의 비법이다. 좀 엉뚱한 비법이지만, 나의 이러한 경험과 생각의 글이 영어 울렁증을 가진 많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이를 극복하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EEP IN MIND



- 1)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 2)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나 결국 우리는 같은 인간이다. 먹고 마시고 싸는...

Chapter VII

원어민과 대화하기



01 어학연수 필요할까?

Success is to be measured not so much by the position that one has reached in life as by the obstacles which he has overcome.

성공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역경을 겪고 그 위치에 오게 되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_ by Booker T. Washington (American Educator)

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미국 남부의 한 병원에서 신경생리검사 (Neuroelectrophysiology)에 대해 3개월간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대부분 미국에 처음 정착하는 한국인들은 한인교회를 간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한인교회를 간다. 그 이유는 교회의 종교적인 역할 이외의 목적 때문이다. 한인교회를 통해 이민자들이 서로 모임을 하게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내 한국교회는 이민자들이 타국 땅에서 살아갈 때, 서로 의지하게 하는 매개체 역

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미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필자 역시 한인교회를 통해 하숙집을 구하게 되었다. 한인교회는 말 그대로 '한국인 교회'이다. 그렇다고 예배 오는 사람이 모두 다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사람들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필자가 참석한 한인교회의 예배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인을 위해, 한국말과 영어가 능통한 그리고 통역에 경험이 있는 교포 2세 청년부 학생이 설교 내용을 통역해 주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영어교과서 발음도 그렇고,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다. 필자 역시 그러한 영향 아래 학창 시절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잘 사는 나라, 꿈을 실현하는 나라, 친절하고 남에 대한 배려와 에티켓을 가진 선진국 미국으로 말이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힌 필자가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를 잊지 못한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 한 주연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공항에서 내릴 때의 그 흥분과 기대는 잊을 수 없는 설레는 추억이다.

난생처음 미국 땅에 발을 딛고, 입국 수속 후 필자는 마치 강아지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얼굴에는 커다란 미소를 머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Hello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나의 독학 영어를 연습할 상대를 찾으려 했고, 그들과 친해지려 했었다. 심지어는 미국의 한 은행에 가서 현금인출기 기능을 사용하려는데 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 필자의 뒤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나의 그런 행동은 미국에

서 총 맞을 짓이었다고 한다. 미국의 개인주의 그리고 총기 사고가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도 Drive Thru가 있는 한적한 무인 은행에서 한 동양인이 현금과 카드를 들고 차에서 내려 뒤에 대기하고 있는 차에게로 다가 도움을 요청한 것은 그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그 미국인이 왜 나의 도움 요청에 매우 긴장하고 무서워하는 표정이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모르면 용감하다. 아니 용감해야 한다. 특히 영어에 대해서는 더욱

여하간 필자의 넓은 오지랖과 활발한 성격으로 인해 하숙집 이외의 여러 한인교회 식구들로부터 많은 식사초대를 받아 여러 가지 만찬을 즐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얻었다.

하루는 미국인 남편과 사는 한 여자 집사님의 집에 초대되어 갔었다. 그 집사님은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두통과 수면장애가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 상담을 해드렸었다. 그런데 필자를 조금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3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지만, 영어를 잘 못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다른 성도 식구들도 함께 그곳에 초대되어 갔는데, 미국인과 함께 사는 수많은 한국인 집사님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다.

원어민과 대화한다고 다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를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과 데이트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종종 한국인에게 듣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인 여자/남자 친구랑 연애를 1년 넘게 했는데, 도저히 영어를 못 해서 대화가 안 돼 답답하다.”라는 말을 한국에 사는 원어민들에게 듣기도 한다.

물론 남녀는 서로 대화하기 어려운 동물이다. 15년을 한 여자와 같이 살면서 대화를 해도 여자와의 대화는 참 어렵다. (여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원어민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일부는 자신의 회화 실력이 부족함의 탓을 ‘원어민과 대화할 기회가 없음’으로 돌린다. 물론 원어민과 이야기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표현을 배우거나 자신의 영어를 수정하고 보완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그 원어민을 당신의 영어 선생님이로 만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현을 가르쳐 주거나 발음을 교정해주기도 하고 당신의 영어회화 실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냥 원어민을 만나는 것은 당신의 영어회화에 아주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영어회화의 목적에 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영어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이다. 바로 원어민들은 이 소통의 도구로

만 영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한국어를 소통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필자는 30이 넘어 국내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다. 당연히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한국어가 훨씬 편하다.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익숙한 표현이나 배경지식이 있는 경우 비교적 술술 영어가 나온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생각대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마치 내 네 살 난 아들이 하듯이 대충 머리에서 나오는 단어를 마구잡이로 섞어서 말을 한다. 그럴 때마다 원어민 친구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대화로 넘어가곤 한다.

또한 어떤 경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다양하지 않아 어떤 특정 영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반복된 표현은 심지어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필자에게는 그 표현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 계속 그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원어민에게 물어본다.

“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냐?”

Do you know what I mean?

= Did you get it?

= Can you follow me?

= You know what I'm getting at?

= Do I make myself clear?

(필자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봤으나, 같은 뜻은 아니다. 비슷하지만, 다 조금씩은 다르다.)



원어민과 대화 시 필자의 부족한 점

시간이 많이 든다.

- ① 당황하거나 급할 때 그냥 단어의 나열만 함
- ② 특정 표현의 과다사용, 표현의 다양성 부족

(이것 때문에 영어 방송국에서 종종 지적을 받음 by Travvy)

A delusion is something that people believe in despite a total lack of evidence.

망상은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는 그 무엇이다.

_ by Richard Dawkins (English Scientist)

앞서 내용에 원어민과 대화를 한다고 무조건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고 한계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이 영어회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도움이 된다’이다. 본인이 배우고 알고 있는 표현을 계속 뇌에 되새김으로 그 표현을 확실하게 해준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함께 있으면, 귀를 열어 계속해서 그들의 내용을 애써 들으려 하게 된다. 즉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집중을 통해 당신의 뇌에는 영어 회로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받아 적기를 하거나, 영화를 볼 때 집중해서 듣고 말하면, 원어민과 대화하는데 얻는 영어학습만

큼의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원어민과 있을 때는 영어를 ‘라이브’로 듣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어민과의 대화 시 영어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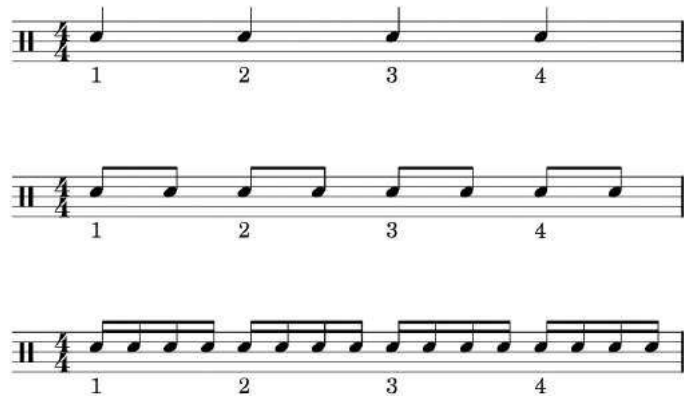
필자에게는 영어 외에 또 다른 취미가 있는데, 바로 음악이다. 음악을 듣는 것도 즐기지만, 연주하는 것 역시 좋아한다. 학창 시절에는 밴드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악기는 드럼이다.

필자가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지인의 권유로 직장인 관악 앙상블(광주 윈드 앙상블)에서 드럼을 연주하며, 공연하러 다닌 적이 있다. 필자의 드럼 실력은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터치로 시끄럽지 않고, 전체 앙상블에 호흡을 맞추며 연주를 할 정도는 된다. 그러다 보니, 지인들에게 드럼을 어떻게 하면 잘 치고 배울 수 있는지 자문을 받는다. 그리고 일부는 필자로부터 드럼을 배우게 되기도 했다.

드럼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ime keeping이다. 즉, 박자가 일정해야 한다. 박자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면 안 된다. 혹자는 “아니 인간이 연주하는데 설마 시계처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로 드러머는 전자 박자 기계를 틀어 놓았다가 중지 후 다시 틀어도 그 박자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진다. 참으로 놀라운 인간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뇌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뇌는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뇌의 형태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놀라는 사실은 추후 뇌를 공부한 필자가 이 책의 후반부(Chapter XII 영어뇌 만들기)에 기술하려 한다.

여하간 드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박자이고 그 다음으로는 강세이다. 이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본자세를 유지하면서, 한 박자 한 박자씩 치는 연습을 하루 수 시간씩 수주 혹은 수개월간 하게 된다.



박자기를 틀어 놓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드럼을 치는 기초악보이다. 단 순해 보이나 추후 강세가 더해지고 좌우 손이 순서가 바뀌면서 다양한 조합이 나온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바로 드럼 세트에 앉아서 멋지게 연주하기를 원한

다. 그래서 기본기 훈련 없이 가장 흔하고 박자 맞추기 편한 4분의 4박자 곡을 연습하고 바로 드럼 세트에 앉는다. 그리고 자신이 연습한 곡을 드럼 세트에 앉아서 열심히 친다. 박자가 엉망이고 강세도 엉망이다. 연습한 곡을 계속 치다 보면 조금 익숙해져서 조금은 박자가 맞지만, 여전히 틀리는 부분에서는 계속 틀리고 어색하다. 여기서 이를 연주한 후배나 필자가 가르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 곡의 연주를 마쳤기에 본인이 드럼 연주를 잘 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같은 종류의 박자만 계속 연주하게 되고(익숙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박자를 연습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들고, 연습 패드에 앉아서 해야 하니까.) 다른 박자나 다른 스타일의 곡은 전혀 연주하지 못한다.

이는 원어민과 대화하는 영어회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어가 유창한 원어민들 속에서 당신이 영어를 하면 그들은 당신의 몸짓과 단어의 나열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당신은 그때 당신의 영어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희열을 맛보게 되고 그들과 같이 대화한 뿌듯함에 기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어 실력도 원어민들끼리 주고받는 정도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표현법이다. 이는 필자의 부족한 점과 같다. 즉, 특정 상황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몰라 한정된 당신의 영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때 원어민들은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만 관심이 있기에 이에 대한 지적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에는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표현으로만 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새

로운 표현을 배우거나 사용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마치 8비트 드럼만 연주 하듯이.

예를 들어 외국인 친구한테 “맥주 한잔 더 마실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ould you like to have one more beer?”

“one more beer OK?”

“second round?”

또는 병을 가리키면서 “One more OK?”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표현만 알면 다 된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손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하며 “OK? Thank you. You want it? More? OK? OK? yeah OK, you know it's OK.” 만을 사용하면서 당신은 당신이 아는 표현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Are you up for another?”라는 표현은 배우지 못하고 말이다.

03 착각과 함정에서 탈출하기

We live in a fantasy world, a world of illusion. The great task in life is to find reality.

우리는 환상과 착각의 세상에 살고 있다. 삶에서 가장 위대한 임무는 현실을 직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_ by Iris Murdoch (Anglo-Irish novelist and philosopher)

1) 원어민 없이 혼자 있거나, 한국인 친구들 혹은 가족들에게 영어로 말을 해보아라

다시 말하지만, 원어민들과 섞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 속에 당신도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하는 원어민 중 한 명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들끼리 하는 영어 실력이 본인의 영어 실력으로 착각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원어민 대화에 도취된 사람은 영어회화가 더 이상 발전을 못 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의 제한된 표현과 잘못된 표현으로 원어민과 대화해도 크게 불편

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그를 더더욱 영어의 자판에 빠지게 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말했지만, 대부분의 원어민은 당신의 영어를 고쳐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원한다. 그래서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한다.

“원어민 없이 혼자 있을 때 영어로 말해 보라.” 그리고 “한국인 친구나 가족들에게 영어로 말을 해보아라.”

그러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깨닫는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영어로 영어 전문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던 필자도 혼자 있거나 아들 앞에서 영어를 할 때 나의 표현의 한계점에 좌절감이 들 때가 있다.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를 통해 나의 부족을 알게 되고 더더욱 영어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2) 원어민들끼리 하는 대화가 들렸는가 생각해 보라

한날 원어민 모임에 참석한 필자는 한 원어민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들을 위해 천천히, 쉬운 단어로 말했는데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 어느 날 미국에 돌아가 가족들과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쉽게 이야기하느냐?”라며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어린아이 취급하고자 그러는 것이 절대 아

니다. 단지 언어 본질의 기능, 즉 소통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편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이때 원어민의 그런 친절할 영어에 감동하여 “아 이제 나의 귀가 뚫리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착각을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원어민들끼리의 대화가 이해가 되고 그들의 대화에 함께 웃을 수 있는지 보라. 혹 원어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지 못하여 자신의 청취력이 어떤지 알 수 없다면, 미드나 영화를 보라. 아니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나 디즈니 영화 등을 보라. 그러면 자신의 청취력의 부족함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원어민과의 대화에 성공하여 도취된 당신에게 다시금 도전 정신을 허락할 것이다.

3) 원어민과 전화로 대화를 해 보아라

고백하겠다. 영어학원 근처도 안 가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어학연수는 진심 꿈도 꾸지 못하였다. 하지만 유일하게 돈 주고 등록해서 교육받은 것이 하나 있다. 전화 영어이다. 2004년 초반에 이보영 선생님과 아이작 선생님이 모닝스페셜을 진행하던 때이다. 당시 돌발퀴즈(Pop Quiz)를 내주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답을 맞히곤 하였다. 지금도 이 돌발퀴즈를 하는데 현재는 ‘EBS 반디라는 어플을 통해 답을 보내 상품 추첨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를 걸면 생방송 중에 진행자들과 영어로 통화를 할 수 있고 답을 맞히면 그날 준비한 상품을 받았다. 필자는 끈질기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여러 번 문제를 맞혔었다.

참고로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상품을 타는 노하우를 공개하자면, 우

선 핸드폰을 들고 방송국 번호를 미리 찍는다. 그리고 방송에서 질문이 끝나기 전에 재빨리 마지막 통화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라디오를 통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방송의 경우 버퍼링 및 기술적 문제로 시간적 지연(Time Lag)이 있기 때문이다.

여하간 필자는 난생처음 전국 공영 생방송에 목소리를 알리며, 모닝스페셜에 처음 전화를 걸어 돌발퀴즈를 맞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한다. 하도 가슴이 떨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나의 첫 돌발퀴즈의 정답은 바로 'jump start'였다.

jump-start

1. starting an automobile engine that has a weak battery by means of jumper cables to another car
2. start (a car engine whose battery is dead) by connecting it to another car's battery
3. start or re-start vigorously

출처 : 다음 영영사전(Daum English dictionary)

그 뒤 필자는 끈질긴 수차례의 전화질로 돌발퀴즈에 여러 번 당첨되어 여러 가지 상품을 받았었다. 옥스퍼드사전, 전자사전, 배드민턴 세트 등등. 그중 하나가 바로 전화 영어 구독권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전화 영어는 나의 공보의 시절 점심시간 후 하나의 습관(ritual or routine)을 만들었다. 점심 식사 후 영광종합병원 뒤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서 영광군 단주

리를 바라보며, 시원하고 맑은 시골 공기를 한껏 음미하면서 전화 영어를 하던 때가 지금도 생각난다. 전화로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은 영어회화에 서 더욱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상대의 표정을 포함한 신체 언어(body language)를 볼 수 없고, 말하는 화자도 자신의 신체 언어를 상대에게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영어로만 자신의 뜻을 상대에게 전달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도 오로지 영어만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화로 원어민과 대화를 하게 되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다.

04 원어민과의 대화 극대화하기

With realization of one's own potential and self-confidence in one's ability, one can build a better world.

자신의 잠재력과 자신감으로 우리는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_ by Dalai Lama(Tibetan Monk)

드럼에서 가장 흔한 박자가 있다. 앞서 언급한 4분에 4박자의 리듬(8비트)이다. 그런데 이 박자는 초보자도 몇 주 정도 연습하면 칠 수 있다. 그런데 초보자가 연주하는 리듬과 고수가 치는 리듬은 같은 리듬임에도 불구하고 차원이 다르게 들린다.

그러면 8비트 박자를 습득한 초보자가 다른 리듬은 안치고 8비트만 죽어라 연습을 하면, 드럼의 고수처럼 칠 수 있을까?

답은 “못 친다!”이다.

8비트를 치더라도 고수는 강세와 리듬(Groove)을 넣을 수 있고, 박자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8비트만 습득한 초보자는 그런 고수를 따라갈 수 없다. 똑같은 8비트라도 다양한 박자를 연습하고 다양한 음악을 접한 연주자가 안정적이고 듣기 편하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표현만 계속 사용하면,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아도 제한된 말만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 혼자만의 시간에 단어를 외우고, 이를 실전에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그 표현이 내 것이 되고, 영어 실력이 발전하게 된다. 또한 대화하는 원어민 나라의 문화 및 그들과의 대화에 필요한 다양한 배경지식을 익혀야, 다양하고 재미있는 자신만의 영어 표현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걸음걸이, 목소리, 생김새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듯이 우리가 말하는 말투나 주로 사용하는 표현 또는 단어 등이 다 다르다. 영어도 바로 이와 똑같은 언어인 것이다. 즉, 정해진 틀에 박힌 숙어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과 색깔이 들어간 바로 ‘자신만의 영어’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똥 얘기를 해야겠다.

ex) I need to poop.

= Nature calls me.

자연이 나를 부른다. 생리적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

= I gotta hang a rat.

대변이 항문에 걸린 모습이 쥐를 죽인 뒤 밧줄에 매달아 놓은 듯한 모양이어서.

= I'm gonna hit the toilet.

우리나라 말로 똥 때리러 간다.

= I need to have a bowel movement.

= My butt/bottom is about to leak.

내 항문이 새기 직전이다.

= I need to expel my brownie.

내 브라우니 방출해야 한다.

= I need to make my own (청국장)

= My (순대) is about to explode.

= I gotta lay some eggs.

위의 표현은 실제 사용되기도 하고, 몇 개는 필자가 직접 만들어서 원어민들이 재미난다고 깔깔댔던 표현들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원어민과의 대화를 극대화해야 하느냐?

1) 자신만의 시간에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새로운 숙어를 외워라

원어민들은 당신의 영어 선생님이 아닌 이상, 새로운 표현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따라서 혼자 시간을 내어 단어를 외우고 숙어를 외워서 그들 앞에서 활용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단어를 외울 때 영영사전을 찾아서

외워야 한다. 그리고 예문을 외워라.

2) 자신이 외운 단어를 사용한 뒤 원어민에게 왜 물어서 자신의 표현이 어떠했는지 확인하라

예를 들어 'be better off'라는 표현을 외웠다면, 그 예문을 사용해서 말한 뒤 원어민에게 어떤 경우에 또 이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물어보아라. 그리고 당신이 이해할 때까지 다른 또 다른 예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를 사용한 문장을 만들어 그들에게 그 표현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라.

be better off 1. 더 좋은 상태이다 2. 보다 행복하다 3. 더 잘 살다

ex 1) she would have been better off if she had stuck with teaching

ex 2) is better off than his classmate

출처: 다음영어사전

ex 3) He would be better off if he didn't go abroad now that he got mugged in that country.

그는 그 나라에 안 가는 게 좋을 뻔했어. 그곳에서 강패를 만나게 되었으니.

발음이 불확실했던 단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해 봐 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meteorologist라는 단어가 있다. 우리나라 말로 '기상학자'란

뜻이며, 실제로 필자가 원어민 친구에게 물어봤던 단어 중 하나이다. 이 단어를 원어민에게 천천히 발음해 달라고 하고, 그 뒤 본인도 따라 해 보아서, '괜찮나?' 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meteorologist

a specialist who studies processes in the earth's atmosphere that cause weather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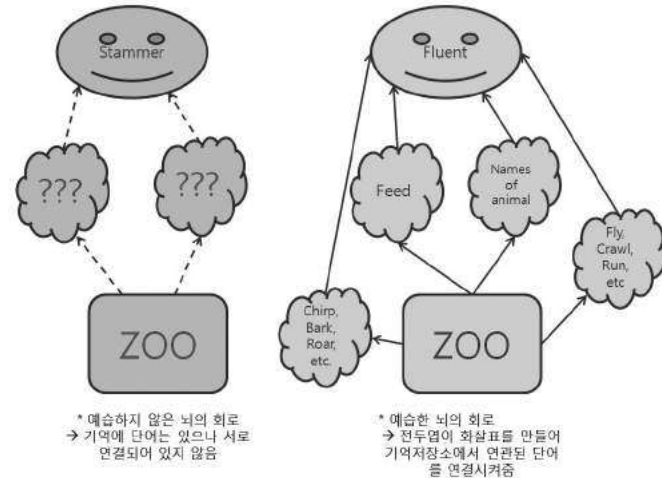
출처: 다음 영영사전

3) 새로운 단어나 표현이 들리면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물어보아라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알고 있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끝까지 물어보아라.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러면 원어민들이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한 문장으로 변형하여 당신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혹시 원어민들이 짜증날까 걱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앞선 영어 울렁증 극복의 글에서 이미 밝혔듯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면, 대부분 원어민들은 자신의 표현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를 안다. 그러기에 더더욱 쉽고 편하게 설명해 준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물어본 그 단어의 뜻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자세히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을 한 그 단어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

게 된다.

4) 원어민을 만나기 전 말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미리 공부를 하고 나가라



▲ 예습을 통한 단어 꼬집어내기 신경회로도

어떤 주제에 대해 원어민과 대화하기 전 그 주제를 미리 찾아보지 않으면 단어가 바로 생각이 안 난다. 즉, 기억이 저장된 해마에서 적절한 상황에서 필요한 단어를 꺼내어 주는 전두엽의 기능이 부족하기에 이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원 하면, 동물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다. 동물 이름, 동물이 내는 소리, 먹이, 천적, 행동습관 등등. 이에 대해 미리

한번 보고 나가면, 훨씬 더 그들과 말하기 쉬워지고, 이를 통해 확실하고 즉각적인 '단어 끄집어내기' 훈련(전두엽 훈련)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적절한 신경회로가 생기게 된다.

KEEP IN MIND



- 1) 집중력 없이 듣기만 하는 영어는 영어실력에 도움이 안 된다.
- 2) 영어 실력의 향상은 결국 본인에게 달려 있다.
- 3) 원어민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함정
 - 원어민들끼리의 영어 대화 수준이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쉽다.
 - 자신이 아는 표현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표현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 4) 원어민과의 대화는 본인이 공부한 것을 활용하는 복습의 기회이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해준다.
- 5) 원어민과의 대화 극대화하기
 -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그 시간에 단어와 숙어를 외워라. 이때 한국말로 외우면 안 되고 외우고자 하는 단어나 숙어가 들어간 문장을 외워야 한다.
 - 자신이 외운 단어를 원어민과 사용 후 원어민에게 다시 물어서 자신의 표현이 어떠한지 확인하라.
 - 원어민과 대화 시 새로운 단어나 표현이 들리면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물어보아라.
 - 원어민을 만나기 전 말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미리 잠깐이라도 관련된 표현이나 단어 등을 예습하고 나가라.

**실수는 최고의 가르침이자
사랑받는 비결 중 하나다.**

Chapter VIII
**실수는
최고의 가르침**



01 실수 하나

People learn the most thru mistakes.

실수를 통해 가장 잘 배운다.

_ by 류상효 (신경과 의사)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나는 교실의 벽 쪽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는 칠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리로, 뒤에서 두 번째 줄이었다. 그리고 한문 시간이 왔다. 한문 선생님은 특유의 말투와 어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자 분이셨지만 말을 하실 때는 선비처럼 항상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느리게 발음하셨다. 마치 본인이 양반인 양 뒷짐 지고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교실에 들어오면서, 학생들에게 “에헴! 잘들!~ 있었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였다.

그 선생님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체벌이다. 학생들이 한자를 외우지 않았거나 혹은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귀를 잡아당기셨다. 이 ‘귀 잡아당김 체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선 엄지

와 검지로 귀를 잡는다. 그리고 뒤틀면서 바깥 방향으로 당긴다. 그 뒤 사정없이 위로 아래로 들었다 놔다 하는 것이다. 비록 작은 체구였지만 파워는 막강하여, 그 손가락에서 나오는 악력은 호두라도 꺾 정도였던 것으로 또렷이 기억한다.

한문 선생님의 수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원하는 ‘분단’을 고른 뒤 그 분단의 학생들을 모두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문 하나하나를 뜻과 음으로 읽게 하는 것이다.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자~ 오늘은 1분단~ 일어~ 셉니다~ 한자~ 교과서~ 20페이지를~ 펴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 한 자씩~ 뜻과~ 음을 읽고 앉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일어섰다. 앞에서부터 뜻과 음을 말하고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클 태!”

“평평할 평!”

“성인 성!”

“대신할 대!”

⋮

뒤에서 둘째 줄에 앉아 있는 나에게로 점점 순서가 다가온다. 나는 내가 읽어야 할 한자가 무슨 글자인지 몰라,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식은땀이 난다. 옆에 있는 짝에게 내가 읽어야 할 한자의 뜻과 음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간절함에 콧속 찌르는데 반응이 없다.

.....: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

한문 선생님께서는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아주 조용히 특유의 말투로 말씀하셨다.

“뭐~ 하시나요~?”

필자는 말했다. 아니 버벅거렸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처럼.

“아... 저... 그... 어디...?”

한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다음 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선생님이 찢찢매는 나를 위해 답을 주시는 구나라고 감사하며, 큰소리로 용기 있게 한자를 읽었다.’

“다음~ 거!”

나의 이 대답으로 인해 교실은 완전히 웃음바다로 변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끝난 뒤에야 학급 친구들이 왜 나의 대답을 듣고 박장대소를 했는지 알았다. 뜻이 ‘다음’이고 음이 ‘거’라는 한자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읽어야 하는 한자가 ‘옷’ 의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衣 ... ① 옷 ② 싸는 것 ③ 이끼

출처 : 다음 한자사전(Daum 漢韓辭典)

실수는 우리에게 창피함을 준다. 그리고 이런 창피함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남긴다. 그 이후로 나는 衣를 절대 잊지 못한다. 한문 선생님의 얼굴도 잊지 못한다. 그리고 나의 컷볼도 그날의 아픔을 절대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실수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흑흑... T.T

절대 잊지 못할 거야... T.T

02 실수 톨

I'm learning that if you put yourself out there and make fun of yourself first, it really does work. People can't really make fun of you.

자신을 던져서 자신을 놀림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을 배운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놀리지 못한다.

_ by Nikki Glaser (American Comedian)

내 학창시절 당시 서울에는 대학 입시로 가장 유명한 학원이 두 개 있었다. 대성학원과 종로학원이다. 필자는 대성학원 입학시험을 재수로 당당히(?) 합격하여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5번의 실패 후 6번째에 의과대학에 들어간 것에 비하면, 1번 떨어진 학원 입시는 참으로 뿌듯하다.

대학입시학원은 한 반에 약 120명의 학생이 있었다. 책상과 의자는 공

용이자 일체형으로 책상에 A4용지를 하나 놓으면 위아래 약 2~3센티 정도의 여백이 남았다. 그리고 A4용지 두 장을 펼치면, 옆 사람의 공책과는 약 5센티 정도의 거리가 남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발 놓는 공간은 비행기 이코노미석의 절반 정도 공간이었다. 그 큰 널빤지 같은 길쭉한 공용 책상 의자의 양쪽 끝자리에 앉으면 한쪽 다리를 편하게 펼 수 있었다. 그리고 팔꿈치도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생긴다. 그래서 항상 그 널빤지 책상의 양쪽 끝자리는 언제나 인기가 높았다. 그리고 장유유서 덕택에(?) 나이가 많았던 필자에게 그 끝자리가 종종 주어졌었다.

학원에는 비록 대학을 앞둔 수험생들의 모임이었으나 재수·삼수를 하는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공부한다. 남녀 합반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고 새벽부터 자율학습을 포함한 하루 12시간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수많은 로맨스 및 재미난 에피소드 등이 많이 생겼다.

필자가 5번째 의과대학 도전을 목전에 앞둔 어느 날이 왔다. 학생들은 막판 스퍼트를 올리려 열심히 수업에 매진하던 중 어느 선생님이 수험생들의 긴장을 덜어주고자 하나의 제안을 했다. “누구 노래할 사람 없나?”고 말이다. 그때 학원 동기 중 ‘민○기’라고 하는 학생이 자원하여 많은 학원생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참 재미있는 노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잘 부르지는 못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노래를 끝까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불렀다. 그리고 학생들은 나중에는 큰 박수를 보내 줬다. 노래를 마친 그 친구는 씩 웃으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강단을 내려갔다. 그 친구는 현재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마 나는 그 친구를 알아도 그 친구는 나를 모를 것이다.

여하간 그 당시 그 친구의 자신감과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에도 태연한 척하는 당당함,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노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03 실수 셋

Making distinctions is part of learning, so is making mistakes.

차별화되고 구분되는 것은 배움의 일부이다. 실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_ by Nancy Reid Gibbs (American essayist)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 친구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다. 그는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가 미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직장에서 첫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시멘트 포장의 디자인을 하게 된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맡은 시멘트 포장의 디자인은 시멘트 회사의 홍보와 시멘트 포장 및 보관의 효율적 측면 3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했다.

영어가 익숙지 않은 그는 미국 내 첫 직장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도맡아 하게 된 프로젝트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드디어 그에게 디자인 발표 및 설명회 날이 왔다. 회사 회의실에 본인이 일하는 회사의 중역들과 시멘트 회사 중역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영어가 서툰, 하지만 디자인

에 능력 있는 그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열심히 준비한 그의 발표는 잘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시멘트 냄새를 감추는 효율적 측면을 부각하고자 그가 말했다.

“I hate the smell of cement!”

그러자 순간 회의실은 뭔가 모르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는 이를 눈치챘으나, 이번 발표가 자신의 첫 발표이자, 자신의 첫 프로젝트여서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을 가다듬고 발표를 계속 이어갔다.

“... Cement blah-blah-blah ... Cement ... So I hate the smell of Cement, I don't like the smell of Cement.”

그러자 갑자기 회의실 뒤에 앉아 있던 회사 중역들이 킁킁 웃다가 한 중역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I hate it too!”

그러자 회의실은 완전 웃음바다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의 cement 발음 때문이었다. 아니 발음보다는 리듬과 악센트 때문이었다.

영어에서 발음은 혀를 굴리는 것보다 리듬과 강세라고 필자가 앞에서 썼다. (Chapter III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참조)

원래 시멘트 Cement는 강세가 두 번째 있어야 하고 'i'는 살짝 얹혀서 들리게 된다. 멀리서 들으면 '멘트'라고 들리게, 즉 'ceMENT'라고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이를 'CEMent'라고 발음하였던 것이다. '씨~멘트'라고 말이다. 그의 잘못된 리듬과 강세로 원어민들은 그의 cement를 모두 semen으로 들은 것이었다.

semen

: 정액

출처: 다음 영어사전(Daum Korean English dictionary)

현재 그는 회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직원 중 하나이자, 회사의 미래로 대접받으며 현재 상하이에 파견 나가 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허락해준 '정'

브라더스에게 감사를 전한다.)

04 실수가 주는 선물

One of the greatest gifts we have is our own mistakes and somebody singing about them.

우리가 가진 위대한 선물 중 하나는 우리의 실수들 그리고 이를 누군가가 노래한다는 것이다.

_ by Garth Brooks (American singer and songwriter)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 영어도 마찬가지이다. 영어를 배우면서, 외국인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실수와 창피함을 경험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우리의 영어 실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영어의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을 가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억양과 발음으로 대화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영어 실수는 우리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영어로 실수로

인해 원어민이건 한국인이건 웃음을 선사할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게 된다. 그 선물은 바로 '호감'이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 그들도 웃고, 나도 웃을 수 있으며, 덩으로 그들에게 호감을 선물 받게 되어 그들과 어렵지 않게 친해지고, 친구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실수하기를 싫어한다. 나 또한 그렇다. 특히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런 실수가 타인에게 웃음을 주거나 혹은 실수한 사람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웃음으로 대응하거나,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실수한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에게 호감을 보인다.

▶ 실수가 주는 선물 패키지

가르침+사람들로부터의 호감+추억+미소 그리고 이야깃거리



제주도에서 아리랑 방송을 진행하는 '조 김'이 부산에 필자를 보러 왔을 때

필자가 영어 방송에 데뷔했던 2011년 광주 영어 방송국에서 'City of Light'를 녹음하던 때, 수없이 많은 실수와 에피소드를 많은 격려와 사랑으로 지켜봐 준 나의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에게 다시금 이 자리를 통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KEEP IN MIND



- 1) 실수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 2) 실수는 지우기 어려운 기억을 남긴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원한다. 고로 배우고자 하면 실수를 하라.
- 3) 성경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이 있다. 체면을 차리면 차릴수록 배움의 기회는 없어지고, 그 반대면 배움과 함께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다. 그리고 더불어 기뻐진다.

필자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구독 중인
EBS의 중급영어회화 POWER ENGLISH 교재



Chapter IX
시험은 배움



01 시험의 감각

Learning happens in the minds and souls, not in the databases of multiple-choice tests.

배움은 선다형 객관식 시험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과 영혼에서 일어난다.

_ by Ken Robinson (English Educator)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의사라는 자부심에 시작한 나의 인턴 생활, 특히 첫 응급실 당직은 잊을 수 없는 악몽이자 추억이다. 환자가 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이 응급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입원을 시켜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완전히 멘붕이었다. 의과대학에서 수없이 많은 질병과 치료법에 대해 달달 외우고, 시험도 패스했는데 말이다. 심지어는 젊은 가임 여성의 경우 방사능 검사(X-ray or CT) 등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임신 여부를 물어보고, 또한 소변검사로도 확인하라는 족보 중에 왕족보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막상 환자를 볼 때는 뇌가 텅텅 비

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영겁결에 방사능 사진을 찍고 난 뒤 여성 환자에게 다가가 가슴 짚으며 임신 여부를 확인했던 기억이 난다.

왜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의사 면허 시험을 위해 그 많은 의학 지식을 외우고 시험도 봤는데 말이다. 왜? 이는 바로 나의 해마(Hippocampus :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기록된 정보를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전두엽(Frontal lobe)의 능력을 전혀 훈련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훈련이 되는 시기가 바로 전공의 시절 환자를 보면서이다.

나는 인턴을 마치고 신경과를 가게 되었다. 사실 신경과는 의과대학 다닐 때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재시험을 본 과목 중 하나였다. 인턴 생활을 할 때는 다양한 과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과가 어떤 과인지 잠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 대부분은 자신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고 4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되며,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신경학이 너무 싫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외워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였다. 그러던 중 신경과 인턴을 돌게 되었다. 신경과에 대한 학창 시절의 아픈 추억이 되살아나 필자를 괴롭히는 듯했다. 뿐만 아니었다. 뇌졸중과 같은 초 응급 환자를 봐야 하고, 야간에 응급실 콜이나 중환자실 콜도 많았다. 삶과 죽음의 선상에 있는 위중한 환자들도 많고, 사망진단서를 써야 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속으로 다짐했다.

“신경과는 절대 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신경과 환자 안 보겠지. 인턴

을 돌게 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신경과 수업이니 한 번 열심히 하자.”

그리고 1년 뒤 신경과 전공의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신경과를 하면, 진정 환자를 위한 삶을 사는 의사로서의 삶이자, 보람 있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삶이라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난 뒤였다. 나 에겐 과거 학창 시절 수술을 받았던 기억, 그리고 갖은 잔병으로 병치레 를 했던 기억들로 인해 그 당시 누구보다 환자를 위해 희생하려는 사명 감은 뜨거웠다. 신경과 전공의의 삶은 역시 힘들었다. 필자는 현재 72kg 으로 표준 체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체중은 59kg까지 나갔다.

간혹 off를 받아서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에 벌떡 일어나 “네, 신경과 류상효입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이야기를 하신다.

또한 길을 거닐다가 어디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런 악몽 속에서도 열심히 좋은 의사가 되고자 했던 나의 열정을 하늘에서 아셨는지, 그래서 나를 더더욱 단련시키려 하셨는지, 이상하게도 내가 당직서는 날이면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었다. 내가 화타(華) 같은 명의여서가 아니라, 당직 날만 되면 희한하게 응급실과 외래에서 입원환자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나는 명의 화타가 아니라 환타(환자 타는 사람) 류상효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나에게도 4년 차의 계절이 왔다. 전문의 시

험을 준비하는 시절이 온 것이다. 책을 펼쳐보고 놀랐다. 책을 넘기는 순간순간 “아! 그때 그 환자가 이거였구나!” “아! 그때 그 증상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아!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아!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하는구나!” 난생처음으로 배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즐거운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물론 시험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전문의 시험을 보라고 하면, 다시 보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다.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나는 ‘나에게 더 이상의 시험은 없다’라고 믿었다. 그래서 필자는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토익이나 토플 같은 시험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생각하기도 싫었다. 단지 처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었다. 내 사전에 시험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냥 처음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원어민처럼 말하고 듣기, 영화 즐기기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공부 아깝지 않게 하고 싶은 말 원어민에게 영어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만 생각했다.

02 시험은 배움이다

그러던 필자가 어느 날 시험을 다시 보게 되었다. 나를 떠났다고 하는 시험을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조금 달랐다. 시험을 패스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 외에 시험의 또 다른 목적을 찾았기 때문이다.

영광군에서 공보의 생활을 할 때 군내 공보의 모임을 가서 한 공보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본인 꿈은 의료 선교이고, 이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 의사 고시를 준비한다고 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다. 나는 물었다.

“요즘 미국 의사 고시는 실기시험도 어렵고, 3번이나 봐야 하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혹시 떨어지면 어찌려고요?”

“떨어져도 준비하는 가운데, 학교 때 배운 것도 정리가 되고, 문제가 워낙 좋아 배우는 것이 많아요.”

그의 이 대답은 나를 시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떨어져도 괜찮다.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말이 나의 마음속에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필자도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와 연락을 한다. 그는 비록 해외 선교는 나가지 않았으나, 모 종합병원에서 소화기 내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선교, 의료 선교를 위해 열심히 사는 세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여하간 미국 의사 고시를 위해 막상 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초의학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니 좀, 아니 아주 많이 막막했다. 그 많은 재시험, 덕분에 2주로 줄어들었던 방학, 방학 동안 썰렁한 도서관에서 같이 재시험 준비를 하던 친구들, 재시험을 마치고 친구의 집에 가서 맥주 마시던 추억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이끌었다.

다시 의과대학 학생으로 돌아가 기초의학책을 펼치고 의과학책을 펼쳤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생각 없이 그냥 외우기만 한 지식이 새롭게 보였다. 나의 지식이 해마에서 하나씩 꺼내지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사실 배웠던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내가 놀란 것은 임상경험을 한 전문의가 되어서 의과대학 시절의 공부를 다시 하니 의학 적 지식이 환자의 경험과 합쳐져서 하나하나가 의학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배움의 기쁨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난생처음 경험하는 황홀 감에 영광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내 진료실은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불을 밝혔다. 그리고 시험의 당락을 떠나 배움의 바다에서 즐거운 유영을 즐기는 나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나 평균 이상의 점수

로 기초시험, 임상 시험, 실습 시험, 그리고 미국 전공의들이 보는 시험까지 통과를 하게 되었다.

나의 영어학습도 이와 같았다.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실제 회화에 사용하거나, 영화를 자막 없이 보는데 혹은 나의 의사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데 거의 소용이 없었다.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읽었던 영어로 된 원서들도 회화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회에 가서도 슬라이드 없이 외국인 연자가 하는 설명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의과대학에서 많은 영어로 된 의학 원서들을 보고 읽지만, 이는 영어를 수학 공식처럼 공식에 맞추어 해석하고 독해한 뒤 이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랬고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질병을 외우나 실제 환자를 보는 능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시험을 벗어날 수 없다. 필자는 그동안 고등학교 입시, 학원 입시, 대학입시, 그리고 의사 면허, 전문의 면허 시험, 미국 의사 면허 시험 등을 치렀다. 그럼 이러한 모든 종류의 시험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에 필자는 시험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 사실 시험의 일반적인 목적은 선별의 기능이라고 본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적절한지, 누가 능력이 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시험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싶다. 이는 바로 배움이다. 물론 진정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시험일 경우에 한해서...

KEEP IN MIND



1) 온실 속의 꽃은 조그만 시련에도 시들어 버린다. 하지만, 온갖 시련을 겪은 들꽃은 그렇지 않다.

2) 우리의 지식은 강을 거슬러 노를 저어 가는 조그만 배와 같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내려가고, 조금 힘들게 노를 저으면 제자리에 머문다. 힘껏 노를 저으면 조금씩 전진한다. 그리고 급류를 만나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깨닫지 못한 에너지를 모아 노를 젓게 된다. 급류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 젓기가 한결 가벼움을 느낄 것이다. 그 이유는 시련과 역경을 겪고나면, 자신도 모르게 강한 근력과 기술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는 단지 우리의 지식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3)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 뒤의 삶이 게으르고 흥청망청하면 치매가 올 수 있다. 반면 대학도 나오지 못하였지만, 끊임없이 배우고자 노력하고 배우는 자는 치매가 잘 오지 않는다.

Chapter X
두통과 영어



01 노력이 필요해

Success is no accident. It is hard work, perseverance, learning, studying, sacrifice and most of all, love of what you are doing or learning to do.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고된 훈련, 노력, 배움,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배우고자 하는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

_ by Pele (Brazilian Athlete)

나는 신경과 의사다. 신경과는 뇌, 신경, 척수, 근육 등에 관련된 의학이다. 다루는 질환으로는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등), 뇌전증 (과거 ‘간질’),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수면장애, 운동장애(파킨슨병, 수전증 등), 치매 등이 있다. 그중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질환 중 하나가 두통이다. 전 세계 인구 중 90% 이상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이 두통이다. 그만큼 흔한 증상이자 일차진료를 찾게 될 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 하나이다.

두통 환자에게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다. “혹시 내 머리에 무슨 문제나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이다. 두통의 원인은 약 300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뇌종양이나 뇌졸중 등과 같이 뇌 자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드물다.

두통은 크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일차성 두통이란 혈액검사나 뇌 촬영 등으로 아무리 검사해도 확인되지 않는 두통이다. 어떻게 진단하느냐? 바로 문진(History Taking)을 통해서 진단한다. 문진이란 두통이 언제,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생겼는지, 동반 증상은 없는지, 기저 질환 등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고 그러한 증상들이 특정 두통의 진단 기준에 맞으면 이를 진단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두통은 일차성 두통이다. 일차성 두통의 예로는 긴장형 두통, 편두통, 근막통증 증후군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차성 두통이란 어떤 것일까? 이차성 두통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외 뇌에는 문제가 없어도 기타 다른 질환, 즉 안과적(녹내장, 연부조직 감염 등), 이비인후과적(축농증, 비염, 중이염, 이하선염 등), 치과적 문제(턱관절염, 부정교합 등) 혹은 감염(뇌수막염, 감기, 독감 등) 등의 뚜렷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두통을 이차성 두통이라고 일컫는다. 즉, 두통을 일으키는 뚜렷한 신체적·기질적 원인이 있는 두통을 이차성 두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바로 ‘뇌’ 자체는 통

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가위로 자르거나 열 고문을 시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손톱을 자를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느끼는 구조물과 그렇지 않은 구조물이 있다. 한 예로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받는다. 사실 뼈 자체는 통증을 지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아프냐? 바로 뼈를 싸고 있는 골막, 주위 인대 및 기타 주변 조직에서 통각을 느껴 통증을 느낀다. 그리고 ‘뇌’는 통증을 느끼는 신체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눈에도 보이지 않고 피검사 등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일차성 두통은 왜 발생하느냐고 필자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두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장형 두통(Tension Type Headache)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자세, 거북목 증후군(Turtle Neck Syndrome :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단이고 실제로는 Forward Head Posture Syndrome, Anterior Head Syndrome, Upper Cross Syndrome 등으로 불린다) 등에 의한 근육통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징으로는 중등도 미만의 강도의 두통이다. 입원을 하거나 침대에 누워 끄끙 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강도의 두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긴장형 두통의 특징으로는 위장 증상이 없다. 즉 구토나 구역 등이 없다는 것이다. 혹 “아니 왜 뜬금없이 두통 이야기하다가 구토나 구역 같은 위장 장애를 이야기 하나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뒤에서 그 중요성을 알게 된다. 긴장형 두통의 다른 특징으로는 오전보다는 오후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며, 통증의 양상은 평

하거나 머리를 압박하는 양상의 두통이다.



긴장형 두통의 특징

- ① 중등도 미만의 강도로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
- ② 구역이나 구토 같은 위장 장애 증상이 없다.
- ③ 오전보다는 오후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 ④ 머리에 압박감 혹은 조여 오는 양상의 특징이다.
- ⑤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 번째로 흔한 일차성 두통으로는 ‘편두통’이 있다. 영어로는 Migraine(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머리의 한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 때문에 ‘편두통’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필자 개인은 이 진단명이 맘에 안 든다. 그 이유는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이 Migraine에 대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실제 편두통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편두통과 매우 다르다. 신경과 의사들이 말하는 ‘편두통(Migraine)’은 다음의 3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상과 달리 절반 이상의 편두통 환자들에게서는 양측성 편두통이 발생한다.

1) 중등도 이상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Moderate to severe intensity

2) 오심이나 구토와 같은 위장 증상을 동반한다.

Gastrointestinal symptoms

3) 밝은 빛에 두통이 심해지거나, 혹은 소리에 민감해지는 특징이 있다.

Photophobia or Phonophobia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거짓말처럼 왔다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편두통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두통의 기준과 신경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편두통의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등도 이상의 통증으로 머리를 잡고, 구역질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 끄끖거리는 고통으로 인해 국제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통계에서 편두통은 모든 질환 중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질환 2위에 올라있다.

02 두통의 치료

Q.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검사에서 나오지도 않는 일차성 두통의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고통 받는 대부분의 두통이 바로 일차성 두통인데, 그 치료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의 변화에 있다. 즉 규칙적이고 바른 식생활, 적절한 운동, 금주 및 금연, 바른 자세, 바르고 규칙적인 수면습관 등이 다. 따라서 일차성 두통 환자의 치료는 생활습관에 대한 중재적 상담 및 교육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서 보이는 공통점 하나가 있다. 약으로만 쉽게 나오려 하고, 본인의 노력을 덜 하려 한다. 아니 본인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면 다행이다. 그냥 약으로 나오려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물론 그만큼 두통으로 고통 받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병'이라는 오해 속에 심신의 아픔을 겪고 있음을 안다. 그러기에 얼른 낫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본인의 노력보다 빠르고 쉬운 치료법을 찾고자 한다.

환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비단 두통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인 고혈압, 당뇨, 호흡기 질환, 간 담도질환, 소화기 질환도 마찬

가지이다. 필자는 이러한 태도에 대한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는 한국 사람의 급한 성격이다.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일본일 초라도 아끼고 하려는 조급함이다. 둘째로는 현대의학의 발전과 그로 인한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의학적 연구결과와 정보를 '치매 정복' '암 정복' 등의 과장된 혹은 거짓된 의학 정보 기사들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기사로 인해 환자들은 어느 때보다 치료기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환자분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낫고자 노력하기보다는 현대의학에 대한 조급함, 쉬운 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료진과의 불신을 조장하게 되었다. 물론 의료진들에게도 반성이 많이 필요한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질병 치료에 있어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15년 넘는 임상 경험으로 이를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

- 1)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 2) 환자의 노력
- 3) 환자와 의사의 협력과 신뢰

인간이 고통 받는 거의 모든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위의 3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 요소가 서로 조화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만성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노력이다. 물론 암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1)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두통이나 만성질환은 1)보다는 2)가 더 중요하다. 즉, 환자의 노력이 치료에서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많은 시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피우고 싶은 만큼 피우고, 취하고 싶은 만큼 취하고 하면서, 만성질환을 약 하나로 완치해서 얻으려는 것은 놀부 심보이며,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상에 절대적 완치란 없다. 우리는 병을 조절할 뿐이고 생명을 연장시킬 뿐 언젠가는 사라져 갈 존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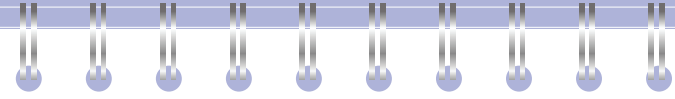
병원에 반드시 와야 하는 두통의 증상

- ①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될 때 (예 : 이렇게 아프기는 처음이다. 망치로 맞은 듯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났다.)
- ② 두통이 수일이나 수주에 걸쳐 점차 심해지는 경우
- ③ 일반 진통제를 수일 복용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 ④ 과로, 긴장, 기침, 용변 후, 성행위 후 혹은 갑자기 힘을 준 뒤 나타나는 두통의 경우
- ⑤ 50세 이후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되는 경우
- ⑥ 구역과 구토가 동반되고 구토 증상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
- ⑦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하고, 전신 무기력,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 ⑧ 점차 시력이 떨어지고 팔, 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잡기 힘든 경우
- ⑨ 의식이 떨어지고 혼미해지거나 자꾸 자려고 하는 경우
- ⑩ 경련 발작을 했던 적이 있거나 머리를 다친 후 두통이 발생한 경우
- ⑪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 ⑫ 임신 중이거나 암으로 치료 중인 경우
- ⑬ 혹시 내 머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는 경우

출처: 대한두통학회, 필자(13번의 경우)



[대한두통학회 홈페이지]



KEEP IN MIND



- 1) 두통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이 세상에 어떤 질병도 약 한 알에, 혹은 수술 한 번에 바로 완치되는 것은 없다. 두통도, 영어도 그리고 사랑도...

통역사 공부와 영어회화 공부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모든 통역사의 노력과 능력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외국 유학 없이 국내에서 혼자 공부한 분들에게...

Chapter XI

통역사의 영어 공부



01 이중언어자들(bilingual people)

It's a complicated process being so bilingual. Sometimes it's a mere word or sentence that comes to me, if I'm writing the book in English, in French. It's not always easy to deal with. Sometimes even during an interview somebody can ask me a question in English that I want to answer in French and vice versa – that's the story of my life!

이중언어자가 된다는 것은 좀 복잡하다. 때때로 나는 영어나 불어로 글을 쓸 때 단지 단어와 문장이 내게 다가오지만 언제나 이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때론 인터뷰할 때 영어로 받은 질문을 불어로 대답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게 내 삶의 이야기다.

_ by Tatiana de Rosnay (French Journalist)

서울의 강남과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동네에 가게 되면, 외국 유학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방학 때 해외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는 학생

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 아니 요즘은 대부분일지도 모르겠다. 여하간 그 중에는 외국어가 완전히 능통한 bilingual(이중언어 사용자) 학생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학창 시절에는 외국에서 살다 오는 친구들이 매우 드물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을 때, 특히 영어 수업을 들을 때면 그들은 많은 학생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거나 혹은 영어 수업시간에 들려주는 듣기 평가용 영어 대화를 카세트테이프로 들려줄 때 우리는 그들을 쳐다보며 그들의 영어 능력을 매우 부러워했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통역이다. 영어로 된 영화나 미드를 보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방금 뭐랬어?”라고 물어보면, “어~ 그~저~” 하고 버벅거리다 통역을 해주는데, 한국말로 한참 장황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바로바로 통역은 전혀 못 했다.

조금은 다르나 통역에 대한 다른 예가 하나 있다. 앞에서 몇 번 언급한 라디오 파워 잉글리시(POWER ENGLISH) 역시 EBS 장수 프로그램이자 간판 프로그램으로 동안 많은 진행자의 교체가 있었다. 지금은 원년 진행자인 '크리스틴 조'가 수년 전부터 다시 합류하였고 그 외 나이 많은 장난꾸러기 새 신랑(지금도 현 신랑) '브라이언 리'가 진행하고 있다.

브라이언 리는 영어 선생 외에 다른 직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통역이다(또 하나는 이중격투기선수 '정찬성'의 매니저 겸 전담 통역가이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로 한국말을 곧잘 하는 bilingual이다. 어느 날은 그가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은 좀 하는데,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했다. 영어가 모국어고 한국말은 나중에 배워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이중언어 사용자(bilingual)들이 전문 통역사들의 동시통역을 잘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도 일종의 훈련을 받고 시험을 본 뒤 통역사가 된다고 한다.



[파워잉글리쉬 홈페이지]

02 통역사의 뇌 회로

Translation is the art of failure.

번역은 실패의 예술이다.

_ by Umberto Eco(Italian Novelist, philosop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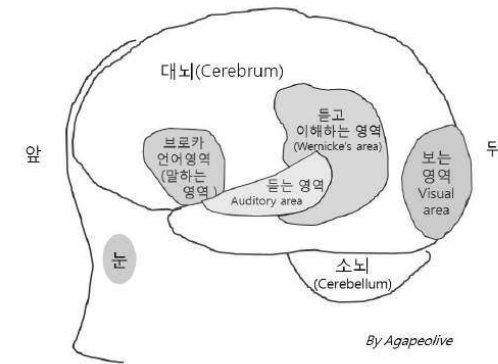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세계화를 외친 지 몇십 년이 지났다. 정착하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그들이 무리 지어 거주하는 특정 동네들(서울의 이태원, 서래마을 외 우리나라에서 장기거주하는 외국인들 마을)이 생겨나고 있다. 필자가 있는 부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나 식당에서 외국인들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영어가 안 되는 식당의 주인이나 종업원들을 보기도 하고 혹은 길거리에서 길을 몰라 지도를 보고 어디로 갈지 물어볼 때 영어가 안 되어 난처한 한국인들도 종종 본다. 필자는 그럴 때마다 자원하여 통역을 해준다. 그런데 통역이 예상과 달리 쉽지 않다.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말하고 해석해 주는데 순간순간 특정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 한참을 “어...”

하다가 그 단어를 설명하기도 한다. 어떨 때는 한국인에게 영어로 설명하거나,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설명하는 웃지 못할 경험도 한다.

여하간 통역을 하면서 필자가 가장 황당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한국어로 통역할 때 우리나라 말이 생각이 안 나 버벅거리는 것이다. 필자가 영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가 모국어인 필자에게 우리나라 단어나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다. 또 한 번은 아들과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고 “Hey Look! It’s an Elephant!”라고 설명했는데, 순간 ‘코끼리’가 생각나지 않아 몇 초간 “어~어~”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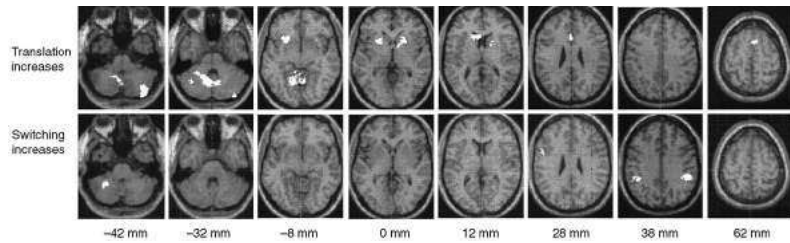
왜 모든 이중언어자들이 동시통역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뇌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컴퓨터 조정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 팔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는 영역(전두엽 : 운동 피질, Motor Cortex)이 있고 아프고, 차갑고, 간지럽고, 만지는 것 등을 느끼는 감각 영역(두정엽 : 감각 피질, Sensory Cortex)이 있다. 어떤 부분은 듣는 역할(측두엽 : 청각 피질 Auditory Cortex)을 하고 어떤 부분은 보는 역할(후두엽 : 시각 피질 Visual Cortex) 등을 한다. 그리고 필자가 가장 관심 있는 언어에 대한 영역이 있다. 이는 말을 하는 부분과 말을 듣고 이해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말을 하는 부분(브로카 영역: Broca's Speech Area)은 전두엽 외측 하단에 위치하고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부분(베르니케 영역: Wernicke's Area)은 측두엽과 두정엽을 아우르는 부분에 위치한다. 바로 이 두 영역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를 듣고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영어회화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뇌의 영역(언어영역)을 사용하게 된다. 문법의 공식화를 통한 이해가 아니라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실전영어회화 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통역할 때는 위의 언어영역이 사용되지 않는다. 즉 통역만을 위한 뇌의 회로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회로가 있기에 모든 이중언어 사용자(Bilingual)가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Functional MRI during translation and language switching Reference :
Brain (1999) 122 (12): 2221-2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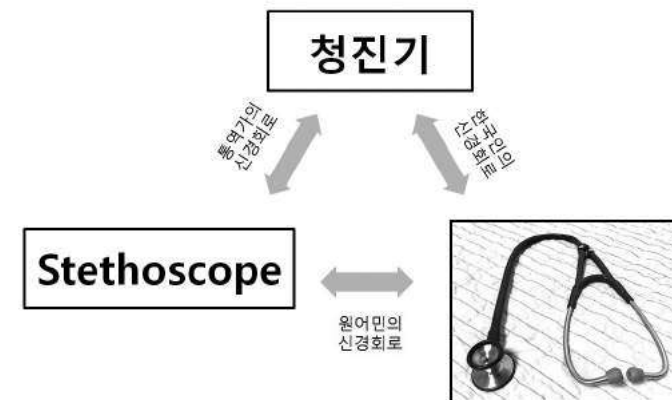
이 사진은 통역하는 사람의 뇌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unctional MRI)로 촬영한 것이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이란 뇌 영상을 찍을 때 피검자에게 어떤 일을 수행시키게 한 뒤 뇌의 대사량이 증가한 곳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떤 능력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역할 때 사용되는 뇌의 위치와 언어를 바꿀 때 사용하는 뇌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

주로 전두엽과 소뇌가 사용되는데 특히 통역 시 전두엽의 사용이 흥미롭다. 이 전두엽 사용은 필자의 예측과 일치하는데, 기억에 관련된 전두엽의 기능 중 하나는 해마(측두엽)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 주는 것이다. 즉, 저장된 단어 중 적절한 단어를 찾아 주는 기능이다. 바로 이 기능이 통역사에게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회로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한국어와 영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신경회로를 만들고 훈련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들으면서 해석하고, 말하면서 듣기 위해 '뇌 쪼개기'라는 것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뇌 쪼개기'는 우뇌가 발달한 남자보다 좌뇌가 발달하여 언어 능력이 뛰어난 여자에게 유리하다.

요즘 한참 화제거리인 인공지능을 통한 동시통역은 어떠한가?

필자가 그린 '통역의 언어 신경회로'를 보면, 어렵פות이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회로도를 이용한 1:1 단어의 통번역은 실제로 가능하다. 구글 번역만 봐도 그렇다.



▲ 통역의 언어 신경회로

하지만 여러분이 읽고자 하는 영어 원서나 영어 문장을 직접 구글 및 기타 번역기에 입력하고 번역하여 보아라. 동시 통번역이 아니라 동시 통번역이 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

까? 이는 바로 언어의 문화적 특수성 때문이다. 언어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각 나라의 문화가 그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해야 그 외국어의 참 번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한국어로 번역 후 이해하는 영어는 영어 본연의 목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예로 'ask for it'을 들 수 있다. 구글 번역기나 기타 컴퓨터 번역기를 돌리면, '그것을 요구하십시오'로 나온다. 하지만, 이 말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헐뜯는 말로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큰일 당할 거야'라는 뜻이 될 수 있다. 즉, 속어나 속어 같은 것은 글자 그대로의 번역이 아닌 것이다.

ask for it

slang) To act in a way that warrants the punishment or other repercussions that follow.

ex) Did you draw on the wall? Oh, you're asking for it now! Mary is a very patient person, so if she dumped Phil, he must have asked for it.

출처: <http://www.thefreedictionary.com/>

또 다른 예로 이번에는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나라 말에는 '정(情)'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정(情)에는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다. 만일 누군가가 "아이고 그놈의 미운 정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뒤 한국에서 자라면서 '정(情)'이라는 것에 대해 배우고 습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情)에 대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는 없다. 사실 무수히 많은 영어 단어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대부분의 명사 이외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Chapter V에서 영어는 영어로 이해하고 습득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 예로 'sorry'를 예로 들었다. 이 역시 '미안'의 뜻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그 의미는 영어권 문화를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외국어는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똑같이 해석되는 단어가 거의 없다. 똑같은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쓰임이 다르거나 외국어의 문화를 이해해야 이해되는 단어도 많다. 따라서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단어를 하나하나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쓸데없는 뇌에 너지 낭비이자, 영어를 습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외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즉 영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통역사의 번역 공부는 추천되지 않는다. 단 여러분이 통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다.

여하간 통역사는 '영어와 한글' '한글과 영어'를 왔다 갔다 하는 회로를

훈련하여야 하며, 문맥을 파악하고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이해와 함께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표현을 찾아야 하고 들으면서 이해하고 또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필자에게 상상하지 못할 능력이며,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불가능한 놀라운 능력인 것이다.

03 통역사 영어 공부법 따라 하기

How does a pet teach himself or herself? I think chiefly by imitation, chiefly by practising it as a deliberate technical exercise often. translation, imitation, those were my methods anyway.

어떻게 시를 배울 수 있을까? 이는 주로 의식적이고 기술적인 연습과 같은 훈련과 모방을 통해서라고 나는 생각한다. 번역, 모방, 이들이 나의 방법이였다.

_ Derek Walcott (Poet and playwright, Nobel Prize in Literature)

영어회화에 도움이 안 될 수 없다. 앞부분을 보면 shadowing이라고 하는 공부법이 있다. 필자는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다. 그 가운데 필자가 지금도 즐겨 하는 영어 공부법은 영어방송을 들을 때 그들과 같이 계속 따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shadowing이다. 더할 수 없이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다. 특히 발음에 있어서 영어의 리듬과 강세 그리고 박자를 익히는 데 매우 유용하다. 영어 발음에 있어서 '해부학적으로 혀의 위치가 어찌고저찌고, 발성이 어찌고저찌고'를 공부하는 것은 다 쓸데없

는 뇌의 에너지 낭비이자 인생 낭비다. 진정 발음을 원어민처럼 하고 싶으면 바로 이 그림자 방법을 해보아라.

또 하나, 통역사들은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듣고 번역함과 동시에 이를 말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뇌 쪼개기'라는 훈련을 한다. 일부러 시끄러운 음악이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들으면서, 두 가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통역사 시험 및 통역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통역사들이 훈련하는 '뇌 쪼개기'는 통역사가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아니,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나처럼 32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처럼 직장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뇌에 저장할 시간적 여유와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뇌를 쪼개면 안 된다. 통역사에게만 필요한 훈련이다. 그리고 신경외과 의사에게...

필자는 이 책의 Chapter I에서 '영어 공부의 목적'에 대해 썼다. 물론 그 뒤에도 여러 번 언급하기는 했지만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의사소통이며, 이를 통해 정보의 교환과 지식의 발전이라고 다시 한번 필자는 외치고 싶다.

: 문법에 대해

문법 공부로 수학적인 계산하에 한글로 번역된 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다. 고로 문법 공부는 인생

낭비다.

: 독해 공부에 대해

바쁜 직장인이라면 절대 독해 공부 따로 하지 마라. 대신에 회화를 위한 본문을 통째로 외워라. 그러면 독해능력이 저절로 향상된다. 독해를 따로 공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이자, 필자의 경험적 지식이다. 독해라는 것은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읽고 싶은 책, 알고 싶은 내용의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독해력은 자연히 뒤따르는 것이다. 즉, 책을 읽는 목적이 독해 공부가 아닌!!! 자신이 읽고 싶고, 자신이 감동받고 싶고, 자신이 얻고 싶어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자연스럽게 독해는 따라온다.

: 영어시험에 대해

우리나라 영어시험에 관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견적이 안 나온다. 하지만, 영어를 통해 화자(話者)와의 소통 그리고 이를 통해 지식을 나누고 본인의 지식을 넓히는 것이 목적(=필자의 목적)이라면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시험을 위해 공부하지 마라.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영어로 자기 생각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룩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수만을 위한 시험을 위해 자신의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KEEP IN MIND



- 1) 모든 이중언어자들에게 동시통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2) 동시통역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뇌신경 회로를 사용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영어를 습득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뇌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
- 3) 영어는 영어 그대로 습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습득에는 문화의 습득을 포함한다.
- 4) 영어의 본질은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이를 통해 지식의 공유 및 배움이 이루어진다.

Chapter XII

**모국어 습득과
영어습득**



01 통문장 외우기

Better never than late.

늦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_ George Bernard Shaw (Dramatist)

제2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언어 연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어는 습득이지 공부를 통한 계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다. 2017년도에 핫이슈가 된 영어 공부에 관련된 책이 2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와 《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 된 비법》을 들 수 있다. 이 두 저자는 필자처럼 국내에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으로 자신들의 공부 방법을 책으로 엮었다. 그들이 전하는 영어습득 비법은 조금씩 다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한 곳으로 귀결된다.

책 한 권을 외우거나, 문장을 통째로 100번 이상 듣고, 100번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하면서 외우는 것이다. 그래야 영어가 습득된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는 책 한 권을 외우라고 한다. 책 한 권을 외우면 첫 페이지는 어느 정도 쉽게 외워지나, 계속 외워 갈수록 외워야 할 분량이 축적되어 점점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를 통해 처음에 외웠던 페이지의 문장은 저절로 반복 학습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영어 문장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뇌에 각인시킨다. 그리고 각인된 문장을 바탕으로 단어나 숙어를 활용하여 영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 된 비법》 역시 영화를 보되 영화 속 대사를 통째로 다 외우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100번 이상 듣고, 100번 이상 입으로 말하기를 해야 한다. 즉 뇌에 통째로 문장을 세기고, 지속적인 혀의 훈련을 통해 영어 문장과 발음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습득된 문장과 발음은 추후 새로운 단어와 숙어를 활용하여 훈련된 발음과 더해져서 영어회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계속 듣고, 계속 말하는 것이다. 이는 ‘문법이 어땠고’ ‘어순이 어땠고’ 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외우는 것이다. 그렇다고 막 외우는 것은 아니다. 뜻을 이해하고 단어를 알고 그 내용을 즐기면서 외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습득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필자가 경험했던 학습방법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필자의 만 3살 된 아들이 습득하는 언어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필자의 아들이 정확히 생후 930일째 되는 날에 애니메이션 주제가와 숫자송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 녹음을 끝내고 아들에게 물었다. “3이 뭐야?” “구조대가 뭐야?” “도움이 뭐야?” “친구가 뭐야?” “날아가 어떻게 하는 거야?” “6이 우리 나라말로 뭐야?” “영어로는?” “스페인어로 뭐야?” 라고 물어봤다. 전혀 모른다. 그냥 외운 것이다.

이렇게 만 3세도 안 된 아이는 대화도 잘 못하고, 본인의 주장도 말 못 하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울고 떼쓴다. 이것이 바로 1세에서 4세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분노 발작(Temper Tantrums)이다. 그런데 이런 나의 아들은 놀랍게도 뜻도 모르고 이해도 못 하는 만화, 보여주지도 않은 만화, 단지 노래만 들려준 만화! 그 만화의 주제곡의 가사를 외운다. 그 외 핑크퐁 주제가, 트니트니 주제가 등을 듣고 외우고 있다. 뜻은 모른 채 말이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생활을 하면서, 단어를 하나하나씩 머리에 차곡차곡 저장해 나간다. 그러다가 간혹 노래 가사에 있는 단어와 일치되는 것이 나타나면, 이를 활용해서 말을 한다. 하루는 핑크퐁의 티라노사우르스 노래를 듣다가 “누구도 당할 수 없어!”라고 끝나는 가사를 수도 없이 반복한다. “당할 쥬 업쥬!”라고... 나중에 물어봤다. “당할 수 없어”가 무슨 뜻이냐고. 두 살 반 된 아이는 그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

고, 그냥 귀여운 아기 발음으로 “띠나노(티라노)”라고만 했다. 필자는 “티라노는 너무 강하고 튼튼해서 누구도 당할 수 없어. 티라노는 최고로 강해, 티라노는 폭군이야, 티라노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라고 설명했다. 필자의 설명을 2살 반짜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누구도 당할 수 없어’의 뜻은 ‘매우 강한’이란 뜻이 내포된 것으로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아이에게 공룡이나 상어 혹은 자동차 등의 아무 장난감을 사주면, 아 빠나 엄마를 겨냥하면서 “당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아들을 본다.

숫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약 1년 전 이맘때 2세 반이 된 필자의 아이는 우리나라 말, 영어, 스페인어로 어설피게나마 하나에서 열까지 세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것이 숫자라는 것을 1년 뒤인 요즘(만 3살 반 됨)에서야 조금씩 깨우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5개의 물건을 세는 것을 본다. 1년 전에는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기만 하고, 숫자 세는 것을 틀리기까지 하던 녀석이 말이다.

2017년 이른 봄 아이는 숫자 2를 습득했다. 하지만, 2를 언제나 “두 개나”라고 말을 했다. “엄마 여기 사과 두 개나 있네!” “아빠 여기 이것 두 개나 있네!”라고 했다. “과자 몇 개 줄까?”라는 질문에도 언제나 ‘두 개나’로 답했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아이에게 ‘두 개’의 의미가 ‘부족할 때’와 ‘넉넉할 때’ 다르게 사용된다고 설명하거나 애써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사용하는 ‘두 개’에 대한 예를 듣고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아이는 스스로 “두 개나 있네”와 “두 개밖에 없네”를 구분

하게 되었다. 아들의 '두 개'에 대한 습득은 숫자 2에 대해 '두 개'나로 말한 지 몇 개월 지난 늦은 봄이었다.



[필자의 아들이 생후 930일째 되는 날 녹음한 애니메이션 주제가와 숫자송 듣기]

02 언어 습득의 4단계 (골격이론)

Kindness is the language which the deaf can hear and the blind can s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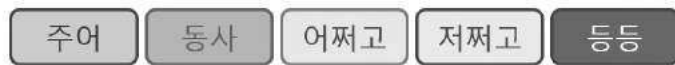
친절은 맹인이 볼 수 있고, 농아인이 들을 수 있는 언어이다.

- Mark Twain (American Author)

지금까지 많은 언어 습득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과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언어 습득은 심리학도 접목하여 언어 습득(Primary Language Acquisition)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제2외국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가 논할 자격이 없고 무의미하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책을 한 권 외우게 될 때 그 문장의 구조를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습득된 문장의 뼈대에 단어라는 살을 붙이고, 뼈대의 관절을 움직이는 문장의 변형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한 제2외국어 습득은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법(Mother Tongue: Language Acquisition)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1)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의 골격' 도식화



▲ 통으로 외운 문장 뇌에 새기기. 두 살 아들 통문장 외우기(노래외우기), 영어책 한 권 외우기, 영화 100번 봐서 대화 통으로 외우기, 필자의 영어교재 대화 통으로 외우기

문장의 골격 (문장의 뼈대) 형성

앞서 언급한 노랫말 외우기, 문장 통째로 외우기, 숫자 통째로 외우기를 통해 아이는 '문장의 뼈대' 혹은 '문장의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아이는 단어의 뜻은 모른 채 단지 그냥 문장을 통째로 머릿속에 입력시킨다.

만일 당신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상태이고, 제2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이라면, 단어의 뜻과 문장의 구조는 조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장의 골격'을 머리에 넣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이리저리 해석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한다. 그래야 뇌에 문장의 '뼈대' 혹은 '골격'을 형성할 수 있다. '문장의 골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형태(감탄문, 질문, 시적 표현,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장문 등)로 변형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 하나

어린이들의 뇌는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처음 그리는 것과 같아서, 들어온 정보를 이해하거나 생각 없이 그대로 통째로 외울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이나 모국어가 습득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어렵고, 잘 안 외워진다. 따라서 영어 문장을 외울 때는 단어를 찾아보고 뜻을 알아가며 외워야 한다. 즉, 문장을 이해하고 난 뒤 통째로 외워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어린아이의 모국어 습득과 다르다.

2) 문장의 골격에 단어들 들어와 저장되는 모습

(1) 단어의 습득을 통한 기억저장소 확장



▲ 통으로 외운 문장에 단어 정보가 기록되거나 어디로 가서 사용될지 모르는 상태

문장의 골격이 형성된 아이는 그 뒤 주변에서 들리는 단어들을 습득하여 해마(기억저장소)에 단어를 입력시켜 단어 저장공간을 늘리게 된다. 하지만 이때에는 어느 단어가 '주어'로 사용될지, '동사'로 사용될지 혹은 그 외의 것(어찌고, 저찌고 등등)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각각의 단어의 뜻도 잘 모른다. 그래서 아직 바른 순서의 배치나 정렬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ex) 약 30개월 무렵의 필자 아들 “아빠, 이거 어... 맞아... 샤희(상어)... 콧물 어... 하까 우리? 낚시? 어! 맞아맞아...”

(2) 단어의 제 위치 찾아가기

지속적인 단어의 입력을 통해, 단어 저장이 늘어나고, 동시에 단어의 뜻을 알아감으로 인해, 입력된 단어들이 바른 위치로 찾아가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지속적으로 입력되는 단어들과 뜻을 파악함으로써 '문장의 골격'에서 제 위치를 찾아가는 단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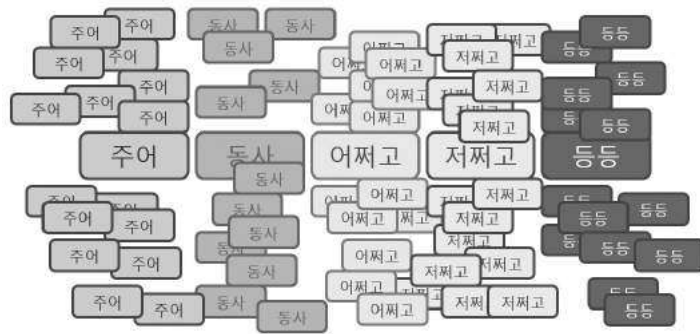
필자의 아들이 생후 40개월 무렵의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비가 어디야?”라고 물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물어보았더니 아이는 “비가 어디 와?”라고 묻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 필자 부부가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비가 어디야?”라고 물었는데 ‘어디야?’와 ‘어디 와?’가 헷갈렸던 것이다.

또 다른 예로 2017년 여름 부산 국립과학관을 다녀온 뒤 “오늘은 뭐했어?”라는 필자의 질문에 “항공우주 봤다 오고 했고, 연필 했고...” 하는 것이다.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동사를 중복으로 사용함에 놀랐고, 더욱 놀라운 것은 ‘연필’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사용한 것이다. 마치 영어에서 ‘water(물)’을 동사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ex) I need to water this flower.
이 꽃에 물 줘야 해.
My mouth is watering.
입에 군침이 돈다.

(3) 단어들의 바른 배치 그리고 '문장 골격'의 활용 및 변형

입력된 단어들 그리고 그 뜻을 파악한 뒤 '문장의 골격'에 단어를 접목시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그 골격을 변형시켜 의문문, 감탄문 반어법, 등을 습득하게 된다. 언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의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 언어 습득의 마지막 단계로 단어가 '문장의 골격'에 제 위치를 찾아가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도식화한 그림

바로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책의 저자들 그리고 필자가 공부한 방법이다. 또한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최종 단계가 될 것이다.

KEEP IN MIND



“언어 습득의 4단계”

1) 문장의 골격 형성

- 통문장을 생각 없이 그냥 통으로 외운다. (아이의 모국어 습득)
- 통문장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통째로 외운다. (제2외국어 습득)
- 문장을 외울 때 입으로 말해서 발음을 위한 혀를 발달시킴(모국어 습득) / 혀를 훈련시킴(제2외국어 습득)

2) 단어의 습득

어휘량이 늘어나고 단어에 대한 활용이 시작된다.

3) 단어의 활용

습득된 단어가 '문장의 골격'에 접목되기 시작한다.

4) 문장의 활용

습득된 단어가 '문장의 골격'에 정렬되어, 다양한 문장에 활용된다.

Chapter XIII
영어뇌 만들기



01 뇌의 리모델링 이론

It is literally the case that learning languages makes you smarter.
The neural networks in the brain strengthen as a result of language learning.

언어를 배우면 당신은 영리해진다. 언어를 배우므로 인해 당신 뇌의 신경회로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_ by Michael Gove (British politic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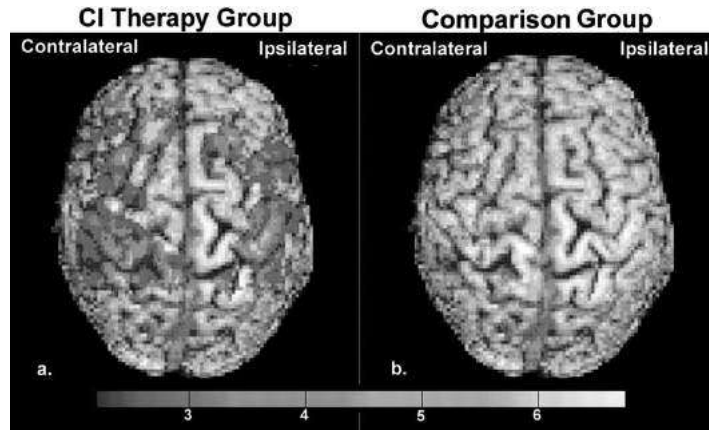
앞에서 필자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를 여러 번 밝혔다. “IQ도 인 간이 만든 임의적인 것이고, 나이가 들면 외국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하 기는 불가능하다.”는 개념에 대한 반항이 나를 영어 공부하게 만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사실 그런 나의 반항 뒤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 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특히! 뇌를 전공으로 한 신경과 의사로 “뇌의 성장은 사춘기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추후 노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심지어는 뇌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했었다. 그리고 이를 몸소 증명하려 했었다. 32살에 시작한 영어 공부로 원어민처럼 발음하고 원어민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살아 있는 증거’ 말이다. 그런 나의 노력은 실제로 나의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으며, 어느 때부터 실제로 원어민을 만나서 필자가 32살에 시작한 독학으로 영어를 한다고 말하면, 다들 “No way!”라는 반응을 보인다. 여하간 과거 과학자들은 뇌의 신경 형성과 신경회로는 나이가 들면서 고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00년도 중반에 ‘뇌의 리모델링’이 증명되었다. 필자가 원어민처럼, 아니, 원어민 정도의 영어 실력에 가까이 가고자 한 노력과 결과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하나 있다.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재활을 통해 대뇌피질 세포층이 두꺼워짐을 확인한 연구 - Stroke, 2008;39:1520-1》 이 논문은 뇌졸중으로 인해 마비된 사람에게 지속적인 운동 훈련을 통해 뇌의 실제적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뇌의 형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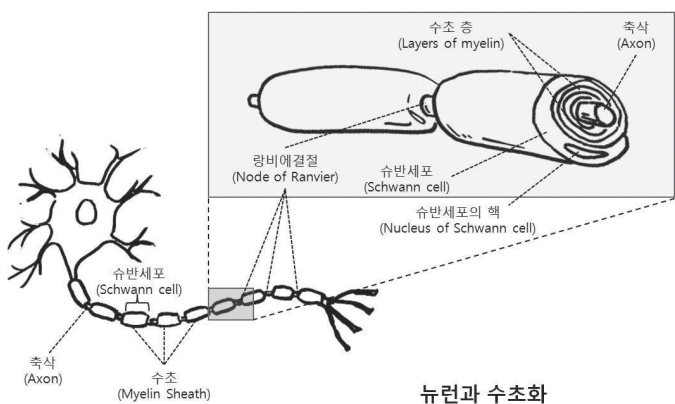


▲ 뇌의 형태가 실제 변함을 보여준 MRI 영상

그 뒤부터 많은 ‘뇌 리모델링’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효과가 속속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뇌의 변화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계속 변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는 치매 환자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을 통해 뇌를 되살리는 효과, 즉 뇌의 재생이 일어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우리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면, 새로운 뇌의 신경회로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뇌의 형태를 실제로 변형까지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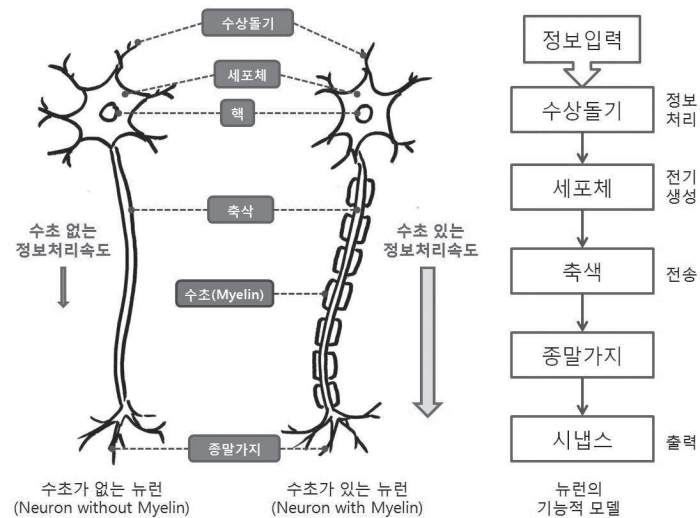
* The Journal of Neuroscience, July 9, 2008 (28):7031-7035)

2017년 6월 한양대학교에서 대한치매학회 주관의 ‘인지 중재치료 심포지엄’이 열렸다. 그날 발표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매 연구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나덕렬 교수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치매 환자들이 고도의 집중력 훈련 및 뇌 훈련을 통해 일부에서 인지 기능이 조금 호전을 보였으며, 상당수에서 인지 기능 악화가 멈춰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뇌에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자기공명영상(MRI) 및 과학의 발달로 뇌의 리모델링이 실제로 일어나며, 뇌의 형태가 변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뇌 리모델링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인지 중재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7년 11월에는 ‘인지중재치료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창립되었다. 물론 한 명의 치매 환자에게 들어가는 인력 및 시간 그리고 환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며, 그 효용성 및 인지중재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뇌의 형태를 실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뉴런과 수초화

▲ 신경세포의 수초화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여러 겹의 피복을 입히는 것과 비슷하다



▲ 수초화(myelination)가 일어난 신경세포는 그렇지 않은 신경세포보다 정보처리가 3천 배 가까이 빠르다.

뇌 리모델링의 대가인 뇌 과학자이자 정신건강 전문의인 Daniel J. Siegel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태중에서 뇌의 형성이 일어나고, 그 이후 사춘기에 접어들 때까지 끊임없이 뇌세포가 증식하고 자란다고 한다. 그 뒤 사춘기 이후에는 자라난 뇌세포를 연결해주는 수초화(Myelination: 신경섬유를 감싸는 현상으로 신경전도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림 참조)가 강하게 형성되고, 수초화가 일어난 신경세포끼리 서로 연결(synapse)을 이루어 우리의 신경 네트워크(신경회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신경회로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뇌의 발달을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엄마의 태중에서 '하드디스크'가 형성된다. 그 뒤 세상에 나온 하드디스크는 점점 그 용량을 늘려 감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입력으로 입력되는 정보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때부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즉, 서로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활용하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 여러 프로그램(신경회로)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지혜'로 바꾸고, '암기'에서 '이해'를 이루고, '성장'을 '성숙'으로 발전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이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은 고정되어 있으며, 더 고용량으로 교체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뇌의 하드디스크(뇌 실질)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특히 기억력에 관한 하드디스크는 더더욱 그렇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놀라지 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중에도 그대와 나의 머리 안에서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뇌는 태중에서 형성되고 뇌세포가 증식하며 우리의 뇌가 자란다. 그 뒤 어느 정도 뇌세포가 자라고 우리의 뇌가 형성되고 나면, 사람들은 뇌세포의 증식은 멈추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우리 뇌를 어떻게 훈련하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뇌의 회로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신경회로들은 만들어진 뇌세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뇌세포를 새로이 만들어서 증식시키고 키우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미 만들어진 세포들을 가지고 그들 간에 소통하는 회로를 만들거나 없애지게 하는 것이다.

통신을 예로 들어보겠다. 세포를 만드는 것은 통신기지국을 세우는 것이다. 신경세포끼리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은 통신기지국 간에 통신선을 깔아 서로 연결하는 것과 같다. 즉,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머리 안에 신경세포를 만들고 증식시켜 통신기지국을 건설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만들어진 통신기지국들 사이에 연결 회로를 끊임없이 만들고 변형시킨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의학적 사실이 하나 있다. 이는 통신기지국을 만드는 일, 즉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증식시키는 일을 하는 부분이 우리 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뇌세포는 여러분과 나의 뇌 안에 지금도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 세포는 줄기세포(stem cell)에서 만들어진다. 이 얼마나 기적적인 사실인가.

지금도 이에 대한 많은 뇌과학적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어떤 주어진 과제를 배우고 훈련했을 때 나타나는 뇌의 변화를 건강한 노인들과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이다.*

즉, 20대와 평균나이가 60세인 건강한 사람들에게 각각 3개월간 공 던지기(juggling) 훈련을 시키고 난 뒤 뇌의 형태변화를 관찰한 연구이다. 놀랍게도 60세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뇌의 형태변화 정도가 20대의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뇌의 형태변화 정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즉, 젊은 사람들에게서 훈련을 통해 커진 뇌의 회백질 변화(성장)가 평균나이 60세인 사람들에게서도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회백질의 성장이 일어난 곳이 피검자들의 해마(hippocampus) 조직이었다. 물론 과제 성공률에 대해서는 20대 젊은 청년들의 경우 3개월 훈련 후에 모두 다 juggling을 60초간 완벽히 수행한 반면, 60대 사람들에게서는 23%만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는 고령의 경우

* "Training-Induced Brain Structure Changes in the Elderly"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훈련에 기인한 뇌구조의 변화) The Journal of Neuroscience, July 9, 2008. (28):7031-7035.

나이가 들고, 근력이 약해지며, 노안 등과 함께 손과 눈의 동작을 일치시키는 능력(Hand-eye coordination)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그들의 뇌가 완전히 굳어져서 기능을 못 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근육과 눈의 노화로 인해 juggling이 어려운 것이지 그들의 뇌는 젊은이들과 같은 정도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함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하는 증상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를 겪게 된다. 피부에 주글주글 주름이 생기는가 하면, 머리카락은 하얗게 되거나 빠지고, 근육의 크기도 줄어든다. 또한 뼈도 약해져 골다공증을 겪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어떠한가?

뇌에는 따갑고 아프고 가려운 등의 감각을 느끼는 부분, 몸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 물체를 보는 부분, 소리를 듣는 부분, 말을 이해하는 부분, 말을 하는 부분 등 각각의 부위에서 각각의 일들을 담당한다. (Chapter IV 사전 '대뇌피질'을 참조)

그 가운데 해마라는 조직이 있다. 내측두엽(Mesial temporal lobe)에 위치하는 구조물로 바다생물인 '해마(seahorse)'를 닮았다고 해서, 해마(hippocampus)라고 명명되었다. 이 구조물은 그 크기가 지름은 약 1cm에 길이는 약 5cm로 우리의 새끼손가락 정도지만, 그 기능은 컴퓨터의 중앙처리기역장치(CPU)와 같아서 뇌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 이와

같은 해마는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는 학습, 기억 및 새로운 것의 인식에 대한 일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망가질 때 기억력 장애가 생기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이다. 또 하나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한다. 사실 이러한 기능들은 해마 단독적으로 이뤄진 기능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컴퓨터의 CPU처럼, 해마의 뇌세포는 다른 부분에 있는 뇌세포들과 복잡한 신경회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경회로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우리의 감정, 행동 및 운동 등에 관여한다. 따라서 이 부분이 고장이 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얽히고설킨 뇌신경회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뇌전증(epilepsy)'이다.

해마 안에는 줄기세포(stem cell)가 있다. 줄기세포란 다른 신체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 즉 '미분화세포'이다. 어떠한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손상이 되었을 때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시키는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이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모든 뇌세포에 존재하지 않고, 특정 부위에서만 존재하는데, 그 부위 중 하나가 바로 해마 조직이다. 그리고 이 해마에 있는 줄기세포는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날마다 매 순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만들어진 새로운 뇌세포는 해마와 관련된 기타 뇌 조직들과 어우러져 새로운 신경회로를 연결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억력에 관련된 해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과 나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기

역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다. 문제는 우리가 기억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끊임없이 배움과 맞닥뜨린다. 기고, 견고, 뛰는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 가족을 통해 사회성을 배우며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계속 배움의 연속이다. 그 가운데 배움의 jump start(Chapter VII의 3 '작각과 함정에서 탈출하기에 나온 jump start 참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 Chapter IX에서 시험은 최고의 배움이라고 필자는 말했다. 이 역시 의학적 사실이다. 시험이 있기에 우리 인간은 게을러지는 나약함을 잠시 벗어날 수 있고, 시험이 있기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마친 뒤 시험에서 해방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낸다. 그리고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 지난날 배운 것을 답습하며 이를 재사용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술과 담배, 환경공해, 게으름 등으로 우리의 뇌는 손상되고, 결국 우리의 해마를 망가지게 만든다. 물론 그런 가운데 새로운 일을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해마를 일시적으로 자극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처럼 계속 적으로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학업에 있어서 jump start와 같은 기말고사나 수능과 같은 시험이 없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해마를 녹슬게 만드는 습관에 의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갓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02 아이들의 뇌

Children are very smart, in their own stupid way. A child's brain is like a sponge, and you know how smart sponges are.

아이들은 정말 멍청한 면에서 매우 영리하다. 그들의 뇌는 마치 스펀지와 같다.

_ by Steve Carell (American 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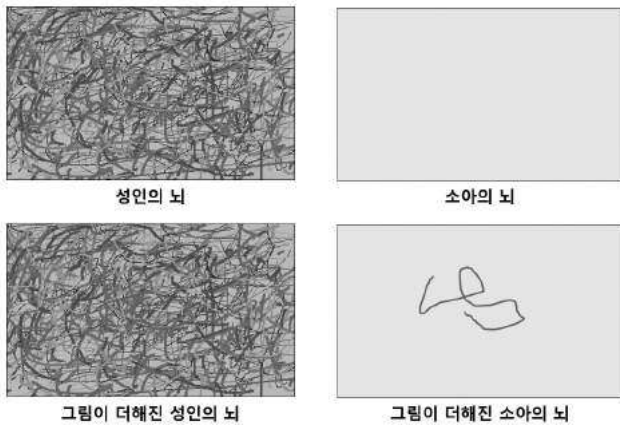
1) 아이들의 뇌는 뇌세포가 증식하는 성장하는 뇌이다

태중에서 뇌가 형성되면 그 뒤 뇌가 발달한다. 뇌세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쉬운 예로 'A'라는 알파벳을 습득한 뇌세포가 1개 있다고 하면, 며칠 뒤 그 세포는 증식하면서 2개, 4개, 8개 등으로 분열된다. 1개의 A를 습득한 뇌세포는 순식간에 8개로 증식하여 8개의 'A' 습득 세포가 된다. 하지만, 어른들의 경우 세포 증식이 거의 없다. 따라서 'A'를 습득하면, 커다란 증식이 없기에 'A' 습득 세포는 1개로 머물러 있다. 하지만, 언급한 것처럼 집중력과 훈련을 통해 뇌세포를 증식시키고 신경회로를 변형시킬 수 있다. 단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따름이다. 중요한 것은

비록 성인의 뇌세포는 증식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형성된 세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죽어가는 신경세포를 되살림과 동시에 이를 통해 뇌의 형태를 실제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아이들의 뇌는 하얀 도화지와 같다

즉,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릴 수 있고, 그렇게 그려진 그림은 하얀 배경에 확연하게 드러나 또렷이 구분된다. 반면 어른의 도화지는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때 추가적인 그림을 겹쳐서 그릴 수 있지만, 조금 덧칠한다고, 그 덧칠이 이미 그려진 그림 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 같은 그림이 더해졌으나 소아의 뇌 그림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보인다

또 하나, 어른의 뇌는 덧칠을 할 때 이미 그려진 곳을 따라 그 위에 덧칠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한번 형성된 신경회로는 나이가 들수록 잘 깨어지지 않고, 더더욱 강화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신의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더더욱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신경 회로가 더욱 강화되어 더더욱 고집이 세어지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덧칠 위에 덧칠하는 뇌 회로의 경향(한 번 형성된 회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는 경향, 즉 정보를 임의로 해석하는 경향)을 ‘뇌 회로의 고집성’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뇌 회로의 고집성’은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적용된다.

필자가 환자를 볼 때 진료 외에 중요한 것이 설명이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의 원인, 예후, 치료,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설명 후 그들이 얼마나 이해했나를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바로바로 질문을 통해 그들로부터 얼마나 이해했는지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들과 한참 동안의 상담과 교육 후 그들에게 다시 질문한다.

“약을 얼마나 드셔야 한다고 했지요?”

“파킨슨씨 병은 약을 먹으면 생명이 연장된다고 했나요? 아닌가요?”

“대상포진 신경통은 몇 개월 정도 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한자리에서 나의 설명을 같이 들었음에도, 그들의 대답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들의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또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들었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다.

ex) 필자: 대상포진 신경통은 상반신 혹은 얼굴에 생길 경우 수개월 가요. 경험상 6개월에서 길게는 무덤까지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증상이 좋아 집니다.

환자: 약을 6개월만 먹으면 완치된다고 했죠?

그래서 필자는 그들과 상담 후 상담 내용을 일일이 출력하여 보여주고 다음에 올 때 확인시킨다. 그리고 여러 장 출력하여 그들에게 주면서 진료일 함께 오지 못한 보호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다. 이는 특히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효과적이다. 치매 증상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심의 회로' '부정의 회로'가 강하여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른 형제자매나 먼 친척들로부터 욕은 먹을 대로 먹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본다.

여하간 '뇌의 고집성'은 영어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이므로, 뇌에는 이미 많은 한국어에 대한 회로가 있다. 이때 새로운 언어인 영어를 들을 때, 우리 뇌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한국어의 신경

회로를 돌리게 된다. 그래서 'Germany'를 '젊은이'로, 'All by myself'를 '오빠 만세'로, 'Good Morning'을 '끓었니?'로 듣게 되기도 한다. 필자 역시 처음에 영어 청취력을 향상하려 원어민 대화를 듣거나 영화를 볼 때 머릿속은 한국어의 회로가 마구잡이로 움직여 청취력이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회로를 놓아두고, 그 위에 새로운 영어의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① 집중력 ② 반복 학습 ③ 통 암기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뇌에 새로운 영어 회로를 형성하여 실제로 우리의 뇌 형태를 변형시킬 수가 있게 된다.

03 성인들의 뇌

I find the great thing in this world is not so much where we stand, as in what direction we are moving.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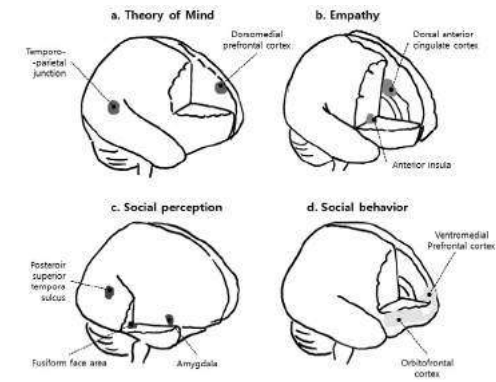
_ by Oliver Wendell Holmes Sr. (American poet)

필자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다양한 환자, 특히 뇌가 손상된 환자를 본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마음에 병이 있는 환자들도 필자에게 찾아와 진료를 보기도 한다. 그들 가운데에는 우울증, 망상장애, 해리장애, 공황장애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본다. 또한, 신문에서 사이코패스나 혹은 잘못된 신경회로의 형성에 의한 결과물로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을 접한다. 그때마다 필자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런 생각이 든다.

“저런 사람들도, 아니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응애~’ 하고

나와, 엉금엉금 기어 다니고, 엄마 젖을 빨고,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런 그들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기도 한다. 또한 불행한 일, 행복한 일, 슬픈 일, 기쁜 일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한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누구는 슬픈 일이 많아 ‘슬픔의 회로’가 강화되기도 하고, 누구는 상처가 많아 ‘아픈 감정의 회로’가 강화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겪게 되고, 이를 통해 뇌에 지우기 힘든, 마치 아주 진한 매직으로 하얀 도화지에 한 획을 긋는 것 같은 충격적인 신경회로를 만들기도 한다. 그 결과를 경험하고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역시 어떤 특정 신경회로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고 강화된 결과로 인한 것이다.



▲ 사회적 및 감정관련 뇌의 회로(네트워크) Neurology (2016), 12, 28-39

Q. 뇌를 리모델링해서 우리의 지적능력도 조절할 수 있고, 감정도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는 뇌도 변형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세상에는 행복하고, 기쁘고, 상처 없는 사람들보다 우울하고 슬프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까요?

2000년도 초반에 발표된 많은 연구에 의하면, 나쁜 기억은 우리의 뇌 신경에 강한 회로를 남겨 좋은 기억보다 우리 뇌에 오래 기억이 된다고 한다.

논문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Bad is Stronger than Good. Th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001, Vol. 5, No. 4, 323-370)에 의하면, 우리의 눈과 귀는 행복하고 기쁜 뉴스보다 불행하고 끔찍한 사건의 뉴스로 향하기 좋아하고, 우리의 입은 남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이야기보다,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BAD)의 회로는 긍정(GOOD)의 회로보다 강력한데, 단적인 예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의 회로가 어떠한 단순 사고나 실수에 의해 쉽게 '의심'과 '부정'의 회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부관계를 들 수 있다.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사랑, 한 이불을 쓰고 한 몸이 되는 사랑이 어느 순간 목숨을 빼앗고 싶은 미움으로 변하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나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신경 회로는 좋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신경 회로보다 강하고 오래 살아남는다. 그리하여, 치매로 인해 뇌의 세포가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없어지고 소멸될 때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의 회로가 살아남아,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한다. 노인성 우

울증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사다난한 세월 속에 기쁜 기억보다 슬픈 기억의 회로가 더 강하게 살아남아 노인성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치매 및 우울증의 신경회로는 실제로 우리 뇌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뇌세포를 없어지게 하고, 긍정의 신경회로를 파괴하고, 부정의 회로를 더 강화시키고 그 결과 뇌의 위축이 발생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뇌의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뇌의 변화 역시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다.

04 뇌의 리모델링 방법

Your brain - every brain - is a work in progress. It is 'plastic'. From the day we're born to the day we die, it continuously revises and remodels, improving or slowly declining, as a function of how we use it.

당신의 뇌를 포함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일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변경되고, 개조되며, 향상되기도 하거나 서서히 쇠퇴하기도 한다.

_ by Michael Merzenich (American neuroscientist)

이제 우리는 우리 뇌에 부정의 회로가 더 강하게 형성되고, 또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후자는 다음과 같이 나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Q. 선생님 슬퍼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부정의 회로가 점점 강해질 텐데 그러면, 우리 삶을 마칠 즈음에는 정말 추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인가요?

이에 대한 대답은 “기대할 수 있다.”이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삼성서울병원의 나덕렬 선생님의 저서 중 하나인 《뇌미인》을 보면, 우리의 뇌에 ‘긍정의 회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치매에 걸려야 하는 운명이 라면, 어떻게 해야 예쁜 치매에 걸리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① 진땀나게 운동하라 ② 인정사정없이 담배 끊어라 ③ 사회 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라 ④ 대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 ⑤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마라 ⑥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라

그런데 대부분은 이미 위의 방법들을 알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실천하기 어렵다. 즉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 어렵다.

It's easier said than done

의미는 it is easier to suggest doing something than actually to do it 말은 쉬우나 행동하기는 어렵다는 말

ex)

A : All you have to do is climb a ladder and mend the roof.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고치면 돼)

B: Easier said than done - I'm terrified of heights!

(말은 쉽지, 실제 어려워. 나는 정말 높은 곳은 무서워!)

출처 : Oxford Idioms dictionary for Learners of English

우리를 위의 실천사항으로 행동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앞서 필자가 언급한 뇌를 변화시키는 힘, 그래서 6가지 실천사항을 하게 해주는 회로를 만드는 힘, 우리의 뇌를 움직이는 그 능력! 그 마음의 힘! 과연 그런 힘은 무엇일까?

뇌 리모델링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로 이를 증명하고 발표한 Dr. Daniel J. Siegel은 이를 'Mind-Sight'라고 일컬었다. 그는 바로 이 'Mind-Sight'야말로 우리를 '비건강(unhealth)'에서 '건강(health)'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변하는 혼돈의 신경회로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Well-

being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고 한다. 그럼 'Bad is Stronger than Good'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의 뇌를 조절하고 우리의 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움직이는,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 Mind-sight는 어디에 있을까? 이 Mind-Sight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어디일까? 현재까지 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리고 뇌를 공부한 신경과 의사로서 그 영역은 '신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세상을 바로 보는 가치관 또한 변화시킨다. 이는 필자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도 그렇고 신경과 의사로서 환자들의 삶과 그들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삶과 가치관 또한 끊임없이 변함을 본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Bad is Stronger than Good》에서 보여주는 '의심과 부정'의 힘은 인생의 종착역으로 갈수록 커져, "오래된 병에 효자 없다."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돈 절대 주지 마라."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신경과 의사로서 그분들의 마지막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인생의 종착역을 향할 때 세상에 대한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는 모습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현실을 보고, 경험한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배가 끝이 없는 우주와 같은 캄캄한 바다를 향해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배는 자기만의 빛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빛을 발한다. 어떤 배의 빛은 밝고, 어떤 배의 빛은 어둡다. 또 어떠한 배는 붉은빛

을 발하고, 어떤 배는 푸른빛을 발한다. 어떤 배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빛을 발한다. 그리고 이 배들은 이정표가 없는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며, 서로 자신만이 휴식을 줄 수 있는 육지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라며 자신의 빛을 더욱 뽐낸다. 한편 어떤 배들은 자신의 빛이 너무 약해 어디로 갈지 몰라 자신보다 밝은 빛을 쫓아가고 어떤 배는 알록달록한 빛을 발하는 배가 매혹적으로 보여 그 배를 향해 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배들 역시 결국에는 망망대해에서 끊임없이 표류하는 배라는 사실이다. 결국 표류하는 배들이 또 다른 표류하는 배를 향해 향해하는 것이다. 저 멀리 보이는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는 등대의 빛은 무시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비추는 등대의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간혹 현란한 빛에 매혹되어 그 빛을 쫓아 표류하기도 하고, 때론 나보다 밝은 빛을 찾아 등대의 빛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불변의 진리인 그 등대를 향해 나아가면, 우리 뇌에 커져만 가는 '부정의 회로'를 이길 수 있는 '긍정의 회로'를 더 많이 만들고 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의 회로' '소망의 회로' '희망의 회로' '감사의 회로' 등을 더욱 많이 만들고 이들을 강화하여 먼 훗날 우리의 인생 종착역에서 마지막 인사를 기쁨과 감사로 나눌 수 있기를 필자는 바라고 믿는다. 변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비추는 등대의 빛을 바라볼 때, 우리 안의 'Mind-Sight'가 형성되고 이는 우리의 뇌 신경 회로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05 비건강에서 건강으로

There is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 mental health is too important to be left to the professionals alone, and mental health is everyone's business.

정신건강 없는 건강이란 있을 수 없다. 정신건강은 전문가에게만 주어지는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business이다.

_ by Vikram Patel (Indian Scientist)

다음은 Dr. Siegel이 강의한 영상을 보고 필자가 글로 적고 번역하였다. 그가 쓴 책이 아니라 강의이므로 문장의 문맥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강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On How You can change your Brain By Dr. Siegel

우리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Contrary to what we used to believe, we now know that the brain is open to change throughout the lifespan. And what some people don't realize is that not only can the brain change, but we can learn to use the focus of the mind to actually change the connections in the brain itself.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사실과 달리 우리의 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뇌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중이 신경회로 자체를 실제 변화시킨다는 사실마저 모른다.

You might ask "How in the world could attention change something like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brain?" And answering this question is exactly the way we illuminate a path for wellbeing. Because the brain gets set up by our genes from something we call temperament and also just by chance. But then our experiences actually sculpt synaptic connections in the brain itself.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고 당신은 나에게 물어볼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를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안녕(安寧)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시해 준다. 우리의 뇌는 유전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혹은 우연히 설계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경험이 더해지면, 설계된 우리의 뇌의 신경회로를 연결하여 뇌의 신경회로를 만들고 뇌를 조각하게 된다.

But there's the key! That when neurons fire, you can get them to rewire. And experience stimulates neurons, the basic cells of the brain to fire in particular patterns. One form of experience that we now know shapes neuronal firing and also synaptic growth, changes in the growth of the connections among the neurons is how we focus attention. And amazingly when you learn to focus your attention on the nature of the mind itself you actually can rewire important parts of the brain that help regulate how your entire nervous system functions, so for example, how your body regulates itself, how you balance your emotions, and also how you engage in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It also changes the way you relate to someone very close to you, how you relate to yourself. This reflected ability, I call 'Mind-Sight', and it's how you can learn to use the focus of your attention on the mind itself to actually transform the connections in the brain to move the brain for more integrated, harmonious way function. It's the promise of mind-sight. And in the mind-sight approach, we

see the brain as not just limited what's in the skull but actually an extended nervous system that is the mechanism by which energy and information flows. So we look at this connection among mind-brain relationships, we become empowered actually so move our lives from 'unhealth' to 'health'. And this can be called the triangle of wellbeing. We can learn to promote relationships that enhance our lives, we can help the brain move from states of dysfunction where it's rigid and chaotic to states of harmony that emerge something we call 'neural integration' and integration is where we take different parts and link them together.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다. 즉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의 신경 세포들은 그들끼리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든다. 경험을 통해 뇌에 있는 특정 부위의 세포들이 새로운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그들을 연결하게 된다. 어떤 종류의 경험을 통해 신경세포가 흥분되고, 새로운 신경연접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신경회로의 형성은 우리가 집중할 때 이루어진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러한 집중력을 통해 우리의 신경세포들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른 예로 우리가 우리 몸의 신체 일부분을 조절하는 것,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자기성찰의 능력 즉 자신을 자신과 연결하고, 자신을 타인과 연결하는 능력을 나는 'Mind-sight'라고 말하고 싶다. 이를 통해

우리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고, 이를 통해 실제로 신경회로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조화롭게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Mind-sight를 통한 접근법은 단지 우리 두개골 안에 있는 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를 넘어서 바깥 기관과 에너지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에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Mind-sight와 뇌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비(非)건강'에서 벗어나 '건강'의 상태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안녕(安寧)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관계를 증진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뇌를 도와 딱딱하고 혼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And the mind itself how we regulate our energy and information flow can be something that we learn to master and become in many ways the captain of our own ship where we actually, instead of just writing things and being passive as a participant to just see where the mind takes us, we actually can become empowered to move our minds in a way that is healthy, enriching and creates much more flexible way of living.

바로 이 Mind-sight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의 선장이 되어 우리의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통달하게 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던 곳을 벗어나 우

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삶이 유연하고, 풍족한 그리고 건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해당 저자의 감의 동영상 보기]

KEEP IN MIND



- 1) 우리의 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그러한 뇌의 변화는 우리가 우리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 2) 해마의 뇌세포는 매일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뇌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 3) 부정의 힘이 긍정의 힘보다 크다. 이는 뇌신경과학자들에 의해 증명되었으며, 성경에도 나와 있다.
- 4) 긍정의 힘을 키우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mind sight를 발견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Teaching is one of the best ways of learning

류상호 (신경과 의사)

신경과 전공의 시절 환자를 보는 것 외에 필자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다면, 이는 논문 발표이다. 매주 최신의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논문을 읽고 이를 요약하여 발표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필자에게는 많은 교수님을 향한 약간의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본인이 지도 교수면서, 본인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지 무슨 맨날 발표만 시키나? 환자 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은 전문의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비록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심심치 않게 신경과 개원의 학회 및 기타 신경과 관련 학회로부터 필자에게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곤 한다. 그리고 막상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알고 있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설명할 때 말문이 막히거나,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때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준비하는 바로 그 강의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나면, 나중에는 내가 준비한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나 이만큼 준비했고, 이만큼 공부했어요. 질문해봐요. 다 답해줄게요."라는 좀 과장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하루속히 발표의 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그렇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알기 쉽게 강의해 주는 것은 결국을 자신을 공부하게 하고 자신을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강의는 강의한 내용을 함께 나눌 때 그 의미가 빛난다. 학회를 가서 연자들의 강의와 발표를 듣고 그들에게 강의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일부 연자들은 강의 자료를 공유해 주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본다. 물론 저작권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유가 꺼려지는 것임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의를 각인되게 하고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한다면, 자신의 슬라이드나 자료를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게 수정하여 공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학회나 대학에 강의를 가면,

모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다 드리거나, 약간의 수정을 거쳐 파일 그대로 공유해 드린다. 그리고 “Teaching is one of the best ways of learning.”이라고 믿기에, 공유해 드린 분들에게 나의 자료를 보고 이를 가르치고 더 붙어 다른 분들과도 함께 공유하라고 권유한다.

이 책에서 나의 삶 일부를 공유함은 나 자신이 대중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지식은 나눔에서 그 지식이 발전하고 나도 발전한다. 그리고 남도 더불어 발전시킨다.”라는 나의 신념에 용기를 내어 책을 쓰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필자는 영어 공부를 한 지 14년째이다. 2004년 32살의 나이에 시작한 이 공부법으로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은 난생처음으로 생방송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영어로 하는 생방송을 말이다. 지금은 본업에 충실하여 신경과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필자에겐 새로운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삶을 즐기고 있다. 여러분들도 영어를 통해 저와 같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부모님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사랑으로 응원해준 아내와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The pain of parting is nothing to the joy of meeting again.

헤어짐의 고통은 재회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Charles Dickens (영국의 소설가)